



12

주 체 89 (2000)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12호

(루계 제 638 호)

◆◆◆◆◆◆◆◆◆◆ 차 례 ◆◆◆◆◆◆◆◆◆◆

영원한 동행자의 불 타는 심장	4
어머님의 노래수첩	8
영원한 길동무	9
장군님과 자강땅	10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	17
위대한 인민의 어머니에 대한 독창적인 시적형상	18
한없는 행복을 안고	21
12 월의 추억	23
푸른 사랑	24
명언해설	37
영원한 모습	38
어머님은 총을 잡고 계신다	38
고향과 서정	39
《나도 황제가 되었을거요》	42
20 세기에 남기는 시편들	43
꽃다발속에 비껴진 시적일반화의 세계	44

대지에 대한 이야기	45
할머니는 꿈속을 거니시네	55
소설문단에 핀 지성의 꽃	56
하얀 종이장	60
나의 한세기	61
갈매기	63
죽음과 바꾼 삶	72
보름달치녀	74
약속	75
담배를 끊으면	76
박지원과 그의 문학	77
《새 세기의 첫 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80

영원한 동행자의 불 타는 심장

리수립

12월 27일은 뜻 깊은 날이다.

10년전 바로 이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시인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 흠모와 충성의 글월을 받으시고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 주시는 영광의 회답서한을 안겨 주시었다.

잊지 못할 감격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벌써 열돌기의 년륜을 새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고 온 나라 작가들이 기쁨과 흥분에 울고 웃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 만세!》를 목청껏 터치던 감격의 그 순간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동지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0. 12. 27

김정일

오늘도 친필서한을 우러러 불멸의 명제를 새겨가는 우리모두의 가슴에 밀물처럼 끝없이 오르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며 웅심 깊은 경륜이다.

그래서 정녕 잊지 못한다.

그 믿음과 경륜속에 열려 진 새날에 사는 우리는 설혹 눈에 흠이 들어 간대도 100년이요 1000년이요 더 먼 영원한 미래에 이르도록 정녕 위대하신 그이의 은덕을 잊지 못하는것이다.

우리 잠시 세월의 흐름에 추억의 배를 거슬러 올라 보자.

20세기가 저물면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놀랍게도 사회주의가 좌절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류례없이 강화되었다.

혁명의 붉은기를 지키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일심단결의 대오에 묶어 세워야 하였으며 로동계급, 농민과 함께 작가들을 비롯한 지식인계층을 굳게 결속시켜야 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뒤집어엎는 도발적인 망동의 앞장에 불건전한 작가, 지식인들이 서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진것이다.

엄혹한 사태하에서 진보적인류는 작가, 지식인의 사회적존재와 활동에 대해 불신과 우려를 가지고 대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수행에서 작가, 지식인의 위치와 역할은 심각한 시대적문제로 상정되었다. 우환거리가 된 작가, 지식인, 그것은 그들자신의 운명문제이기도 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시대적정황하에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준엄한 세상풍파속에서도 한마음 충성의 편지를 보내온 우리 작가들을 두고 장장 수십년세월 당이 품 들여 키워 온 지식인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으시며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었다. 그이께서 작가, 지식인들을 지난날과 다름없이, 아니 더욱더 뜨거이 한품에 안고 나가실 대결단을 내리신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중에도 가장 큰 믿음, 사랑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사랑의 명제-당의 영원한 동행자, 당의 충실한 방조자, 당의 훌륭한 조언자라는 칭호가 력사의 창공에 금문자로 새겨 지게 되었다.

그렇다. 불멸의 이 명제에 집약되어 휘황한 빛을 뿌린것은 세상에 여지껏 있어 보지 못한 숭고한 믿음의 철학이었다.

그것은 작가, 지식인을 이중성을 가진 존재로가 아니라 높은 지성을 가지고 근본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계층으로, 그 어떤 기생자가 아니라 성실한 로동으로 사회의 정신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 근로자로 본다는 믿음, 그러기에 당이 그들을 동지적력량으로 삼고 사랑을 다하여 이끌어 사회주의위업을 옹위하는 투쟁의 기수로, 선도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믿음의 철학이었다.

그것은 세상이 이제껏 알지 못한 뜨거운 사랑의 철학이었다. 작가, 지식인은 우리 당과 혁명의 귀한 보배덩어리라는 불 타는 사랑의 선언이었다.

지난날의 인류사상사와 오늘의 세계가 불신과 의혹으로만 보아 오던 작가, 지식인을 오히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며 전진시키는 혁명의 주체적력량으로 믿고 내세우시며 보람차고 행복한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

량은 진정 강렬하고 뜨거운 것이었다.

하기에 친필서한을 받아 안은 격동을 담아 우리의 한 시인은 이날 《위대한 심장을 주다》라는 류다른 제명의 시를 터쳤다.

그렇다. 그것은 정녕 위대한 정도자께서 자신의 위대한 심장을 송두리채 그대로 작가들에게 주신 날이었으며 인류가 가장 위대한 신임과 사랑을 목격한 력사의 날이었다.

믿음은 충신을 낳고 불신은 배신과 변절을 낳는다. 진정 숭고한 믿음과 애정으로 하여 불멸의 서한은 영원히 작가들의 심장에 살게 되었으며 그들을 일심단결의 대오에 굳게 묶어 세우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장군님의 회답서한은 작가들을 힘 있는 존재로 키워 주고 이끌어 주는 위대한 경륜으로 하여 그들의 심장속에 영원한 좌우명으로 새겨 졌다.

작가는 문학으로써 혁명에 복무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작가의 필봉이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작가는 제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하여야 하며 그 담보와 비결을 옳바로 찾아 쥐어야 한다.

력사의 격동기인 금세기말에 우리 문학에는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작가력량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주체문학의 전면적개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나 그 위력을 백배하여 혁명을 억세게 떠밀어 가기 위해서나 당의 사상전선, 문학전선을 지켜 선 작가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최상으로 발양되어야 하였다.

돌이켜 보면 인류사에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이 갈라 지고 작품창작을 직업으로 삼는 작가적로동이 출현한 이래 오랜 세월을 내려 오면서 작가의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에서는 변화도 많았으며 그에 따라 작가를 해석하고 혼시하는 각양한 주장들이 있어 왔다. 개중에는 작가의 로동을 비천한 것으로 대하여 멸시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사회에 유익한 존재로 보면서 《선각자》, 《애국자》, 《투사》, 《인간정신의 기사》 등등으로 작가를 고무하며 내세우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작가의 존재와 활동을 외적으로 표상하면서 단순히 칭송했을뿐 그를 자주적인 인간본성의 근저에서 고찰하고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는 비결을 밝혀 주지 못한 피상적인 해석들이었다.

그것은 이 모든 견해들이 작가의 사회적 존재와 활동을 그 자주적본성에서 고찰하면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우에 이루어 지는 위대한 사회정치적생명체, 혁명의 주체와의 긴밀한 련관속에서 해명하는 높이에 오르지 못한때문이었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시대가 작가에게 부과한 사명으로부터

그 역할을 비상히 높일데 대한 경륜을 지니시고 탁월한 사상론, 수령중심론의 안광으로 작가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문제에 심오한 탐구를 기울이시었다.

사회의 선도자적력량으로서의 작가의 자주성과 창조성, 그것은 사상적지향의 높이와 생활적복무의 깊이에 관계된다.

사상적인 지향과 생활적인 복무에서 당대 시대의 요구를 최상으로, 최우선으로 만족시킬수 있는 작가만이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작가로 될것이다.

바로 그 사상적인 지향성, 생활적인 복무성의 가장 높은 명마루에 빛나고 있는것은 오로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며 그 활동의 중심인 수령의 사상과 정도이다.

자주시대의 참다운 작가, 훌륭한 작가로 살려면 자신의 자주성을 비상히 높여야 하며 수령의 사상과 하나의 결정체가 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창조력을 최상으로 발양시켜야 하며 마땅히 수령의 정도와 한선에서 살아야 한다.

그이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작가의 자주성, 창조성을 수령의 사상, 정도와 하나로 련결시키심으로써 그것을 최상의 경지로 높이는 근본비결을 밝혀 내시었다.

작가는 오직 수령의 믿음직한 동지적력량으로 될 때 자주성과 창조성의 가장 높은 명마루에 위치하며 활약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작가의 삶의 보람과 행복, 운명개척의 참된 길도 있다.

작가가 당과 수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되여야 하며 당과 수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되여야 한다는 숭고한 부르심의 철학적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것은 사상리론의 천재에 의한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리하여 력사적인 이 명제는 작가들의 심장마다에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깊이깊이 새겨 졌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회답서한은 그 숭고한 믿음과 사랑, 그 웅심 깊은 경륜으로 하여 유구한 우리 문학운동사와 작가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 준 위대한 선언으로 되었다. 그것은 정녕 살아서 순간도 떨어 질수 없고 죽어서도 영원히 잊을수 없는 우리 삶의 젖줄기, 우리 삶의 등대였다.

하기에 크나큰 은덕을 받아 안고 문학전설과 창조적 새길에 나선 작가들의 신심과 용기는 백배하였다.

우리 이제 감격의 날로부터 시작된 새 력사의 흐름에 추억의 배를 맡기고 그 10년로정을 회억해보자.

그것은 정녕 위대한 장군님과의 공지높은 동행의 10년이였다. 그이께서 작가들을 부르며 이끄시며 안내 주시며 혁명의 난국을 헤쳐 오신 풍상의 10년,

작가들모두가 우리러 따르며 안겨 자라온 잊지 못할 10년이였다.

주체80(1991)년 7월 17일.

위대한 그이께서는 《피바다》가극단 창립 스무돛에 즈음하여 작가, 예술인들에게 우리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가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다시금 안겨 주시였다. 그것은 12월 27일 친필서한에서 밝히신 령도자와 영원한 동행자 된 높이에서 작가의 지위를 찾으며 령도자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역할에서 그 사명을 보며 령도자가 제시한 당의 문예로선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관철하는데서 그 투쟁임무를 보는 바로 여기에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시대 혁명적작가의 참모습이 있었으며 궁지높은 면모가 있었다.

그이께서는 작가의 참다운 지위와 사명과 임무에 관한 인류사상사의 탐구에 진리의 해불을 비쳐 준엄 높은 작가적면모에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이 명제야말로 격동하는 오늘의 시대에 작가들이 올라야 할 높이, 작가혁명화의 목표를 더욱 뚜렷이 한 숭고한 리념으로 되였다.

위대한 그이께서는 더 나아가서 주체81(1992)년 1월 불멸의 로작 《주체문화론》에서 작가문제해결의 원칙적요구와 실천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자주시대 문학건설의 대총서인 이 로작은 특히 《작가는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가이다》를 통하여 력사적인 이 명제가 안고 있는 사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작가문제해결의 대강을 백과전서적인 지침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불멸의 이 명제를 표대로 하여 소집된 력사적인 조선지식인대회에 높이 울린 목소리,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부르심에 대답하는 작가, 지식인들의 심장의 목소리였으며 20세기를 총화하는 우리 지식인대오의 충성의 맹세의 화산같은 분출이였다.

1990년대 중엽에 들어 서면서 혁명은 간고한 국면을 맞이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로 보답해야 할 력사적과제가 작가들앞에 나섰다.

이 시기 혁명의 요구에 맞게 험로역경을 뚫고 나갈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인 선군혁명정치를 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제일 기둥이며 핵심력량인 인민군대대오에서 높이 발양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작가들이 따라 배워 투쟁의 시대에 간직해야 할 혁명적수령관의 새로운 높이를 체득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86(1997)년 3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취해 주신 조치에 따라 소집된 전국작가들의 회의는 우리 시대의 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창작에 구현함으로써 그이의 영원한 동행자 된 본분을 다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가 되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동면》해서는 안된다고 깨우쳐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새기고 작가들은 그이의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걸음걸음을 따라 나섰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의 결사옹위의 충성심을 담아 우리 문학을 수령영생문학으로, 선군혁명문학으로 혁신시켜 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성스러운 선군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작가들이 써올린 시, 가사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쪽잠마저 미루시며 지도해 주시였다. 그러니 이 헌신적인 지도의 나날 작품의 제명조차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최전선에 보내는 시》로 류다르게 변한것을 어찌 우연하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시기 작가들이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명작창작전투의 불바람을 일으켜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시여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을 구현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 낼데 대한 호소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까지 환히 밝혀 주시였다.

준엄한 혁명의 시대가 요구한것은 우리 장군님의 붉은기사상을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형상한 명작이였으며 오로지 명작만이 이 어려운 시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혁명수호어로 떠밀어 줄수 있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높은 뜻을 받아 안고 작가대오에서는 실력전이 벌어 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 창작활동의 높은 단계가 펼쳐 졌다.

정세가 어려워 질수록 창작은 더욱 고조되였다.

작은 성과도 크게 보시며 크나큰 고무속에 한껏 떠밀어 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아버지사랑속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작가대오에서는 종전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김일성상》 계관인이 배출되었으며 젊은 여러 녀성시인들이 한낱한시에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는 영광도 지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밑에 전화의 나날 1211 고지 전사들이 받아 안은 《화선휴양》을 방불케한 《작가특별휴양》이 해를 거듭하여 조직된 사랑의 전설도 강행군시기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연이다.

그러니 어찌 작가들이 필봉을 총창마냥 틀어 쥐고 용기백배하여 당의 사상전선, 투쟁의 제일선에 떨쳐 나서지 않을수 있었으랴.

우리는 오늘 시련을 뚫고 이룩한 명작풍년의 자랑을 안고 뜻 깊은 10년의 봉우리, 세기의 령마루에 오른다.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 시가문학이 앞장에 섰다.

시인들의 양양된 수령숭배의 열정은 인민들의 한 마음을 담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신운호 작사)를 안아 올렸으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집제작)를 내놓았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활동, 불멸의 업적이 불려 일으킨 웅건한 시대적열정은 큰 형식의 시문학의 활발한 발전을 담보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오솔도 어려울 때 힘을 주었다고 두고두고 회상하시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김만영)를 비롯하여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김만영),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류동호), 장시 《인민의 어머니》(정은옥, 김은숙),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며》(집제작), 서사시 《조국이여 청년들을 사랑하라》(백의선, 류동호) 등은 그러한 명작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시인들은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혁명적가사문학의 풍만한 개화로 힘있게 떠밀었다.

1990년대의 적기가로 불려우고 있는 가사 《높이 들자 붉은기》(송찬웅)를 비롯하여 《3대장군의 총》(김만영), 《우리 집은 군인가정》(류동호), 《병사가 거리를 지날 때》(남병우), 《대흥단 삼천리》(박정애) 등 많은 가사작품들이 노래로 되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치하를 받았으며 노래로써 개척된 우리 혁명을 노래로써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소설가들의 가슴에도 자라는 넘쳐 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이 10년어간 두차례나 이어진 장중편 소설 100편창작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커다란 자부가 있다. 특히 90년대의 후반기에 있는 100편창작전투는 류레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벌여 졌다. 현실체험조건도 창작실조건도 매우 어려웠으나 소설가들은 굴하지 않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창작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결사관철의 창작기풍으로 난관과 애로를 뚫고 나갔다. 그리하여 100년과제는 놀랍게도 한해 앞당겨 그것도 초과하여 승리의 보고를 올렸다.

이 기간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백보흠, 송상원)과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정기중), 《평양의 봉화》(안동춘), 《전환》(권정웅) 등 총서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창작되었으며 현실주체의 소설들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치하를 받은 장편소설 《열망》(김문창)을 비롯하여 장중편소설들인 《백설령》, 《수평선》(림재성), 《삼형제별》(리준길), 《우리도 군복을 입었다》(리동섭) 등 많은 성과작들이 창작되었다.

극문학작가들도 격동하는 시대의 주류를 확고히 탄 창작과 공연활동으로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모신 혁명연극 《소원》(서남준)과 수령님의 건군위업을 충실하게 받들어 드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무대화한 장막극 《어머님의 당부》(최현구)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작가대오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작품창작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많이 드린 지식인집단으로 솟아 올랐다. 이렇듯 큰 영광,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좋은 작품을 많이 썼다는 그 자체도 물론 큰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것은 작가대오가 위대한 령도자의 영원한 동행자대오, 주체형의 혁명적작가들의 대군으로 튼튼히 꾸려 진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사업에서도 그 주인은 사람, 다시말하여 문학건설과 창조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이며 작가대오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문학건설과 창조의 성패가 좌우된다. 주체적문학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주체문학건설과 그 영원한 개화발전의 천하지대본이다. 우리는 오늘 이 천하지대본을 빛나게 해결해 놓았다고 긍지높이 말한다. 이것은 기나긴 문학운동사와 작가운명사에 있어 보지 못한 획기적사변이다.

우리 작가들의 심장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이 제일생명으로 간직되어 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혁명적세계관으로 드팀없이 자리잡고 있다.

그들의 인생관의 좌표는 인민의 행복을 가장 높이 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기쁨과 만족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작가적인생의 최고목적으로 삼는 바로 이것이 조선의 작가들의 숭고한 인생관이다.

우리 작가들은 문예관과 창작방법에서도 최상의 경지에 들어 섰다. 그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인 주체의 문예관을 투철히 확립하였으며 사람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우고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과정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정확히 그리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하는 자주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 주체사실주의를 확고히 체득하였다.

우리의 우월한 주체사실주의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과 정서를 형상에 완벽하게 구현하는 독특한 형상방식으로 가장 심도깊이 구현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에서도 숭고한 풍모를 나타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창작과제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기어이 수행하고야 마는 기풍, 그 길위에 순직할 각오가 되어 있는 혁명적창작기풍이 대오에 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의리를 다하는 가장 고상한 도덕, 당의 문학건설을 지향하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창작윤리가 생활기풍으로 지배하고 있다.

세계관과 인생관, 문예관과 창작방법,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에서 인류문예사에 있는적 없는 당의 작가, 온 세계에 앞서 나가는 이러한 작가들을 우리 장군님께서 키우셨다.

그럼에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의 성장에 대해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치하와 고무를 주시였으며 올해 8월에는 친히 작가동맹 전체 작가들과 일군들에게 감사까지 보내주시었다.

허나 그것은 정녕 우리가 받을 감사가 아니었다.

감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진정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불멸의 대가를 밝히시고 준엄한 날에 은혜로운 손길을 펼치시어 당의 영원한 동행자들, 새형의 작가대오를 안아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주체문학발전의 만년초석과 보람차고 행복한 작가적 삶을 마련하신 위대한 은덕으로 하여 대를 두고 영원히 칭송 받으셔야 할 은인중의 은인,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우리는 심장으로 말한다.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령도의 대예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스승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 우리 작가들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크나큰 행복이라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작가들의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갈 때 우리 작가들의 영원히 보람차고 행복한 삶과 미래가 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승리하며 전진해 온 지난 10년, 아니 주체문학발전력사의 값 높은 총화이며 영원한 동행의 길에 오른 우리 작가들의 가슴마다에 불 타오르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불멸의 회답서한을 혁명문학의 기치로 높이 든 주체조선의 작가들은 그 빛나는 삶으로 하여 앞으로 영원히 전세계 작가들의 선두대오에서 자랑높이 나아갈것이다.

어머님의 노래수첩

한영팔

피어린 행군길에
네가 있었구나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던 대오에
불굴의 나래를 달아 주며

끓주린 낮과 밤에
네가 있었구나
혁명가의 육체는 허기쳐도
신념과 락관으로 헤쳐 가는 길이 있음을
노래수첩이여
너는 오늘도 전하고 있구나

노래수첩
김정숙어머님의 노래수첩
그 한장한장 펼치니
백두의 산야에 울리던 발구름소리
목숨으로 지쳐 온 붉은기의 퍼덕임소리
노래의 메아리속에 들려 오누나

산나물 다듬으시던 밀영의 밤

땀 배인 행진을 시내가에 행굴 때
어머님 부르시던 《사향가》소리
참다운 조국애의 선물이
뜨겁게 울리는 노래수첩

눈보라 사나운 행군길
결사의 언덕 넘어넘어
쓰러지면서도 부르던 적기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우리의 앞길에 메아리쳐 오누나

한몸의 흥이나 돌구자고
유흥의 멋이나 돌구자고
부르는 노래가 있다 하라

허나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우리 영원히 부르고부를 신념의 노래
네 갈피에만 있어라
아, 노래수첩
김정숙어머님의 노래수첩이여!



영원한 길동무

혁명적인 문학작품은 말 없는 스승이며 친근한 길동무이다.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서 문학작품이 노는 역할을 빛나는 예지로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청소년시절부터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왕성한 정력과 비상한 노력으로 동서고금의 문학작품들을 모두 독서하시는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 혁명활동시기에 혁명적인 소설을 많이 읽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어 조국해방의 험난한 길을 신심에 넘쳐 확신성 있게 개척해 나가신데 대하여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서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시었다.

주체60(1971)년 2월 중순 어느 날이었다.

창작가들을 만나시어 작품형상문제를 놓고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화제를 바꾸시어 지금 창작가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하지만 창작가들은 붉어 진 얼굴을 숙이면서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창작가들의 얼굴에서 모든것을 읽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잠시후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이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책을 많이 볼데 대하여 늘 강조하시며 실천적모범으로 우리들을 교양하고 계십니다.》

이날 큰 자극을 받은 창작가들속에서는 독서기풍이 서게 되었고 온 나라에 점차 책 읽는 바람이 세차게 일어 났다.

그러나 아무리 독서애호가라고 하는 정열가들이라 하여도 장군님처럼 그렇듯 책이 출판되어 나오기 바쁘게 탐독하는 독서가는 없었다.

주체67(1978)년 9월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면서 우리 나라에는 류례 없는 소설대풍이 들었다.

온 나라 책방마다 부피 두터운 장중편소설들이 차고 넘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명절기분에 들떠서 아직 누구도 그 소설책들을 읽어 보지는 못하였다.

9월 9일 명절을 쉼지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한 정치일군

을 만나시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었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은 어줍게 웃으며 아직 읽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의 전반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참으로 감명 깊은 소설이라고 소설의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장면장면까지 실감있게 이야기하여 주시었다.

온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목침같이 큰 소설책들을 언제 다 읽어 보셨을가?! 일군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이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훌륭한 소설책들은 모든 근로자들의 교과서로 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 주시었다. 일군은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이께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을 빛나게 관철할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그후로부터 모든 근로대중속에서는 독서모임을 비롯하여 읽은책감상발표모임을 광범히 벌리었다. 이러한 과정에 사람들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안아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며 사회주의건설의 초소마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인 소설을 통한 근로자들의 교양에서 특히 청년들과 청년동맹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청년들이 누구나 책을 볼수 있도록 부수를 많이 늘이도록 하시였으며 작가들이 앞으로 청년들교양에 큰 도움이 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시었다. 작가들의 생활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고 창작가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창작을 진행할수 있도록 모든 생활편의를 하나하나 돌봐 주시면서 앞으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손 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때문에 오늘 작가들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 주시고 우리 작가들과 작품들을 그토록 아껴 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새 세기에도 더 좋은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 불 타는 결의로 충만되어 있다.

장군님과 자강땅

서동린

나는 자강땅에서 산다
 자강땅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 온 시인
 량심과 의리의 붓을 들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수 없어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 지고
 길을 떠나노라

준엄한 조선혁명의 운명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새겨 가신 력사의 발자취 따라
 위대한 혁명실록의 한갈피한갈피를
 하늘을 들어 올리듯 받들어 올리는
 그 하나의 성돌이 되고 싶어
 내 감히 길을 떠나노라 조국이어

1

자강땅은 산이 많은 고장
 산과 산이 키돋움하고 솟아
 렬차도 산을 헤치며 달리는 고장
 하여 큰길보다 작은 갈래길 더 많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강줄기와
 높고 험한 고개 또한 헤아릴수 없는 땅

자강땅에 사는 사람들도
 미처 몰랐던 그 고개길과 고장들
 이제는 온 나라가 다 안다
 우리 장군님 혁명실록이 거기에 실려 있어...

강성하는 회천과 만포
 북천강기슭과 장강...
 그 거창한 숨결을 안고
 내 하늘가에 아득한 여기
 황수령마루에 서니

아, 우리 장군님
 깊은 회억속에 하신 말씀이
 뜨겁게 가슴을 친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계속되는 자연재해
 정녕 조선혁명이
 최악의 역경과 시련을 겪던 그때
 자신에게 제일 큰 힘을 안겨 준
 자강도사람들을 잊을수 없다고...

자강도사람들이

당에 대한 끝 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혁명앞에 가로 놓인 난국을
 제일 앞장에서 뚫고 나간것은
 영웅서사시적인 일이며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보자 자강땅이어
 너는 어찌하여
 장군님 그리도 못 잊어 하시는 고장으로 되었느냐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너의 이름만 들으셔도 눈굽을 적시는것이나

...

눈보라 인다, 눈보라 인다
 명문고개 아흔아홉굽이 눈길에
 매운 눈보라 사납게 갈기친다
 대소환의 그 못 잊을 1월의 눈보라를 헤치며
 우리 장군님 자강땅을 찾으시였다

무엇부터 어떻게
 피눈물의 언덕에서 시작한 이 《고난의 행군》을
 《북대정자》에 이르게 할것이나
 조국땅 그 어디를 앞세워
 생사기로의 운명에 처한
 수령님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내고 빛내일것인가

장군님의 심중은 무거우시였다
 천만의 심장과 심장들이
 장군님께로 향하고
 수천만 걱정어린 눈길들이
 장군님을 우러러 모여 들던 때

우리 장군님 강철의 의지와 담력을 안으시고
 눈보라 세찬 자강땅을 찾으시였다
 그 어느 곳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고장
 그 어느 곳보다도 경제적난관과
 식량난이 극심한 고장
 허나 이 땅엔 다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유산이!

조국의 운명과 이어 진
 력사의 새벽길과
 《광복의 천리길》이 뻗어 있고
 대를 이어 새겨 진

혁명의 천리길이 있나니
3대를 이어 애국, 애민의 숭고한 뜻이 어린
혁명의 성지여

정녕 자강땅처럼
만경대일가분들과
백두산위인들 발자취
뜨겁게 새겨 있는 고장 흔치 않으리니

말하라 자강땅이여
우리 수령님 몸소 터전 잡아 주신
굴지의 공장들이여
세계가 부러워 하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이여
그 어느 일터엔들 없으랴
우리 수령님 키워 주신 영웅들이여
당원들이여 로동계급이여

지리지 못 살던 누데기웃 화전민의
한숨과 눈물로 절고절던 땅
우리 수령님 온갖 심혈을 기울여
애써 가꾸고 꽃피워 주신 고장이어서
자강땅사람들
수령님의 그 로고를 덜어 드리자고
《명당자리》에 초대각도 지어 드리었던만
수령님은 너무도 뜻밖에 가시고...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자옥자옥에서
수령님의 그 로고 많은
생의 숨결을 뜨겁게 안고 가실 때

생각도 깊으셨으리
우리 수령님
서리꽃 피여 절경을 이룬 초대각에서
마음 편히 휴식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리고 우리 수령님 정력을 다해
일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마음 가벼우시랴

그래서 먼 발전소도 찾으시여
수령님 시운전하신 발전기에
영웅칭호도 수여해 주시고
수령님 생전에 사랑하신
영웅들과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만나시여
뜨거운 인정도 베풀어 주시었거니

말하라, 장자산갈림길이여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장자산에 들리시기를 바라는 수원들에게
인민들이 잘 살 때 찾아 오겠다고

우리 장군님 조용히 말씀하실 때

50여년돌기의 년륜을 새기며 기다리던
두그루의 잣나무도
서둘러 흰 눈을 털며 감격에 설레이고
장자봉도 한껏 키를 솟구며
그이를 뜨겁게 바래었다

우리 장군님
생각도 깊으셨으리
장자산, 전쟁의 추억과 함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곳
떠오르셨으리
아버이수령님 헤쳐 오신
포연 서린 전선길이

그날에 수령님께 올린 편지도 상기해 보시고
그날에 수령님 안녕을 바래 지으신
《축복의 노래》도 조용히 불러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신 이 땅을
오늘의 난국을 헤치는 력사의 땅으로
전국의 앞장에 세울 의지도 굳게 가다듬으셨으리

정녕 두분의 위인께서 사랑하신 자강땅
하여 위대한 수령들과
자강땅사람들사이에 맺어 진 혈연의 이야기
이 땅 도시와 마을 공장과 일터
흘러 가는 저 강줄기마다에도
수없이 깃들여 있거니

알리라
이 땅을 찾는 사람들은 알리라
강계정신을 창조한
자강땅사람들의 일본새의 근원
그 이디에 있는가를

장군님께선 믿으셨다
수령님의 사랑이 각별하셨던 고장
자신께서 대를 이어 믿음을 기울이시는
이런 땅에는 반드시
혁명적의리에 충직한 인민이 있고
시련이 그 아무리 준엄하다 해도
배반과 변심을 모르며
당을 따라 끝까지 가고갈
불굴의 인민의 열화 같은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 있으리라하는것을

장군님께선 가시는 곳마다에서 보셨다
살기 어려워도
장군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평양으로 향한 길들을

정성 다해 쓸고 다듬은것을

비록

숨 죽은 기대건만 윤기나게 닦고

옷은 번번히 입지 못했어도

공장파 마을을 사회주의맛나게 꾸린 모습을

참으로 시련에 찬 때이건만

자강땅 어데 가나 공원 같고

자강땅 어느 일터를 보나 궁전 같아

우리 장군님

자강땅에 오신 결심에 만족하시며

살을 에이는 강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북천강기슭에 오래도록 서계셨어라

물위에 떠서 처절씩 돌고돌며

전기를 일구는 띄우개식발전기며

북천강줄기를 따라 곳곳에 일떠선

크고작은 발전소들...

조국은 최악의 역경에 처해 있고

서방세계는 입을 모아

북조선의 조락은 시간문제라고 췌칠 때

여기선 자력갱생에서 살 길을 찾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펼쳐 나

발전소도 보란듯이 세우고

전기난방화된 별세상도 세웠거니

강변에 터치시는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여

벌써 조선에 세계에

강성하는 조선의 봄이 태동함을

엄숙히 선언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식이란 말이요!

쨍쨍 북천강이 서둘러 해빙기를 부르며

위대한 그 목소리를 증폭하여

온 나라에 메아리쳐 울려퍼

-이것이 바로 주체식이다

우리 장군님식이다!

장군님 옷자락을 날리던 눈보라도

먼 하늘가로 사라지는데

우렁우렁한 장군님의 말씀

천만리로 비껴 간다

나는 이번에 자강도를 돌아 보면서

내가 의도하고 내세우는것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았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

아, 사람들이여

내 잠시

자강땅인민을 대신하여

그대들에게 용서를 비노라

그대들은 질책했다

자강땅사람들을

조국땅 동서해안에서는 물론

군사분계선 가까운 곳에서도

질책의 편지가 왔다

기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때에도

그런 편지 무더기로 실려 왔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 때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여도

어쩌면 어쩌면 우리 장군님께

남새속을 넣은 강냉이가루빵과

죽 한그릇으로 끼니를 에우시게 했느냐고

옳다 천신만난을 단신으로 헤치시며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땅사람들 더운 음식 한그릇 대접 못했다

뿐이라

바람 세찬 역구내 렬차속소에서

족잠을 주무시게 했다

허나 사람들이여

달리는 될수 없으리라

이 땅의 성의를 다 모아도

우리 장군님

달리는 아니하셨으리라

녀인들 모이면

무슨 풀은 어떻게 가공해야

먹기가 한결 낫고

무슨 뿌리는 어떻게 우려야

먹어도 탈이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 매일같이 오고가던 때

길가에서 놀던 다섯살난 손주

집마당으로 뛰여 들며

-할머니, 강냉가루 내준대 하루분을...

그리도 기뻐 소리치던 때

우리 장군님 이런 자강땅에서

색 다른 음식을 어찌 드실수 있었으랴

아무리 자강땅사람들

진수성찬을 차려 올린다 해도

도리어 그런 《성의》를

강하게 나무람하셨으리라

이것은 변명이 아니노라
우리 장군님은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낮도 없이 밤도 없이
인민을 위해 근심도 많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는 인민우에 군림한 제왕이 아니시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인정 많으신 위대한 어버이이시기에
인민과 다르게는 행동하실순 없었거니

그이께서 드시는
너무도 검소한 식사를 보며
자강땅일군들의 눈굽에 맺히던
그 송구스러운 눈물속에
자강땅인민들의 마음도 함께 어려 있었음을
사람들이여 이해하시라

장군님께선 그렇게 주무시고
그렇게 때식을 에우시며
한해에도 여러차례나 자강땅을 찾으시고
한번 오시면 6천여리길을 달리시며
필승불패의 혁명정신
강계정신을 창조하시었거니

아직은 그날의 거룩한 발자취우에
기념비는 없구나
허나 강성대국이라 부르는
위대한 김일성조국이
그 기념비로 솟아 빛나리라

2

눈물에 젖어
내 그날의 이야기 펼치노라
장군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전설 같은 그 이야기...

계획을 못해 심려를 끼쳐 드린
불효한 자식
어버이장군님을 어찌
공장에 모실
기다림을 가질수 있으랴

그래도 혹시...
그리움은 더더욱 사무쳐
마음은 때없이 공장앞길로 달리고
간절한 기다림속에
해는 저물고 또 저물고...

하더니 자강땅을 떠나셨다는 소식
아,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내시고

이미 천리도 넘는 다른 도에 가셨다는 보도

못 견딜 그리움과 아쉬움속에
본분을 못다한 자책감만 더해 가는데
오셨어라 우리 장군님
자식들의 그 마음을 그냥 두고 가신것이
그것이 심중에 걸리시여
천여리 눈보라길을 되돌아 오시었거니

말하라, 눈보라 천리길이어
자강땅을 떠나시여 바쁘신 닻새
낮에도 못 잊고
밤에도 못 잊어 하시더니

자강도의 그 공장 노동자들이
내가 그냥 떠나온것을 알고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고
어서 가서 그들을 만나야
자신의 마음이 편할것 같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 간곡히 말씀하실 때

그 며칠사이에
하늘이 무너지듯 내린 눈을 생각하며
일군들은 간절히 말씀 드렸더라
눈이 강산같이 쌓여
그 험한 령길들을 헤쳐 갈수 없다고
그런 눈길로는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허나 우리 장군님의 절절한 마음
단호하셨어라
험산설령이라도 넘고
천길 눈속을 헤쳐서라도
어서 가서 그 동무들을 만나기전엔
잠을 이룰수 없다고...

하여
이 나라 북변의 험산설령을 넘고 헤쳐 온
사랑의 천리, 위대한 믿음의 천리길이어

꿈만 같아 웃고
생시여서 흐느끼는
공장로동계급을 한품에 안으시고
계획을 못해 위축된 마음들을 오히려 달래시며
우리 장군님
공장을 잘 꾸려 휴양소 같다고
자신께서도 여기 와서
동무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아, 다정히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어서들 다 모여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실 때

걱정이 크나큰 걱정이
온 공장을 휩쓸어
달리는 터칠수 없는 심장의 목소리
장군님 그 사랑의 품을 떠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 웨침을 만세의 환호로 터치는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선
수령결사옹위의 위대한 맹세가
산악같이 솟아 올랐거니

정녕 주시는 사랑과 믿음이 그토록 뜨거워
기다림속에 그리움속에 항시 살던가
자강땅사람들
꿈속에서 장군님 만나뵙는 일
그리도 많았더라

오로지 장군님만을 믿고
모진 시련을 이겨 나갔기에
격파인양 가슴치며 울려 온 소식
-아버이장군님께서 공장에 오셨다!
그 소식은 강한 자석마냥
멀고 가까운 모든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공장으로 불러 들이었거니

공장구내에 쌓여있던 쌓여 있는것도 아니고
안락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것도 아니건만
몇밤을 새우며
먼지 낀 백리길, 천리길을 걸어
사람들은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고
공장으로 공장으로 모여 들었다

잠시나마 살 길을 찾아
공장을 떠난 사실을 얼마나 섭섭해 하셨으랴
숨 죽은 공장구내길을 걸으시며
얼마나 심려가 깊으셨으랴
아, 우리 장군님

그 죄스러움도
부루는 회열로 밀어 져히며
사람들은 붉은기 날리는 공장정문으로 모여 들었다
들어 서며 그들이 묻는 첫말

장군님께서 건강하십니까
장군님께서 무슨 과업을 주셨습니까

정녕 그 어떤 소식도
이처럼 위대한 힘과 순결한 량심을
한꺼번에 불러 일으킬수 없으리라
-장군님께서 공장에 오셨다!

그 소식은 진정
생의 활력을 주는 강력한 생명수였고
의리와 량심의 피를 끓게 한
붉은기의 퍼덕임이었다

수령의 사랑이 피로 뛰는 심장
수령의 위대성을 절감한 심장의 힘은
그 어떤 자로도 재일수 없거니

자강땅 어데 가나 뜨겁게 올렸더라
-장군님 말씀엔 오직
결사관철의 한길뿐이지요

어느 포전길 걸어도
어느 공장 구내길에 들어 서도
한결같이 울리는 목소리
-장군님 말씀 관철에선
죽을 권리도 없지요

만약 해낼수 있다가
이런 물음을 앞세운다면
그는 자강도사람이 아닌
패배주의자이며 배신자

우리는 알고 있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
수령의 위대성을 절감 못하고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되지 않은 자
충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수 없음을

그런 자의 길은 배신의 길
그런 자 입맛 당기는 음식은 먹을지 몰라도
이미 짐승과 자격을 같이 한 추물
생김은 인간이나
짐승무리에 함께 사는 목숨인것을

하면 된다!
오직 이 하나의 신념을 간직했기에
자강땅일군들과 인민들
장군님 우러러 올린 말씀
-집행하겠습니다-
-일감을 더 주십시오-

사람들이여
-집행하겠습니다-
-일감을 더 주십시오-
이 짧은 대답의 무게를 헤아려 보시라

다음끼니가 걱정되고
일터의 모든 불리한 조건이 숨 차오른다면
어찌 이 말 올려 나올수 있으랴

두터운 얼음장을 까고
물속에 주저없이 뛰어들어
발전소를 일떠세울 때
10분도 건디기 어려웠다
잠시사이에 감각을 잃은 몸
제것이 아닌듯

얼음날에 베여진 몸에선
붉은 피 흘러 강물을 물들이건만
10분만 더, 아니 20분, 30분만 더!
장군님을 옹위하는 결사관철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것으로 알기에
강반에 퇴성치던 웨침이어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자!
-전기로 우리 장군님을 받들자!

정녕 한치한치 쌓아 올린 언제벽이
세멘트로만 높아 졌다 생각지 말자
거기에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생명의 젖줄기로 부여 안고
죽음도 각오하고 펼쳐 나선
자강땅의 숨결이 뜨겁게 숨배여 있거니

나는 잊을수 없노라
그 나날
길가의 한집에 들렀던 일을

집안엔 어린 오누이
그리고 문턱밑엔 남비 하나
나는 무심결에 그 남비 열어 보았다
남비안엔 두릅도 못될 뚫인 배추 한통
그것도 절반 쪼갠것

-이건 너희들 점심이나?-
생각됨이 있어 내 물었더니
어린 누이동생 하는 말
-절반은 아버지 어머니 잡숫고
발전소 건설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잡숫구?-
내 물음에 나를 쳐다보던 그의 오빠
아마도 열살은 넘지 못했을
그는 푹푹히 말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당원이에요-

물어 무엇하랴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운 식량난을 이겨 가면서도
서로 힘을 주고 부추겼으리
-우리가 당원들이 아니요
장군님께서 우릴 믿고 계시오-

그 말을 자주 들었으리
어린것들은
그말 영원히 잊지 않고 크리
우리의 후대들은

어려움이 컸다
정녕 어려움이 컸다
벗들과 이웃들을 잃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해
하나 장군님 홀로 지고 계시는
혁명의 그 무거운 짐을
다문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자고
결사의 의지로 펼쳐 나선 자강땅 사람들

집에서 쉬던 로당원들도 기능공들도
보안원과 인민반원도
공장으로, 발전소건설장으로
길따기공사장으로 달려 나왔다

그 나날에 인민은 장군님을 받들어
온 마음과 열정을 다 바치고
장군님은 그런 인민에게
천만사람을 다 주시였거니

세월이 흘러도 못잊어 못 잊어
전설처럼 전해 지는 자강땅의 이야기
소중한 추억으로 심장을 불 태우며
번영하는 이 땅과 함께 영원하리니

황수령 백도 넘는 그 굽이굽이 길을
빨래방치로 한치 또 한치
비단필을 펼치듯 다듬고 또 다듬으며
장군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 령길로 정녕 우리 장군님 오셨을 때
걱정의 파도로 가슴 벅차올라
환호를 터치던 사람들
우리 장군님 마을이 지척인데도
길옆에 보자기 하나 가볍게 펼쳐 놓고
웬기밥으로 때식을 에우신
황수령 그 중턱에 대한 이야기 전해 졌을 땐
평양하늘 우러러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추위에 떠는 누에에게
술을 뿌려 먹이며
식성도 높이고 추위도 잊게 한 그 기발한 생각
중독된 수백만마리의 누에들을 보며
애간장을 다 태우던 끝에
녹두물을 먹여 모두 살려 낸
그 수고 많은 나날들에 거칠어진 손을
우리 장군님 부드럽게 쓸어 주시며

그 손을 보배손이라 부르시며
존함이 새겨진 금가락지를 친히 끼워 주시고

어느 한 농장포전을 찾으시여선
북부고산지대 기후풍토를 길 들어
애써 세벌농사를 지으며 별에 탄
그 얼굴, 그 모습을
아름다운 비단옷에
영웅메달을 달아
우리 시대앞에 내세워 주시고
장군님 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우에
쌀배낭이 아닌
거름배낭을 지고 이고
포전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물결속에 차의 속도를 높일수 없어
정적을 울리려는 운전사를 만류하시며
우리 장군님
승용차의 속도를 사람들의 걸음속도와 같이 하게
하실 때

아, 그것은 그것은
우리 장군님과 자강땅 인민이
한숨결, 한결음으로 난국의 돌파구를 열어 가는
위대한 강행군의 화폭이었다

정녕 천겹만겹의 시련이 앞을 막아도
오직 장군님 사랑과 믿음을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을 받드는 그 한길에서
인생의 최대의 락을 찾은 사람들

하기에 우리 장군님
자강도에 계속 오고 싶고
오면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자강도사람들이 일을 잘하니
정이 간다고 말씀하실 때

아, 그 정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그 정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이고
그 정이 얼마나 크나큰 표창인가를
심장으로 폐부로 받아 들인
자강땅 사람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정을 안고
목 메여 목 메여 울었다

3

우리 장군님
깊은 추억의 세계에 잠기어
말씀하셨다

강계정신이란 말만 들어도
고생스럽던 나날이 떠올라
눈물이 나온다고

자신께서 최근년간
자강도를 것처럼 많이 찾은 그 수자에는
자강도 인민들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뜨겁게 담겨져 있다고

오시여
다시 또 오시여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손길로
앞선 공장들엔
더 큰 활력으로 강행군하게 하시고

뒤떨어진 공장들은
어서 빨리 추서도록 이끌어 주시며
아슬아슬한 발전소 얼음길에도
주저없이 차를 몰아 가신 우리 장군님

그 불면불휴의 낮과 밤이 있어
몇해째 숨 죽었던 공장들이
다시 거창한 숨결을 몰아 쉬며
생산정상화의 궤도를 힘차게 달렸나니

내가 만난
어느 공장의 지배인
그는 나에게 말했더라
웃음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느냐고

몇달전 소문도 없이
공장을 찾아 주신 우리 장군님
생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며
못내 기쁨에 넘쳐 하시는 말씀

지난 해 10월에 왔을 때에는
지배인이 울상이 되어 설명했는데
생산이 정상화된 지금
금이발을 드러내고 웃으며 이야기한다고

자신도 모르게 입가엔 웃음이 퍼고
장군님은 웃음에 실린 그 목소리를
즐거 들으시며 만족해 하시었거니

사람들이여
얼마나 행복한것이나
우리 장군님앞에
웃음 지으며 자기 사업보고를 할수 있는 사람은

그런 웃음 띤 목소리
조국땅 그 어느 일터에나 있어
우리 장군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마음 가벼우시랴
얼마나 만족하시랴

정녕 그 웃음을 주신분은 우리 장군님

장군님 아니시다면
어찌 짧은 나날속에
희천의 기계바다가 생겨 나고
구수한 고무냄새를 풍기며
만포땅에 제몫더미 산처럼 쌓일수 있으랴

우리 장군님 이렇게 자강땅을
높이 키돋움시켜 주시고
온 나라를 불러 우뢰를 울리셨어라
-강계정신으로 살며 일하라!

그러자 온갖 잡말들이
열풍속의 잡초마냥
시들어 가다 자취를 감추었다

어렵다는 말
곤난하다는 말
안된다는 말

그 말 모조리 불 태우며
우리 장군님 만면의 웃음속에 읽어 주신 구호
조국땅 곳곳에서 기발처럼 불 탔거니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하여 가장 시련에 찬 시기
가장 어려운 땅에서 타오른 강계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사회주의수호정신으로
온 나라에 세차게 파도쳤나니

정녕 강계정신은
우리 장군님 강인한 의지와 결단의 산아
온 심혼을 불태우시며

가사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

김희성

공원같은 구내의 푸른 숲에도
뜨거운 한마음 어렸습니다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고 싶은
간절한 그 소원 넘쳐 납니다

궁전 같은 일터의 기대들에도
알뜰한 정성이 어렸습니다
장군님이 공장에 찾아 오시면
기쁨 드릴 그 진정 넘쳐 납니다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신 위대한 창조

강계정신은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한
오중흡련대 그 정신이
준엄한 이날에 장군님을 받들어 재현된 정신

강계정신은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억척같이 받들어 올린
혁명과 투쟁의 기치

아, 강계정신이어
너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무궁할 조국과 함께 길이 불멸하리라

×

조국이어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노래처럼
자강땅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 새겨 가신
그 거룩한 발자취 따라
내 또다시 길을 떠나노라
천만 시인들이 읊어도 다 읊지 못할
그 숭엄한 노래에
한가락이라도 더 보태고 싶어

아버이수령님 혁명사적이 깃 들어 있고
우리 장군님 숭엄한 세계가 어려 있는
연풍과 고산진, 화평과 랑림...
그 성스러운 교장으로
내 가고 또 가리라
시인의 량심이 지워 준 집을 지고

시련을 헤쳐 가는 어려운 날에
더욱더 그리운 우리 아버지
장군님을 그리는 그 마음들이
일터마다 새 기적을 수 놓습니다

아 장군님을 공장에 모신 그날은
우리 소원 이루는 명절입니다

위대한 인민의 어머니에 대한 독창적인 시적형상

-장시 《인민의 어머니》에 대하여-

김상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에 바쳐진 장시 《인민의 어머니》(정은옥, 김은숙)는 독창적인 시적형상으로 하여 일정한 창작경험을 주는 성과작의 하나이다.

발견적인 시적형상이 종자의 독창적인 발견을 전제로 간다는것은 원론적이며 상식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이 창조원리는 언제나 창작가들의 고충중의 고충으로 되어 왔다. 그대신 발견적인 종자는 창작가들에게 성공의 열쇠를 쥐여 주는것이 상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문화사에 오른 모든 가치 있는 예술적발견은 다 자기 시대의 생활에 깊이 파고들여간 이름있는 작가의 심오한 철학적사색이 가져다준 귀중한 결실이다.》

모든 가치 있는 창조물들이 인간고뇌의 산물이듯이 가치 있는 예술적발견도 작가의 심오한 철학적사색과 진지한 탐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우리 주체문화사의 갈피갈피를 장식한 성과작들의 창조경험이 여실히 실증하여 준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의 창작가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인상을 노래한 종래의 시가작품들의 창조경험을 귀중히 여기면서도 독창적인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진지한 탐구적노력을 기울이였다.

시인들은 김정숙동지는 인민의 어머니이시라는 발견적인 종자를 심고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에 기초한 전형적인 서정적세부들로 생활바탕을 깔아주고 50년세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고이고 고였던 경모의 정을 뜨겁게 토로하였다.

어머니는
수령님 인민을
한집안 식솔로 안으시고
어머니란 그 이름을
인민을 키우는 사랑으로 빛내 주시였어라

진정 바람 세찬 타향에서 부모를 다 잃고
피눈물속에 헤여 진
언니와 조카에게 주고 싶으신 그 사랑까지 합쳐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에게
천으로 만으로 더 기울여 주신 어머니

시에서 노래된바와 같이 인민의 어머니로서의 김

정숙동지의 참모습을 또 한분의 위인의 모습으로 독자들앞에 뚜렷이 부각시켜 준 바로 여기에 이 시의 독창적인 형상세계가 있으며 남 다른 창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인민의 어머니-시인들은 이 명명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실재한 력사적사실, 실재한 생활세부들에 대한 열렬한 주정토로로 감명깊이 설득시켜 주고 있다.

이 장시에서 털실세부는 백두산 3대위인의 류례 없는 고난사를 다 담고 있을뿐아니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인민적품모를 인상 깊게 부각시켜 주는 가장 전형적인 생활화폭이다. 이 세부와 함께 빨찌산시절에 열고 터진 상처로 하여 저는 걸음새를 애써 감추시는 행동세부는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 오셨고 인민들과 고향을 함께 하신 어머니의 거룩하신 모습을 노래하는데 이바지하였다면 인민들이 금강산풍경병풍을 싸올렸던 보자기를 물 들어 옷을 지어 입으신 사연과 한생의 마지막밤에마져 병상을 돌보러 온 의사를 인민이 기다린다고 되돌려 보내신 눈물겨운 이야기는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노래하는데 바쳐졌다. 한편 선거장에서 한시간반을 기다리다 투표하신 너무나도 소탈하신 모습은 단 한번의 특혜도 받지 않으신 어머니의 《평민생활》을 가슴 뜨겁게 감득시켜 주는 서정적세부이다.

시인들은 어머니께서 헤쳐 오신 한생의 력사에서 인민적품모를 보여 주는 보석 같은 생활사실들과 일화들을 취사선택하여 서정발전의 합리적인 계기들에 자연스럽게 맞물려 작품의 종자를 생활적으로 담보하고 정서적으로 뜨겁게 체험시켜 준다. 이렇듯 장시 《인민의 어머니》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활세계에서 독창적인 종자를 탐구하고 새로운 주제영역을 개척할수 있는것은 시인들이 위인의 사상정신령역에 깊이 침투하여 현시대가 바라는 절실하고 의의 있는 문제에 옳은 해답을 주기 위한 심오한 철학적사색을 기울인데 있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는 또한 위인형상의 생리를 잘 살린것으로 하여 매우 시사적인 작품이다.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을 목청껏 노래 부르는것은 오늘 우리 시문학앞에 나선 절박한 시대적과제이며 더없는 영광이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과 더불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인상을 청송하여 온 력사

는 주체문학발전력사에서 그닥 오랜 로정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의 형성적지위는 날을 따라 높아 지게 되었으며 형상생리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백두산 3대장군, 3대위인상으로 승화되어 온 어머니에 대한 형상화과정은 그대로 어머니의 위인상과 불멸의 위업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류레 없는 내 조국의 다난사속에서 더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우리 시인들의 흠모와 경모의 정이 전례없이 두터워진 자랑찬 나날이었음을 실증하여 준다.

위인에게는 위인형상생리가 있기 마련이다.

어머니의 위인형상에서 장시 《인민의 어머니》가 거둔 성과는 길지 않은 한생에 언제나 인민을 가슴속에 안으시고 혁명앞에, 조국앞에 바칠수 있는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의 숭고한 사상정신적미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것이다.

6살 애어린 시절에 짙신 한결레를 보짐에 넣고서 차디찬 두만강을 건느신 어머니, 세대의 천진한 그 시절에 벌써 혁명의 총을 잡고 빨찌산녀장군의 첫 자옥을 새기신 어머니... 예까지 더듬은 시인들은 가슴속의 진정을 터뜨린다.

말해다오 세월이여
눈보라 울부짖던 천만산악우에
뜨겁게 새겨진
어머니의 천신만고의 그 자옥자옥
그 어느 혈전의 바위아래
그 어느 숲속엔들
그 자옥 찍히지 않았으랴

그 어느 얼음장아래
그 어느 작식터엔들
그 손길 가닿지 않았으랴

사상과 신념으로 위대하고 업적으로 위대하신 어머니의 위인적모습을 두고 시인들은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로, 인간미의 극치를 장식한 최정화로 격찬하였다. 이러한 미적평가속에는 남 다른 인덕으로 천만심장을 뒤흔든 어머니의 인간세계에 대한 아낌없는 찬탄도 포괄되어 있는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생활비를 조개여 수많은 콩나물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손끝에 멍이 들도록 만경대 원아들의 옷을 밤 새워 지어 주시였으며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자신보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신 숭고한 인정미에 대한 주정토로만으로도 이 시는 어머니의 위인적풍모를 충분히 음미시켜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의 형상에서 장시 《인민의 어머니》가 거둔 다른 창작적성과는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을 높이 받들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적극적인 조직자, 집행자로서 활약하신 숭고한 모습을 극명한 필치로 우러러 칭송한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혁명로선과 정책작성을 적극 보좌해 드리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한몸으로 맡아 나서시여 몸소 조직집행하신 어머니의 남 다른 기풍과 기질은 우리 시인들이 두고두고 노래하여야 할 소중한 형상세계이다. 하기에 장시 《인민의 어머니》는 새 조국건설의 초행길을 헤쳐 오던 성스러운 그 나날 아버지수령님을 받드시여 어머니께서 이 땅우에 남기신 현지도의 자옥자옥을 감회깊이 더듬으며 복받치는 마음속 이야기를 토로한다.

세월이여
건국의 그 기슭에서 너는 보았으리
우리 어머니 그 몸으로
보통강개수공사장과
풍년도 내는 봄들판에서
이 나라 첫 대학의 건설장에서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또 보았으리
땅크병들
비행사들속에서
포병들의 사격훈련장에서
첫 군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장병들과 함께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

왜놈세상에서
어혈 든 병을 고치고
인민들이 무병장수를 누리라고
적십자병원자리도 잡아 주시고
건설장에서 흠집도 지지더니
자신의 아픔은 인민이 알세라
왜 그러도 깊이 묻어 두시였던가

지니신 뜻 백두산정에 담고 남기신 업적 천으로 또 만으로도 헤아릴수 없건만 언제나 자신을 평민으로 자처하신 어머니이시였다. 바로 그러한분이기 위대한 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세월의 흐름속에서 태양의 빛발로 더더욱 찬연히 빛나는것이다.

시인들이 사색깊이 회고한 군건설력사에 남기신 어머니의 업적만을 더듬어 보아도 그것은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펼쳐 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자랑찬 로정우에 깊은 뜻을 얹어 주면서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영생을 바라는 전인민적감정의 열렬한 토로에서도 위인형상생리를 뚜렷이 살려 주었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에서는 작품의 결속부분에서 웅근 하나의 단락을 설정하여 어머니의 영생을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어머니께서 혁명의 최고사령부에, 붉은기 날리는 당중앙에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수천만 인민들속에, 우리들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확신에 넘쳐 노래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수령에 대한 충성의 초석을 쌓으시였으며 새 조국건설의 나날 아버지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조국의 방방곡곡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어머니, 한생토록 오로지 인민을 위해 바칠수 있는 모든것을 묵묵히 바치신 어머니...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오늘 가는곳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판과 함께 어머니의 현지말씀판을 정중히 건립하며 사적건물들을 소중히 보존하고 혁명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삼고 있다.

사상과 념원이 영원하고 이룩한 업적이 영원하기에 어머니의 위인상도 영원한것이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는 바로 그것을 열렬히 노래하였다.

때문에 이 시는 위인형상생리의 형상적요구를 무리없이 살린 성과작의 하나로 될수 있었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인상을 열렬히 칭송하면서도 위인의 사적자료에 파묻히지 않고 서정적주인공-시인의 체험세계를 뚜렷이 살림으로써 서정의 문학으로서의 장시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장시는 마땅히 서정적주인공-시인의 주정선을 일관하게 살려야 하며 시인의 얼굴이 뚜렷한 표상으로 안겨 와야 한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는 이 형상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였다.

눈부신 9월의 해빛속에
더더욱 그리워
못 견디게 그리워
우리 삼가 꽃을 안고
여기 주작봉마루에 오르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는 빨찌산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을 맞으며 꽃을 안고 주작봉마루에 오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숭엄한 감정을 터치고 있다. 여기서는 누구나 체험하는 공민적정서여사 아직은 시인의 미학적주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서정적주인공-시인은 다음 단락에서 그리움에 젖은 꽃송이를 삼가 놓으려니 선뜻 놓을수 없는 까닭을 터치는것으로 어머니에 대한 경건한 자세, 고개치는 심중의 열도를 높이고 있다.

항일의 격전장과 새 조국건설의 초행길우에 찍어 가신 어머니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더듬고 난 서정적주인공-시인은 마침내 《우리 수령님을 길이 받드는 길에/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언제나 어머니를 모시고 따를/뜨거운 마음을 담아》 한생의 맹세가 담긴 심장의 붉고붉은 꽃을 어머니앞에 삼가 놓아 드리는것이다.

이처럼 장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체험세계가 서정구조의 기본흐름을 이루고 있다. 어머니의 생애에 실재하였던 생활사실들과 그에 대한 주정은 다 이 기본주정선에 복종되었다.

서정적주인공-시인의 주정세계는 련이나 서정적 단락의 첫 머리에 제시된 《어려와라》, 《말해다오 세월이여》, 《잊을수 없어라》, 《다는 몰랐구나》, 《세월이여/... 너는 보았으리》, 《가슴 뜨거워라》 등등의 호소적이며 격조 높은 시구들에 의해서도 한층 강조되고 있다.

장시의 구절구절에서는 인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서른두살의 너무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에 대한 젊은 녀성시인의 절통한 심중토로가 가슴 뜨거이 안겨온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인민모두가 체험하는 전형적인 시대감정으로서 장시의 형상세계를 정서적으로 담보하여 준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는 사적자료를 다루는데서도 실재한 력사적사실 그 자체를 사건적련관을 지어 줌이 없이 주정화하는 한편 그것이 서정토로의 생활바탕으로 되게 함으로써 장시 고유의 서정세계를 잘 살려 주었다.

장시에서는 서사시에서처럼 실재한 주요 력사적 사실들을 분석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어머니께 드린 털실세부에 진지한 서정적분석을 가한 다음 병풍보자기천으로 옷을 지어 입으신 사실에 일정한 지면을 제공하였을뿐 나머지 사실들은 거의나 점철적수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리하여 시인들은 위인의 사적자료에 파묻힐수 있는 폐단을 막고 주정에 기초한 작품의 서정성을 한껏 살릴수 있었다.

보는바와 같이 장시 《인민의 어머니》는 위인칭송의 장시창작에서 나서는 형상적요구를 무리없이 구현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녀성시인들이 창작한 장시 《인민의 어머니》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작가들이 주체적문제사상의 요구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을 형상할 때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김일성상》 계관인인 시인 정문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시문학발전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시인들중의 한사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께서는 문학작품은 그 어느 것이나 작가의 세계관, 창작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으므로 문학운동과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작가에 대한 연구와 떼어 놓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심으로써 최근 우리 문학발전에 흔적을 남긴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

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얼마전 개성시 작가동맹작가들이 시인 정문향의 유가족들과 련계밑에 그의 유고수기 한편을 발굴하였다.

시인 정문향의 창작활동과 작품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가 25년전에 남긴 수기 《한없는 행복을 안고》를 한자의 수정가필도 없이 그대로 편집한다.

수기

한없는 행복을 안고

정문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가에 대하여서는 동무들이 이미 생활을 통하여 많이 체험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계속 체험하게 될것입니다.

당은 언제나 동무들을 믿고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한 혁명대오에서 투쟁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갈것입니다.》

우리 창작가들의 모든 생활과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독창적인 문제들을 밝혀 주신 이 강령적인 말씀과 창작가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은정을 생각할때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조선작가들의 한 없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한다.

더우기 나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작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깊은 감회와 뜨거운 감격에 목메이게 된다. 말하자면 자기의 청년시기를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갇그리 않고 살아왔으며 갖춰야 할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채 해방후 비로소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다운 인간으로, 영예로운 로동계급의 작가로 자라 났으나 아직도 그 은덕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 못한채 나이를 먹어 오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깊이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과 귀중한 말씀을 앞에 놓고 나는 가슴 뜨겁게 다시금 되새기며 그이의 한 없는 은정속에서 살고 있는 감격이 나날들을 돌이켜 본다.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작가에게 영광스럽게도 4.15문학창작단의 한 성원으로서 영예로운 파업을 맡겨 주신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영광인데 한 일

없는 나는 너무도 헤아릴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배려를 받고있다.

1971년부터 나는 그이를 함께 모신 여러 차례의 회의들과 예술관람에 참가하여 우리 문학예술인들과 문예부문에 주신 강령적인 말씀들을 몸가끼에서 접하게 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을뿐만아니라 그이께서 보내주신 여러차례의 선물까지 받는 더없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나의 생활수첩에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다음과 같은 날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1973년 1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께서 보내주신 신년축하장과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만경대고향집 립체사진을 전달 받음

1973년 4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받음

1974년 1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신년축하장과 달력을 전달받음

1975년 1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신년축하장과 선물을 전달받음

이 거듭되는 뜨거운 배려를 접할때마다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목매여 나는 나 자신뿐아니라 나의 일가친척, 그리고 우리 조선작가들의 더없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일념으로 불타며 보람찬 정치적성장과정속에서 모든 나날들을 지내며 살았다.

1973년 8월 13일이였다.

4.15문학창작단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전달모임이 있기에 곧 평양에 나오라는 소식을 우리는 우산장창작실에서 받았다.

지방작가의 한 사람인 나에게 있어서는 이 집단적인 행사에 참가하게 된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날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를 비롯한 많은 선물들을 개별적으로 수여받는 성원의 한사람이 되어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던 크나큰 영광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가족들이 함께 참가할수 없는 형편까지 고려하여 이날 당조직에서는 평양의 군부대에 복무하고있는 나의 아들까지 불러주어 한자리에서 이 영광을 받게 되었으니 나에게 있어서나 우리 일가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하나의 정치적생명으로 결합된 인간의 사랑은 그 어떤 육체적인 애정이나 육체적생명으로서는 비할수 없는 높은 료리와 숭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날처럼 똑똑히 느낀 때는 없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미더움과 떳떳한 자랑과 긍지도 이때처럼 느낀 때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이날 밤 한잠도 잠들수 없었다. 무시로 맞고 보내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단순한 시간이 아닌것으로 생각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귀중한 시계 이것은 나에게 대를 물려 가며 전하여 야 할 영광의 징표일뿐만아니라 가리키는 매 시각과 분초들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나의 모든 생각을 이끌었고 나의 정치적성장과정을 비쳐 주는 하나의 징표로 되었던 것이다.

나는 어느 순간이고 이 소중한 시계를 들여다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헤아릴수 없는 그 사랑과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되며 나의 생활은 스스로 돌이켜 보는 시각으로도 되는 것이다.

어찌 나 혼자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수 있랴!

온 식구가 TV 앞에 모여 앉아 소중한 선물의 고마움을 두고 언제나 되뇌이며 휴식의 한때를 보낼 때마다 철없는 어린 아이까지도 그 사랑에 목매여 보답할 충성을 두고 맹세할 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는 우리 가정은 얼마나 큰 행복감에 넘쳐 있는가를 나는 늘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나에게 차례진 이 영광과 행복이 결코 나 혼자에게만 돌려 진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전체 작가들과 집단에 돌려 주시는 한없는 사랑이며 영원한 믿음을 표시하여 주시는 해빛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나에게 차례진 그 영광과 행복을 바로 수천 수억만 갈래로 펼쳐지는 한량 없는 해빛의 그 한줄기가 나에게 닿아 진것이라고 생각한다.

1973년 가을에 있는 일이었다.

지방에 내려와 겨울나이차비를 서둘던 어느날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방창작가들의 겨울나이차비를 심려하시어 지방행정위원회에서 잘 돌봐주라는 말씀이 계셨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다.

이때 우리는 지난해 9월 6일 회의에서 창작가들의 생활문제, 더우기 지방작가들의 형편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들이 다시금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수 없었다.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작가로 생활하면서도 지금 까지 우리 일군들 그 누가 지방작가들의 생활에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깊은 관심을 돌린 일들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런데 참으로 헤아릴수 없는 나라의 그 모든 일과 바쁘신 시간속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방의 이름없는 창작가들의 겨울나이차비까지 심려하시어 말씀하셨다니 우리 어찌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랴

이리하여 생활을 조직할줄 모르며 무관심하기까지 하여 살림살이 초차 변변치 못하던 우리는 그 해와 같이 남새가 잘 되지 않아 지방조건에서도 그 어느해에도 받아 보지 못한 훌륭한 김장감들을 받게 되었고 제때에 석탄을 비롯한 모든 겨울나이차비를 갖추었으니 누구나 한사람같이 지난 때의 생활을 옛날처럼 외우며 그 은정에 목매는것을 어찌 한 때의 겨울나이차비에 대한 배려로만 생각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깊이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 창작가들을 언제나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며 당의 협조자로서의 우리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 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높으신 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신 오직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만이 베푸실수 있는 크나큰 사랑과 높은 정치적인입임을 우리는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지 않을수 없다.

나는 언제나 이러한 영광과 행복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조선작가들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한다.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속 바쳐 일하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살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을 생각하며 이 영광의 길에서 나의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다하여 충성다할 일념으로 언제나 불타고 있다.

주체64(1975)년 12월 5일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사는 항일혁명투쟁
공로자 김학석은 열다섯살 나던 해인 주체
26(1937)년 단천 오지 송파리 도덕사에서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뵙고 혁명
의 첫 걸음마를 떼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
을 위해 것처럼 분망하신속에서도 주체89(2000)년
2월 24일 그가 어머님을 그리며 쓴 시 《12월의 추
억》을 더듬어보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다.

아래에 그 시를 소개한다.

편집부

12 월의 추억

김학석

나이 들어 인생이 저물어 지면
추억은 스스로 깊어 지는것인가
내 12 월의 북변땅 눈길을 걸으며
뜨거이 마음속에 그려 보는 김정숙동지

추억의 모습은 하얀 당목저고리
낱은 정 열근이면 기른 정 백근이라고
혁명가로 키워 주신 그 은정 그 사랑
못 잊어 쓸어 보며 추억하는 긴 웃고름

초연에 그을은 녀장군의 군복은
백두산 귀틀집에 걸어 두고 오셨던가
소박하고 정갈한 조선옷을 입으시고
단천오지 송파리 도덕사에 오신 항일의 녀투사

반일의 폭동자 나어린 조직의 성원이라고
지고 들고 뵈오러 온 흰쌀이며 석유초롱
받아주시며
저고리고름 접으시며 땀을 닦아 주시던
다심하신 손길이어 60 년전 그 여름 삼복더위여

나라안 깊이깊이 넘으신 사선은 얼마시던가
혁명의 붉은 명맥 이 땅에 이어 주시며
짓밟힌 나라를 수령님 뜻으로 맥동치게 하시던 날
내 그 품에서 혁명의 첫 걸음 떼며 안겨 울던
추억이어

얼마나 뜨거우시였던가 심어 주신 불씨는
얼마나 드립 없으시였던가 승리의 신심은
그리고 얼마나 열렬하시였던가 수령님 웅위정신은

그리고 또 얼마나 준엄하시였던가 적에 대한 죄는

동지는 불길이지였다 누리를 태우는
동지는 빗발이지였다 어둠을 가시는
스물나이 그때 벌써 위대한 나라의 어머니
인민을 이끌어 수령님 두리에 묶어 세우신 혁명의
어머니

오 추억은 얼마나 오랜 세월 가슴에 고여
항일의 언덕을 넘게 하고
전화의 불바다를 헤치게 하며
오늘의 강성대국 문전에 이르게 했던가

투쟁으로 영생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인민은 걸었다 20 세기 언덕을
웅위의 기치로 불멸하실 어머님 모시고
인민은 가리라 새 세기의 큰 길을

세월은 멀리 흘러 인생의 황혼기는 집어 저도
나를 불러 애끓던 그날에 세워주는 추억이어
어머님의 긴 웃고름 그 언제나 앞에 날려
백발에 늙지 않고 다시 찾은 청춘이어

내 오늘 장군님 받드는 선두행렬
투사들의 대오에서 젊어 진 충신으로
어머님 탄생일을 웅위절로 맞으며
12 월의 북변땅 눈길을
추억에 잠겨 끝 없이 끝 없이 걸노라

(주체 89. 2. 24)

푸른 사랑

양의선

1

내가 혼자서 머리속에 그려보던 사람과는 판판 달랐다. 숲의 영웅이나 자기가 가꾼 숲을 닮아서 무게 있고 말이 적고 침착한 사람이라니 생각했는데 만나는 첫 순간에 나의 인상을 왈칵 뒤집에 놓았다.

그는 나무우에서 손도끼를 쥔채 내 앞에 쿵-하고 소리가 나게 뛰어 내렸다. 첫눈에 놀라울 정도로 키가 크고 팔이 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험클어진 머리칼에는 마른 솔잎과 잔가지들이 엉켜붙었고 길쭉한 얼굴엔 굵힌 자리가 보였다. 침착은커녕 외모도 그렇고 일손도 거칠고 사납다는게 알렸다. 첫 인사 또한 거칠었다.

《너작가라고 해서 나이 지숙한 부인인줄 알았는데 새파란 처녀동무군. 머루나 다래철도 아닌데 하필이며 취재대상을 이런데 골랐소?》

첫 인사가 너무 어이 없어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는 한술 더 떴다.

《동무는 작가이기전에 꼭 무용수 같소. 직업을 잘못 고르지 않았소?》

취재를 다니다가 이런 무안을 당해보진 처음이었다. 이렇다할 작품도 없고 나이가 어린 탓에 다정하고 친절하듯 웃음속에 기특하게 여기는 눈길들을 받아보긴 했지만... 그것마저 모욕으로 여기던 내가 이런 로골적인 조롱기가 섞인 말을 레절속에 묵새길수는 없었다.

《저의 작가적인 풍격을 믿고 안민고는 자유이니 만큼 영웅동지의 마음이 내키는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리다고 해서 무용수요 뭐요 하는 인격에 손상을 주는 말쑤를 망탕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눈에 들지 않아도 어찌겠습니까? 이왕 취재를 왔으니 레절 있게 대해 주세요.》 하고 나는 그를 곧바로 쳐다보며 그루 박아 말했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 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작가동무의 말이 옳소. 취재를 그닥 달가와 하지 않다니니 레절없이 대했소.》

《일이 바빠서 그러시는가요? 영웅동지의 시간을 될수록 적게 빼앗는 방향에서 노력해 보겠어요.》

그는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아니, 지난 날을 이야기하자니 그리웠던 많은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기때문이지요.》 하고 그는 뜻밖에도 감회 깊은 표정을 짓고 조용히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명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선뜻 좀 나보이는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얼굴에 아득히 흘러간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들은 좋은 일이다. 그 추억이 어떤것인지 모르나 이처럼 사람을 부드럽고 감회깊게 만드는 추억이라면 분명 아름답고 귀중한 추억일것이다.

《안됐소. 귀한 평양손님을 놓고 자기 생각만 하다나니... 해도 기울었는데 우리 집에 갑시다.》

목소리도 퍽 부드러웠다. 나는 그 부드러움에 끌려 뒤를 따라 섰다.

걸음발은 왜 저리도 큰가. 내디디는 보폭이 나의 것보다 배는 큰데다가 거침없이 성큼성큼 옮기니 따라 낼 재간이 없었다. 내가 떨어지면 그는 서서 기다렸다.길숙한 골짜기 컴컴한 숲을 등지고 기다란 팔을 늘어 뜨린채 나를 지켜 보는 모양이 태고적의 산사람을 연상시켰다. 분발하기 잘하는 나의 어리석은 환각은 자신을 포획물의 처지에 놓고 집이 아니라 그 어떤 깊숙한 동굴로 유인돼가는게 아닌가 하는데까지 미쳤다. 환각의 조정자는 그만이 아니었다. 숲이 너무도 울창하고 험악하였다. 아름답리나무가 뻗뻗이 들어찬 수림속은 벌써 땅거미가 깃들었다. 소나무, 이팝나무, 잣나무들은 한창 푸르싱싱하던 수려한 자태들을 움썹거리는 바늘무지모양의 엄엄한 모습으로 바꾸었고 그앞에 선 백양과 단풍의 희고 빨간 잎새들이 부나비무리처럼 해뜩거렸다. 푸른 이끼를 펼친 벼랑길을 감돌아 흐르는 개울줄기만이 아직 하늘빛을 담고 반짝거릴뿐 숲은 수억의 엽록소흡반으로 마지막 노을빛을 쟁그리 빨아 들이고 있었다. 그 장엄하고도 걸탐스러운 수림의 내장속으로 빨려 들어 가는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사지가 오싹하니 가드라드는듯한 공포감을 느꼈다.

나는 늘쌍 자신속에 두개의 상반되는 《마음》을 나란히 자태우느라 애써 왔다. 그 하나는 별치 않은 인상에도 쉬이 사로잡히곤 하는 감상적인 《나》였고 다른 하나는 자기와 다른 대상들의 숨은 움직임을 밝고 싸늘한 눈으로 볼줄 아는 리성적인 《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거창한 수림의 엄엄한 모습에 눌리워 이 균형은 산산이 깨져 달아 났다.

한낮의 열정적인 태양이 창공을 가득 채웠던 무더위와 광채를 말끔히 들이키고 드러누운 숲은 자기의 써늘한 숨결로 나의 연연한 몸을 감싸 안고 자기의 품속에 끌어 들이였다. 나는 공포와 알지 못할 유혹에 이끌려 가슴을 옥죄이며 숲속을 걸어 들어갔다. 숲의 숨결은 걸음걸음 조심히 옮기는 내 발

밑에서도 뿔겨 올라 왔다. 목은 나무잎새들이 주근 주근 우무러 들 때마다 썩고 발효된 들크무례한 잎냄새가 곧장 머리속에 스며 들어와 나를 술취한 사람처럼 만들었다. 이런 상태에서 걸자니 자연 자릿길을 더듬는 나의 흰 구두고승이가 어릿어릿하지 않을수 없었다. 도시의 포석우에서 익힌 끝은 자세하며 도고한 걸음걸이를 다 형클어뜨린 숨은 저녁노을의 마지막 잔광으로 음침한 미소를 그리며 나의 물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안내자 영웅은 개울 건너편에서 기다란 손을 내밀고 숲의 목소리로 응얼거렸다.

《손을 잡소. 징검돌을 짚는 순서가 틀렸구만. 왼발부터 내짚어야 하는걸.》 그리고는 첨버덩 물한가운데 뛰어들어 휘청거리는 나의 몸을 바로잡아 건너여 준다.

《산골길에 익자면 몇해가 걸리오. 나도 처음 이 골짜기에 들어올 땐 동무 같았소.》

나는 그의 말이 반가웠다. 대자연의 압박감에서 벗어 나려는 생각으로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느라 서둘러 물었다.

《여기 태생이 아니신가요?》

《평양에서 나서 자랐지.》 그는 흰이를 드러내며 병곳 웃었다. 《한 녀자한테 홀리워 여기 와서 반백이 됐소.》

홀리우다니?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 보았다. 신뎃을 넘겼을 지금도 저렇게 건장하니 젊었을 때는 얼마나 크고 힘 있고 역세였겠는가. 저런 사나이를 수도에서 끌어내려 숲사람으로 만든 녀자는 과연 어떤 녀성일까? 녀성본능의 즐거움과 함께 호기심이 부쩍 동한 나는 다우쳐 물었다.

《부인이 무척 아름다웠던가 보지요?》

《급긴... 요정과 같았소.》

직통배기였다. 그 말투에 끌려 나도 허물없이 물었다.

《어떻게 홀리워 여기 왔는지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리 작가래도 젊은 녀자가 거의 아버지벌되는 남자한테 련애담부터 캐묻는건 좀 버릇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덧 나는 그의 소탈하고 진실한 성격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허허... 취재가 시작됐군.》 하고 그는 너그럽게 웃고는 내 걸음에 맞추어 어정어정 발을 옮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제대를 앞두고 분대원들과 함께 마지막 훈련에 참가했던 광용팔분대장은 뜻밖에 산불과 맞닥 들었다. 산불은 내가에서 시작되어 잔디와 잡관목을 태우며 수림이 울창한 등대기로 치달아 올랐다. 당황해 난 전사들은 옷을 벗어 후려치고 공병삽으로 흙을 떠 휘뿌렸다. 철갑모에 개울물을 떠 담아 끼었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넓은 면적을 거덜낸 불길은 와지작 소릴 내며 기세 좋게 숲 가까이로 번져 갔다. 조금만 더 올려 붙으면 수천정보의 산관이 들장나는 판이다. 《아- 아!-》 가슴이 터지는것 같은 소래기를 내지르던 용팔은 벼랑에서 개울물에 뛰어들었다. 물속에 두어번 덩굴어 몸을 흠뻑 적신 다음 불길앞에 달려가 몸을 눕혔다. 그리고는 장신의 체구를 로라처럼 내리 굴리었다. 불길은 그의 몸 밑에서 뿌직뿌직 소리를 내며 그의 몸길이만큼 꺼먼 자리로 꺼졌다. 철갑모나 보병삽보다 효과가 컸다.

《몸을 적서 굴리라!-》 그는 또다시 개울가로 달려 가며 소리를 질렀다.

모두들 분대장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병사들은 모두 젖은 육탄이 되어 불길속을 내리 굴렀다.

불의 전진을 저지시켰다.

병사들이 육탄이 되어 위험한 고비를 넘긴 탓에 불은 수림에 닿기 전에 달려 온 인민들과 함께 마저 끌수 있었다.

숲은 구원되었다. 그러나 육탄의 선구자 광용팔 분대장이 대오에 없었다. 그는 벼랑밑 개울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가늠없이 내리 굴다가 벼랑턱을 날아내려 그만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는 통에 정신을 잃었던것이다.

그는 여기 산관에서 100여리 남짓한 도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다.

회복은 빨랐다. 그러나 대퇴골절로 인해서 약간 저는 다리는 어쩔수 없이 영예군인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귀중한 부모형제들과 벗들, 모교가 가다리는 평양, 그림고 그림던 교향은 그를 반겨 맞아줄것이다. 타고 난 성미 그대로 떠들석하게 웃으며 간호원들과 룡담을 했고 별로 곱지 않은 쇠창으로 노래를 불러 대어 병원의 질서를 휘저어 놓기도 했다.

그리던 어느날 스물안팎의 낮모를 처녀가 면회를 왔다. 가무잡잡한 얼굴에 머루알같이 또릿또릿한 눈알을 굴리며 처녀는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속에서 산불을 몸으로 끈 《영웅아저씨》를 찾았다.

《영웅은 무슨 놈의 영웅, 하지만 네가 찾는 사람은 나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오빠였구만요!》 처녀는 반가운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안고 온 커다란 바구니를 내려 놓고 그의 팔을 스스럼없이 부여잡았다. 《오빠가 불을 끈 다래골산림보호원(감독원)의 딸 수림이에요.》

《아니, 백리도 넘는 그 먼데서 왔단 말이냐?》 용팔은 놀라서 물었다.

《보고 싶었어요.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자면 천리인들 마다하겠나요.》

그 대답이 너무나 천진스러워 모두들 통쾌하게 웃었다.

《여보게, 용팔동무, 너동생이 없다지, 여기서 제격 동생으로 삼게.》

《동생은 무슨 동생, 제대되는 길에 제격 께차고 가게나.》

처녀가 휘뿌린 천진한 모습과 행동거지에 기분들이 뜬 사람들은 허물없이 롱담들을 해댔다.

《왜들 웃어요? 제가 뭐 못할 말을 했나요? 저한테도 오빠가 없어요. 이런 오빠라면...》

《그래 그래. 마음에 든단 말이지.》

《꼭 마음에 들어요!》

또다시 웃음이 터져 올랐다. 소박하고 진실한 것이 천진함과 어울려 저 처녀의 모습에서 밝은 빛으로 뿜겨 저 나와 입원실 분위기를 대번에 뒤바꿔 놓았다.

《네가 나 같은걸 오빠루...잘 봐라. 나는 킁다리에 못 생기기에 이데 없는 사나이야.》

용팔은 우정 두눈을 부라려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산도 험하구 사납게 생겼어요. 하지만 갖가지 나무랑 꽃이랑 자래워요.》하고 처녀는 자기 주견을 멋지게 설명했다.

《허, 임자를 산에 비기구 자기는 꽃과 나무에 비겨 자래워 주길 바라다네. 뜻이 깊은 말일세.》하고 맞은편 침대의 나이 지숙한 환자가 용팔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눈을 슬쩍거렸다.

이때 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병원안팎이 갑자기 떠들썩했다. 소리치며 소란스럽게 뛰는 소리가 현관을 거쳐 복도로 번져왔다. 입원실 사람들도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두발로 구두뒤축 구르는듯한 소리가 가가와 오고 간호원이며 환자들의 제지는 웨침소리와 호들갑스러운 웃음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정숙을 요구하는 병원에 무슨 기운들이 뻗쳤기에 이런 소동인가? 문결의 환자가 밖을 살피려고 문을 열다가 침대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문을 들이 받으며 뿔 돋힌 산짐승 한마리가 호실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사슴이다!》사람들은 환성을 내질렀다.

병원안팎이 복닥소동을 일으킬만도 했다. 병원이 생긴 이래 사슴이 뛰어들기는 처음일제다. 복도를 달려 온 간호원, 의사, 환자들이 문이 미여지게 밀려 들어 야단들인데 어린 사슴은 뜻밖에도 처녀의 곁에 오더니 대번에 태연해졌다.

《바보! 아이참, 이걸 어찌나!》하고 처녀는 사슴의 목덜미를 찰싹 때리며 부르짖었다. 《끝내 여기까지 따라 와 망신시키다니!》

얼어 맞고도 어린 사슴은 태연스레 목을 뻗쳐 주둥이를 바구니에 가져다 대고 코를 벌름거렸다.

《이건 오빠거야!》 주인은 또 한번 야무지게 때렸지만 어린 짐승은 보호자의 얼굴을 신뢰의 눈길로 올려다 볼뿐이었다.

희한한 광경앞에 사람들은 눈이 둥그레 졌다.

《용팔동무, 주의하게. 숲의 요정이 자네앞에 나타나 오빠오빠하고 있네.》

《요정이 뭐나요?》하고 처녀는 물었다.

《산의령기를 타고 나 사람을 홀리우는 고운 처녀.》

처녀는 그 해석이 그닥 싫지 않은지 방싯 웃으며 바구니를 들쳤다.

산딸기, 산머루, 산다래... 그리고 오지단지 하나... 방안은 달고 청신한 향기로 가득 찼다.

《이건 산딸이에요.》하고 단지에 주를 달며 처녀는 모두에게 권했다. 《어서들 드세요.》

처녀가 문밖의 사람들에게까지 권하려 들자 그제야 구경꾼들은 웃으며 물러갔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처녀가 안고 온 즐거움은 생활속에서 흔히 종종 맛볼수 있는 평범하고 레사로운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다.

처녀는 입원실에 푸른 숲의 정기와 숨결을 가져왔다. 산천의 맑은 공기와 차고 정갈한 썸물, 달디단 산열매와 락엽의 뽀은 맛까지를 그 어떤 2차가 공이며 런마도 없이 자연이 준 그대로를 안고 왔다. 그것이 생기발랄한 얼굴빛과 까만 눈동자, 윤기 도는 입술에서, 탄력이 넘쳐나는 몸매와 목소리, 웃음과 움직임에서 류다른 빛과 향기로 뿜겨 나와 호실을 가득 채웠다.

바구니에 가득 채워 온 열매도 진품이지만 그의 마음 또한 《진품》이었다. 아름다움이라면 순결한 아름다움, 진실과 소박성이라면 청초한 진실, 천진한란만한 소박성이었다. 그 어떤 면회자도 이 같은 선물을 가져 온적은 없었다.

두손 가득 안겨 준 산열매를 받아안고 용팔은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고맙다, 처녀야!》

《고맙다니요?》하고 처녀는 눈이 둥그래서 반문했다. 《고맙단 말은 제가 해야 돼요. 오빠가 아니었다라면 정말 어쩔번 했나야. 이것도 오빠가 구원해 준 숲이 보내는 인사열매예요.》

《용팔동무, 축하하네. 자네가 부럽구만. 나도 이런 면회라면 불 붙는 산판에 열번이라도 뛰어들어 덩굴겠네.》

모두들 옆에서 덧뜨는 통에 용팔은 얼굴이 지지 벌개졌다. 정말 그랬다. 그어떤 평가나 표창보다도 더 값 있는 선물, 이런 순간을 위해서라면 또 다시 열백번 뛰어들어도 후회가 없을 그런 기쁨을 처녀는 가져 왔다.

아무리 훌륭한것이라고 해도 마음속 저울을 거쳐 나뉘어 질 때는 그 선행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법이다. 처녀한테는 애당초 그런 계산법이 없었다. 아니, 아름다움과 진실, 사랑과 순결의 푸른 향기를 팔팔 뛰는 청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솟구치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저울질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것이다.

한생에 한두번밖에 맞닿을수 없는 그런 희귀한 천품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주억거리고 있었다.

산딸기, 산다래, 산머루를 상두대마다에 무독무독 쌓아 놓고 나서 처녀는 말했다.

《의사선생님들한테 두 줌 맛 보라고 드리고 오겠어요.》

처녀가 자리를 뜨자마자 맞은편 침대의 나이 많은 환자가 용팔의 침대로 옮겨 와 손까지 잡으며 말했다.

《용팔동무, 이번 기회에 저 처녀를 데리고 제대되게. 평양에서도 저만한 처녀를 고르기 힘들거네.》

용팔은 펄쩍 뛰었다.

《그런 통담은 마십시오. 순진한 처녀를 놓고말입니다.》

《통담이 아닐세.》 상대방은 계속했다. 《연분일세. 이 늙은것의 예감이 틀리지 않으니 명심해 듣게. 그마음을 차버리거나 외면하는것도 인륜에 어긋나는 일일세. 처녀가 나이 어려 아직 이성의 눈은 채 뜨지 못했네만 인차 깨우치게 될걸세. 그때 가선 자네만을 생각할걸세. 성미가 그렇게 돼먹은 처녀야. 만약 후날 서로 길이 어긋나면 어찌겠나. 둘 다 불행이고 슬픔이지. 그걸 미리 막자고 이 늙은게 발벗고 나서는데. 여기 입원실동무들도 같은 생각일거요. 안 그렇소, 동무들?》

《좋은 생각이요.》

《용팔동무, 결심을 하오.》

《나이든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은 처녀를 희롱하는것으로 됩니다.》

《진정이 희롱으로 되는법은 없소. 문제는 동무의 마음이요.》

용팔은 생각이 복잡했다. 사실 그의 마음은 온통 처녀한테 쏠리고 있었다. 누구한테나 진실과 순결, 청신한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지향과 욕망이 있는 법이다. 그 사실을 타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너무 어렵고 추동하는 뜻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런 일로 하여 후날 처녀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용팔의 결심을 막고 있었다.

《용팔동무는 가만 있소. 우리가 다 처리할테니.》

나이 많은 환자는 처녀가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듯 오금을 박고 자기 침대로 물러 앉아 문쪽을 바라보았다.

처녀는 눈가장자리가 축축히 젖어 돌아 왔다.

《의사선생님한테서 오빠의 부서진 뼈를 찍은 사진을 봤어요. 선생님은 뼈가 잘 붙어 인차 날겨라고 하지만 얼마나 아팠겠나요. 지금도 아프지요. 오빠?》

《아니, 조금도.》 용팔은 머리를 흔들었다. 《수립동무가 이렇게 면회를 와주구 가져온 산열매까지 먹고 나니 당장 날것만 같애.》

《그럼 퇴원할 때는 제가 평양까지 모셔다 드리겠어요.》

이때다 하고 늙은이가 끼여 들었다.

《수립동무는 아까 용팔동무를 오빠로 삼고 싶다고 했지. 그마음이 진정이겠지?》

처녀는 어찌면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느냐는듯 노여운 눈길로 늙은이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진정이예요.》

《그럼 오빠보다 더 가까운 사람으로 되는것도 마다않겠지. 약속하나?》

《약속해요.》 처녀는 천진하게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답했다.

《자, 그럼 인젠 용팔동무 차례일세. 동무도 약속하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앞에 용팔은 어안이 병병해 굳어 졌다. 처음엔 처녀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대화의 리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얼마간 모두숨을 내쉴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가 집에 돌아 가면 부모들한테 병원에서 벌어진 사실들을 자초지종 얘기할것이다. 부모들이 어떻게 나울것인가. 어린 처녀를 놓고 놀리고 희롱했다고 노발대발하지 않겠는가. 처녀자신은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그의 등골과 이마에 땀을 흐르게 했다.

그러나 대답은 피할수 없었다. 용팔은 처녀를 쳐다보았다. 처녀는 사슴의 목을 그러안고 믿음과 기대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후날에 밀려올수 있는 밀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믿음에 찬 맑은 눈동자를 배반해야 했고 지금의 저 눈길을 위해선 그 밀물을 용감히 맞받아 나가야 했다. 용팔은 처녀를 믿고 싶었다. 저 맑은 눈동자가 변함 없으리라는 걸 믿고 싶었다. 그는 진실앞에 용감한 사나이로 나서리라 결심했다.

《나도 약속합니다!》

처녀는 그 약속을 천진한 기쁨으로 받아 안고 돌아 갔다.

《오빠, 3일만에 또 와요. 가구 오구 하루 준비하구... 삼일이면 돼요.》

용팔은 긴장과 흥분속에 기다렸다. 처녀가 어떤 대답을 안고 올것인가. 불안과 기대가 뒤채기는 속에 3일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사흘, 나흘이 지나 닷새가 돼도 오지 않았다. 후회가 막심했다.

오빠로 끝났더라면 다시 몇번 더 볼수라도 있지 않았겠는가. 오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한마디의 보람때문에 모든것을 다 잃었다. 막말로 계도구력도 다 놓친 셈이다. 남은것이라면 자기가 진실앞에 비굴하지 않았다는 위안만이 쓰디쓴 상실감과 함께 남았을뿐이었다.

병원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다. 우울해 진 자신의 물골을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주섬주섬 배낭을 꾸려 놓고 퇴원을 요구했다. 담당의사와 통하지 않아 원장방 거래를 하느라 한주일이 지나갔다.

(제길, 원장이라는데 녀적다리뻘밖에 모르는데 아니야. 남이 가슴 답답해 하는줄은 모르구...) 이렇게 툭툭거리며 돌아 와 보니 입원실에 처녀가 와 기다리고 있었다.

용팔은 멈춤했다. 반갑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했다. 눈앞에 처녀가 서 있었지만 인젠 그 하나의 존재가 아니었다. 한주일이나 늦어 나타난게 우연한 일이겠는가. 부모들과 얘기가 오고갔을것이다. 열이면 아홉 부모들이 대단히 노여워 했을것이다. 처녀도 그 어떤 수치감을 안고 마지막인사를 하러 왔으리라.

수림은 얼굴을 붉히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은 바빠서 못 오신다고... 퇴원하는 길에 집에 한번 들리래요.》

용팔은 당황해 났다.

《왜 들리라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면서...》

무슨 말인가. 분명 레절을 갖춰 점잖게 충고하자는 것일것이다.

용팔은 입술을 짹 깨물었다. 그는 수치앞에서도 비겁분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산불은 육탄이 되어 끌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인연으로 되어 자기가 지쳐 놓은 오늘의 불은 그저 감수해야 할 불이었다.

《내 가겠소.》

《역시 우리 군대가 다르군.》

지금껏 지켜 보기만 하던 입원실동무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입원실은 산딸기, 산머루, 산다래, 산꿀의 달디달고 신선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용팔은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뿐이었다.

2

《처녀는... 그때까지도 몰랐는가요?》 하고 나는 물었다.

《웬걸, 어머니한테서 다 들어 알았겠지. 그 한주일동안에 머루도 다래도 더 익고 처녀도 익었던군. 얼굴이 빨개져 있는걸 보니... 췌, 집에 다 왔소. 그때 얘길 하면 본인은 지금도 부끄러워서 어쩔줄 모른다오.》 하고 영웅은 대답했다.

이마뻘에 로송 몇가지를 드리운 절벽을 등지고 귀틀집 한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물이 경계를 이룬 틀안에는 차곡차곡 쌓아 놓은 드렁기더미가 있고 길쭉한 개구유엔 어미개와 강아지 세마리가 대가리를 조아리며 《공동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엔 쓴 물을 우리느라 담가 놓은 새하얀 도라지질 그릇과 올망졸망한 오지단지 몇개가 하반신을 물에 잠그고 있었다. 활짝 열여 제진 부엌문으로는 얼른 거리는 장작불빛에 웅단 같은 흰 김이 문문 피어나오고 있었다.

저녁녘의 산골정서가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 와 평양내기인 나는 숲입구에서 겁 먹었던 자신을 깡그리 잊고 이렇게 찬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이런데라면 한번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그날의 그 처녀, 이집의 안주인을 빨리 보고 싶었다. 세월이 펴 지나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 졌겠지만 그날의 순결을 오늘의 이 아늑한 가정의 온기로 바꾸어 안고 남편을 맞는 너인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여보, 평양에서 귀한 작가손님이 오셨소.》

영웅은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자를 보는 순간 나는 무뎠다. 첫 인사로 어떻게 부를지 몰라 당황했던것이다. 어머님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젊어 보였다. 감실감실한 얼굴에 까만 눈동자, 한오리도 희지 않고 윤기 도는 머리칼과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 나는 영웅의 이야기속에서 익힌 스무해전 그 시절의 처녀가 내앞에 서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아유, 새파란 처녀선생님이구만요!》 너인도 나를 향해 찬탄을 아끼지 않는 눈길을 보내주며 손목을 잡아 이끌었다. 《작가손님이라고 해서 나이 지숙한 남정어른으로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뵈니 녀성으로서 긍지감이 생겨요.》

친절에 이끌려 나도 이런 말로 첫 인사를 대신 할수 있었다.

《저런 저런...》 영웅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날 취재 왔다면서... 이숲에 들어오면 다 저사람한테 흘리운다니까. 작가선생, 주의하오. 내가 이미 요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저 녀자는 나를 이숲에 끌어다 머리 희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숲의 정기를 빨아 먹고 저렇게 새파래서 늙지도 않는다오.》

《원, 당신두!》 너인은 얼굴을 붉히며 나무람했다. 《뉘앞에서나 절 이렇게 놀리려만 든답니다. 어서 방안에 들어 가세요.》

이렇게 나무람과 손님접대가 교체되는 속에서도 남편을 돌보는 그의 손길은 멈춤이 없었다. 나를 방안에 이끌어다 앉히워 놓고는 날렵한 동작으로 담배와 성냥을 꺼내들고 나가 담배불까지 붙여 주었다. 남편이 맛 있게 두어모금 들이키는 사이에 늦대야에 더운물을 한가득 떠들고 나와 밭치에 놓고 그 앞에 꿇어 앉아 신발끈을 풀어 주고 덩굴잎과 까맣까맣한 씨가시들을 뜯어 가며 바지 가랭이까지 걸어 올려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내다보며 조금도 싫거나 먼구스럽게 생각되지않았다. 너무도 허물 없고 자연스러웠다. 그 어떤 굴종이나 편협은커녕 오히려 자애로운 어머니가 일터에서 돌아온 덩지 큰 아들을 다루듯 잔 가지들을 뜯어 주며 나무라는 투로 말하는것이었다.

《원 당신두, 오늘 또 금오폭에 가셨됐군요.》

《거길 돌보지 않는다고 투정할 땐 언제구...》

《이젠 그곳도 무성해 졌어요. 빠진 그루는 제가 째째이 심을테니 그 먼데는 삼가하세요.》

너인의 손길이 알릴듯 말듯 대퇴골부위를 쓸어 만지는걸보니 그 뜻을 알만하였다. 나는 가슴이 느닷없이 뜨거워 왔다. 부부간의 걱정과 애무가 어린 다정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눈길을 안쪽으로 돌렸다.

정면벽에 걸려 있는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깊숙한 수림속에 맑은 시내물이 흐르고 옅은 안개발속으로 황금빛 해살이 엿비스듬히 내비치는 유화였다. 얼핏 보면 한쪽의 수수한 풍경화에 지나지 않는듯 싶었다. 그러나 오래된 색 날은 액틀속에 깊숙한 공간을 차지하고 물기를 머금은 나무잎새들과 맑은 시내물의 류다른 색조화 그림이 이 모든것에 빛과 온기와 생명을 아낌없이 주며 정적속에 소리없이 웃고 있는듯한 해빛의 눈부신 광채가 나의 눈길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분명 맑은 해빛을 모체로 그리면서도 그 빛을 받고 있는 숲이며 시내물이며 안개에는 류다른 애수가 비껴 있었다.

《어머님의 미소》

나는 그림 밑에 새겨진 제명을 보고 놀랐다. 인물의 그림자도 없는 풍경화에 《어머님의 미소》라니? 혹시 어느 화가가 이 집에 왔다가 돌아 가신 여자 어머니를 추억해서 그려 주고 간 그림이 아닐까 하고 제 나름의 생각도 해보았다.

주인이 들어오자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귀중한 그림이구만요. 어머니가 돌아 가신지 오랜가요?》

《50년전이지...》

나는 놀랐다. 50년전이라니?... 그러니 이 제명의 뜻은 20년전 병원을 찾았던 그 수림의 어머니가 아니란 뜻인가. 나는 고개를 기웃하고 영웅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하던 얘기를 마저 해드려야겠군.》

그는 담배를 또 한대 붙여 물었다.

《녀자손님을 앞에 모셔 놓고 줄담배를 피워서 미안하오. 산판에서 하루종일 굶다 나니...》

산불때문이라. 이집의 생리는 모든게 숲을 중심에 놓고 세워 졌고 그 습관의 조종자는 안주인임이 분명했지만 이 거인 영웅세대주도 그걸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기본이야기는 뜻밖에도 5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되었다.

《<어머님의 미소>... 이 그림에는 감명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소. 퇴원하는 길에 집에 한번 들리라는 부탁을 받고 힘겹게 내디딘 걸음이나 충고도 노여움도 없었소. 선을 넘겼을 너인이 조용하면서도 성의껏 반갑게 맞아 주고 대접도 해주더군. 그<약속>전에 대한 얘기가 이젠가저젠가 긴장해서 기다렸지만 끝내 그 얘긴 없고 작가선생한테처럼 자연

스러운 기회에 이 그림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소.

...해방된 이듬해였소. 한 청년이 화판과 미술도구를 메고 여기를 찾았지. 그는 이 고장의 산림지기 딸을 사랑했다고. 그 청년은 조류학자의 아들이어서 평양에서 살았소. 한사람은 산림을, 한사람은 새들을... 직업적인 인연이라 할가 서로 친숙해져 여기로 자주 오가던 학자의 걸음이 아들로 확대된 셈이지. 첫 걸음은 숲을 그린다고 뎌 걸음이 몇번 오가는 사이에 산림지기 딸한테 정이 들었소. 해방도 뻘쪄다. 사랑도 무르익었겠다 결정적인 대답을 받아내려고 왔던 길인데 이 같은 불행이 기다릴줄이야 뉘 알았겠소.

산림은 온통 불 타버렸소. 산림지기의 집도 재목지가 되었지. 타다 남은 사랑채에 모녀만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는거요. 왜놈들이 도망 가면서 해놓은 짓이었다고. 악한 족속들은 흥할 때도 악하지만 망할때는 더한 법이요.

산림지기란 원래 왜놈들의 밥줄에 매달려 놈들의 차별을 돕고 착정이나 술방울을 주어다 때는 불쌍한 백성들을 못 살게 굴던 나부랭이들이었소.

하지만 이 고장 산림지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소. <산세가 험하고 교통이 불편한 여기까지는 왜놈들이 미처 손을 대보지 못하고 망할게다, 그러니 떠지고 갈수는 없은즉 잘 가꿔두면 내 나라짓이 되겠지. 그래서 내 여기 와서 산림지기지못을 하는게다.>하며 성심성의 산을 가꾸고 지켰다오. 주민들한테 토포히 뻔나무도 해가게 해서 이 고장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지. 그의 말이 옳았지. 스즈끼란놈이 이 산판을 사서 차별계획을 세우고 협궤철길을 놓는다 길을 닦는다 야단을 피우다 망해 버렸소. 산림지기 말대로 떠지고 갈수는 없었지. 하지만 큰 횡재를 노리고 달려붙었던 스즈끼놈은 먹이를 놓치고 도망 가자니 복통이 터졌던가 보오. 놈은 군경 몇놈을 데리고 나타나 산림지기 보고 불 놓을 준비를 하라고 했소. <여보 나라들, 전쟁에서 패한 어느 나라 사람들도 산불을 지르고 도망쳤다는 얘기는 아직 없소. 숲은 그 나라의 재부이자 만민에게 맑은 공기와 물과 온기를 주는 모두의 재부요. 당신들한테 인간의 초보적인 인식이나 량심이 티끌만치라도 남아 있다면 순순히 제나라로 돌아 가주오.>하고 산림지기는 막아 나섰소. 악착한 놈들은 그를 소나무에 비끄러매놓고 그쳐로 불을 질렀소. 산이 불타고 그 사람도 불길에 휩싸였소.

<이 천하에 없는 악종들아! 하늘과 땅이 무섭지 않느냐. 아, 내 이럴줄 알았더라면 내 손으로 이 숲을 불태워 네놈들 머리위에 들부을것을... 원통하구나, 원통해!>

그는 눈을 부릅뜨고 숨이 질 때까지 몸부림치며 웅크렸다오. 몇백정보의 숲은 거렇게 황폐화됐지. 거뭇거뭇한 나무등걸들만 우중충 솟고 흐릿한 하늘엔 산림지기의 웨침만이 령혼의 굳어진 정적으로서

려 있고 시신은 커녕 뼈 한마디도 찾지 못했다는구려. 이 솜무지가 된 등판에 청년이 화관을 멘채 울며 서 있었소. 어깨에 걸려있는 화관안엔 전번에 왔다가 채 그리지 못했던 미완성그림이 있었소. 애인이 선택해 준 가장 아름답고 숲이 무성했던 바로 그 장소에 와서 울고 있지. 애인이 제일 좋아 하던 숲의 전경을 그려서 결혼선물로 주자던것이... 숲도 불 타고 산림지기와 그 집도 불타버렸소. 그와 함께 이들의 사랑도 솜무지가 돼버렸던거요. 애인이 결혼을 거절했던거요. 사랑도 끊고 서로 만나는것도 끊고 지금 당장 돌아 가 달라는 완강한 청탁을 받고 나온 길이요. 거대한 형체를 드러내고 시꺼멓게 탄 산은 그채로 산림지기의 원한의 묘지로 되었을 뿐아니라 이 푸른 숲과 함께 꽃 피가던 두 청춘의 사랑의 죽음터, 절망과 비애의 묘지로 돼버렸소.

청년은 화관의 그림을 꺼내서 눈물속에 한참동안 들여다 보다가 미친 사람처럼 그걸 찢어 버리려고 했소.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시키는데 그것이 아니겠소.

<그러지 마세요. 그 귀중한걸 찢다니요.>

청년은 자기를 막아 나선 사람이 누군가 하고 분노에 찬 눈길로 뒤돌아 보았소. 수수한 조선옷차림의 낫 모를 녀인 한분이 편만에 찬 눈길로 그를 지켜 보고 계셨소.

<부인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남의 심정도 모르고 간참이시오. 어서 계절에서 썩 물러 가 주시오!>

<저도 이 숲때문에 올라 왔어요. 숲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요. 가슴이 막 미여 지는것 같군요.>

<거기서는 뭘 나무가 없어 저 그러겠지요?!>

청년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앞에 서계신분의 인품도 가려보지 못하고 웨쳤소. <하지만 나한테는 뭘 나무가 아니라 숲과 함께 인생의 모든것이 다 타버렸소. 이 그림이 귀중하대요? 귀중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가슴 찢기는 추억의 상처, 그림이 아니라 피의 자욱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기가 괴롭다면 저한테 주세요. 여기 와서 다시 그릴수 있게 될때 되돌려 드리지요.>

청년은 놀란 눈길로 녀인을 쳐다보았지요.

<다시 그릴수 있게 될 때라구요? 이 시꺼먼 산판이 다시 푸르려 진단 말씀인가요?>

<그래요. 왜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간것이 어디 숲뿐인가요. 공장도 어촌도 발전소도 모든걸 파괴해 놓고 도망쳤어요. 그렇다고 해방된 땅에서 가슴치며 통탄만 하고 있을수 없잖아요. 우리 손으로 모든걸 일떠세워야지요.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전 이 숲도 다시 푸르려 지리라고 믿어요.>

청년은 자기앞에 서계시는 녀인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걸 깨달았어야지요. 하지만 자기앞에 다닥친 불행때문에 분별을 잃었었소. 그는 흰 이를 드러내며 절망적인 웃음을 지었소.

<그것이 언제? 백년후예요? 50년후에라도 이 그림을 다시 그릴수 있게 된다 칩시다. 허연 백발이 된 다음예요? 필요 없습시다. 죽어 버린 사랑의 상처를 허비는것으로나 되지요.>

<사랑이라니요?> 녀인의 눈길은 심중해 지시었소. <그런 사연이 있는줄 미처 몰랐군요. 하지만 내 킨김에 그 사연을 마저 얘기해줄수 없겠어요? 저도 녀성이예요. 호기심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다감한 표정과 애정에 찬 눈길,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런 진실과 친절성앞에 청년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자기 불행을 자초지종 다 아뢰었다요. 녀인의 두눈엔 물기가 맺히었소. 손수건으로 눈굽을 누르시고는 불 탄 산에 눈길을 주신채 조용히 말씀하셨소.

<숲을 인연으로 맺어진 사랑이니 푸른 사랑이라고 할가... 왜놈들때문에 숲이 불 타고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도 그런 공경을...>

그이께서는 결연히 고개를 흔드시었소.

<사랑은 절대로 시들어 버릴수 없어요. 지켜 내고 계속되어야 해요. 색깔도 변함없이 푸르려 있어야 해요.>

청년은 스름에 젖은 목소리로 웨치었소.

<아, 푸른 사랑! 한마디 말씀으로 알아 맞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은 푸른 사랑이었습니다. 숲처럼 청신했습니다. 숲처럼 진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안내하는 숲속에서 사랑이 싹텔고 그가 선택해 준 여기를 결혼선물로 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숲이 불 타면서 모든것이 불 타버렸습니다. 그 녀자 자신이 인연을 끊자고 했지요.>

죽어도 결혼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여기를 떠나달라고 했던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건 그 처녀예요. 산림지기네 집에서 숲과 함께 태어났고 숲과 함께 자라난 처녀, 성품도 모습도 숲의 모습과 정기를 닮아 청신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지금 처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결에서 애인을 쫓는것은 그 괴로움이 너무 크기때문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그 처녀결에 동무가 필요한 때가 아닐가요? 옆에 있어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하잖나요? 숲은 걱정 마세요. 해방이 됐어요. 이제는 이 숲도 우리의것이예요.>

다시 푸르려 질거예요 새로 선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울게고 주인이 된 인민들이 펼쳐 나 나무를 심고 가꿀거예요. 그때 동무는 어디 있겠나요?

사라져 버린 사랑의 검은 그루터기를 안고 어디선가 다른 주문 받은 풍경화나 그리고 있겠나요?>

청년은 고개를 푹 떨구고 듣고 있었소. 녀인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무척 부드러웠으나 그의 심금을 찌르는것이였소. 사실 그는 자기 앞날의 운명에 대해서도 절망적이었소. 그 처녀의 사랑을 잃어 버

린 나머지 모든 삶은 허무한것이요. 화가가 돼보자는 희망의 열정도 흥취를 잃어 버린것이였소.

<자신의 앞날이 무섭습니다.> 고개를 떨군채 청년은 중얼거렸소. 그러는 청년에게 녀인은 그림두루마리를 꼭 쥐여 주었소. 그리고는 부드럽고 파스한 손길로 감싸주시고는 타이르듯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처녀결에 되돌아 가 주세요. 가서 다문 며칠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무의 량심과 진실한 사랑이 자기 운명의 길을 선명히 가르쳐 줄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관했다가 다시 더 아름답고 훌륭한 그림으로 완성하길 바래요.>

청년은 고개를 들었소. <처녀결에 남겠습니다.

부인께서는 누구십니까? 저의 인생의 영원한 스승으로 가슴속에 새겨 두고 싶어서 그림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그이께서 말씀하시는 <량심과 진실한 사랑이 가리키는길>이 무엇인지, 그림을 <더 아름답고 훌륭한 그림으로 완성하길 바란다>는 부탁의 뜻이 무엇인지 다는 몰랐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감정이 그이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부추기었고 맹세케 했던거요.

<그저 김정숙이라고 불러 주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커다란 마당에서 사귀인 벗으로 말이에요.>

청년은 두눈이 둥그래 저 뻘쳤소.

<김정숙?! 백두산의 너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어머니란 말씀입니까?>

<이 산골짜기 첫 어구에 있는 휴양소를 돌아 보러 왔다가 그앞의 내줄기가 마른걸 보고 올라 왔어요. 불 타버린 산을 보고 내줄기처럼 말라 들던 가슴이 동무를 만나 좀 풀렸어요. 저는 동무를 믿어요. 참된 사랑을 지켜 주세요.

이 땅에 넘쳐날 참된 사랑이 숲도 푸르러 지게 하고 공장도 일떠세우고 부강번영하는 내 조국을 일떠세울거예요. 전 동무를 믿고 동무의 애인과 우리 인민을 믿어요.>

그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피여 올랐소. 한없이 자애롭고 따뜻한 그 미소에 어둡던 산관이 다시 소생의 빛광을 안고 살아 나는데 싶었고 사랑을 되찾고 이 땅의 주인으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도 보이는듯 싶었소.

그는 김정숙어머님앞에 다진 언약을 지켰소.

그 이듬해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어 식수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을 했고 김정숙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군내 인민들과 함께 결혼식기념으로 심었소.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량심과 진실한 사랑이 가리키는길>, 숲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길에 들어 섰던거요. 바로 이 그림이 어머님께서 오셨던 그 장소, 결혼기념으로 첫 나무모를 심고 완성한 그림이요.

이세상 그어떤 부부도 이들처럼 단 하나의 지향과 념원을 안고 크고작은 모든 일에서 합심이 된 부부는 없었을거요. 숲을 가꾸어 어머님을 다시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극성스럽게 일하고 또 일했지요.

그러나 어머님께서서는 오시지 못했소. 어머님께서 안겨 주신 숲도 사랑도 무성해 지고 푸르러 졌는데 것처럼 그러던 어머님을 모시지 못했던 말이요.

그 슬픔과 애수가 저 그림에 비껴 있지요.

이 가정의 영원한 그리움이 어려 있소.》

곽용팔영웅은 마치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처럼 깊은 감회에 잠겨 들었다가 겨우 이렇게 주를 달았다.

《물론 이 그림은 내 장인이 유고작품으로 남기고 간 그림이요.》

나는 축축히 젖어 눈굽을 손수건으로 누르고 다시 한번 사연 깊은 그림을 올려다 보았다. 저 대들보처럼 곧게 뻗은 이빨나무일까, 풍치 수려한 소나무나 잣나무일까, 아니면 하얀 잎새 흔드는 백양나무일까, 어머님앞에 다진 두 청춘의 사랑의 언약으로 첫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리고 뒤를 이어 한생의 언약을 지켜 가며 심고 자라온 나무는 또 몇백만그루이겠는가.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펼쳐놓을수 없는 숲의 바다가 한쪽의 그림을 통해 나의 가슴속으로 밀려 들며 설레이는것만 같았다. 깊숙한 수림속에 뿌리를 두고 멈춘했던 시내물도 다시 흐르며 반짝이며 노래를 부르고 푸르고 흰 잎새들이 어리광치듯 황금빛 해살을 부스르뜨리며 춤을 추었다. 해살은 자애의 어머니인양 과도쳐 설레이는 수억만그루의 나무잎새들에 끊임없는 생명력과 빛과 온기를 뿌려 주며 소리없이 웃고 있었다. 태양과 인간과 자연, 아직은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아름답고 거창한 화음이 나의 가슴속을 뒤설레며 솟아나고 있었다.

때마침 저녁상이 들어 왔으니 망정이지 그림속의 세계에 묻혀 몇시간이라도 그 모양새로 있었을것이다. 돌아 온 현실속의 저녁상도 그 조화의 창조품들로 가득차 있었다. 두둑이 사려 놓은 농마국수에 도라지채, 드릅나물, 고비볶음, 산나물김치...

그밖에 이름조차 알수 없는 파릇파릇한 생채와 볶음, 무침들이 다 숲의 진상품들이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산골이다나니 산푸성귀밖에 없군요. 그런대로 많이 드세요.》

안주인이 미안해 하는 말이었다.

《아이참, 이같은 진수성찬이 어디 있겠나요! 제가 웃은것은 영웅동지의 이야기를 들은데다가 이런 대접까지 받고 나면 애당초 이 산골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지지 않겠나 하는 즐거운 생각이 떠올랐기때문이에요. 영웅동지가 사랑하는 평양을 멀리 떠나 이 고장 숲에 인생의 닳을 내리기로 결심한 이유를 알겠어요.》

영웅은 나의 감상적인 표현에 눈웃음을 보내면서도 고개는 천천히 가로 저었다.

《인생의 뜻이라...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는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었지.

나도 군대에 어지간히 복무해서 결단과 용감성을 자기 인격의 첫 자리에 놓고 생활한 사람이요. 하지만 인생의 결단은 그렇게 쉬운게 아니더군. 충고도 나무람도 없었소. 그러나 수림동무의 어머니가 들려준 사연깊은 이야기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켰소...》

식사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3

곽용팔은 입원실동무들 권고대로 처녀를 데리고 평양에 갈수 없었다. 아직은 딱히 모르겠으나 수림과 자기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이 명백해지기전에는 그 어떤 결단도 내릴수 없었다.

그는 평양에 올 기회가 있으면 집에 한번 들리라는 극히 일반적인 부탁과 함께 주소를 적은 쪽지를 한장 남기고 떠나갔다. 철쭉꽃이랄가, 진달래, 아니면 도라지꽃이랄가... 아직은 딱 찍어 말하기 어렵지만 불속에 몇번 덩굴어 산불을 꺼준덕에 산천은 못 생긴 이 사내한테 자기가 자래운 꽃들중 제일 아름다운 꽃을 안겨 주는가 싶었는데 그런것이 아니었다.

처녀한테는 산골의 정서와 숲의 향기, 그 푸르름이 너무나 진하게 스며여 있었다. 용팔을 취하고 반하게 한것이 그것이였다면 걱정하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것도 그것이였다. 누구에게나 진실과 순결, 청신함에 대한 본능적인 감성과 함께 그것을 자기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에 앞서 인생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것을 그 사연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곽용팔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곽용팔은 원래 말과 행동을 삼가할줄 모르는 성격의 사나이였다. 입만 벌리면 심장이 들여다 보인다는 표현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평양에 돌아와 군대복무기간 있었던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하면서도 처녀로 인하여 일어난 자기 마음속 소요만은 감추고 있었다.

(울것인가? 말것인가?)

귀향의 들뜬 마음, 웃고 떠드는 상시적인 락관속에 애끓는 갈망의 빨간 열점은 그의 심장 한가운데서 소리없이 타고 있었다.

끝끝한 제대군인총각이 나타나자 한 고층살림집에 사는 아낙네들이 저저마다 처녀들을 소개해나섰다. 유치원교양원이요, 어느 양복점의 재단사요, 판매원이요 접대원이요... 마치 평양시안의 모든 직종의 처녀들이 오직 제대군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듯

이 소개돼 왔다. 용팔은 뻔뻔욱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저한테는 모두 분수에 넘쳐나는 대상들입니다. 제 값을 제가 아느니만큼... 어수룩하고 소박한 처녀가 나타나면... 제손으로 고르렵니다.》

이 애매한 대답이 아낙네들한테서 각이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지만 파열되었던 사람들의 흥을 녹였는데서 효과적이였다.

처녀는 오지 않았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는 일감을 찾아 더 분주히 뛰어다니는것이 그의 성미였다. 미제가 일으킨 《판문점사건》때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에 입대했던 그로서는 편입하여 공부를 계속하는것이 직업선택의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하지만 박사, 학사감이 못될바에야 차라리 어느 기업소에 들어가 로동을 하면서 당일근이나 경제일근으로 톨아 불가. 체육단? 사실 어느 선수단에 들어 가 룡구나 실컷 해보는것이 소원인데 다리때문에 그것도 안된다. 이렇게 종잡을수 없는 상태로 좌우팔방 뛰여 다니던 어느 날이였다. 지친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건물출입구에 그 말썽 많은 아낙네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눈살을 찌푸렸다. 저들의 걸죽하고도 간살스러운 룡담에 걸려 들면 몇분간 얼굴이 뻔개서 곤경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생각 같아서는 배란다를 타고 넘어 몰래 들어 가고 싶었지만 5층이 돼와서 그럴수도 없다. 그는 멀찍이 서 기회를 엿볼 심산으로 담배를 한대 꺼내물었다. 라이타를 켜 대려는 순간 푸른 광채가 눈앞에 비껴가면서 그는 문득 굳어졌다.

(수림이가?!...)

분명 수림이가 동네아낙네들한테 둘러싸여 얼굴이 뻔개져서 아낙네들의 물음에 떠들떠들 대답하고 있었다. 환희와 기쁨이 폭풍처럼 그를 떠밀었다. 꺼내들었던 담배를 켜던지고 어제날의 용사 용팔은 달려가 아낙네들의 진을 헤쳤다.

《수림동무! 언제 왔소?》

《오빠!-》 처녀도 너무 기뻐 맞받아 나와 팔소매를 부여잡고 발을 굴렀다. 《그저께... 수삼나무모를 가지러 왔다가 들렀어요. 발은 좀 어때요, 아프지 않아요?》

역시 숲때문에 왔구나. 수삼나무여! 고맙다.

《조금도 아프지 않아... 나무모는 받았소? 어떤 수삼나무이길래 그 먼데서 평양에까지 와 받아 가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정원에 가꾸어 보시고 수목원에 퍼치신 나무래요. 참 좋은 나무예요. 그걸 가져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오셨던 그자리에 심자고 해요.》

곽용팔은 환희에 넘쳐 말하는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 기쁨에 빛나는 얼굴,

생기 넘치는 까만 눈동자, 온몸과 목소리에 팔팔 뛰는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것인가.

푸른 숲의 설레임과 마를줄 모르는 정기가 처녀의 넋과 육체에 영원한 생명력을 안겨 주고 있다. 집은 비고 기다리는 사이에 아낙네들도 처녀의 정취와 사람됨됨을 마음껏 캐본 모양이다.

《아무렴, 제대군인총각이 어련할라구.》

《푸른 보석을 품속에 감추고 어수룩한 처녀를 제 손으로 고른다고 능청을 떨었구만.》

《국수는 언제 먹을가. 우리 인민반 아낙네들도 새각시 맞을 차비를 해야지.》

정을 담아 찢고 까부는 속에 흥조가 피고 수수덕이 뻗었지만 용팔은 수림의 손목을 잡아 끌며 의미심장한 후위진을 쳤다.

《각근한 관심들을 돌려 주어 고맙습니다만 숲과 평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속단들 말아주십시오.》

아낙네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가 한 말은 아낙네들한테보다 수림이한테 충격이 더 컸던가 싶었다. 손목을 잡히워 계단을 오르고 방에 들어 설 때까지 처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손을 놓자 팔은 맥없이 떨어 졌다.

둘은 잠시 서로 눈길을 준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상봉이었던 첫 순간에 야릇한 슬픔과 괴로움이 두 청춘의 심장을 휩쌌다. 그것은 숲과 평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용팔의 짝막한 몇마디 말때문이었다. 처녀도 이 말의 뜻은 물론이 말속에 담긴 용팔의 심뇌도 깨달은 모양 두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었다.

양덕의 심심산골에서 용용히 솟구친 한줄기 시내물이 부풀어 커지며 달려 오며 강줄기되어 안겨들다가 갑자기 뚝을 만나 멈춘한 자세였다. 눈물은 그 너머에 고여 오르는 슬픔의 빛이었다.

용팔은 너무 서둘러 자기 속생각을 내뱉은걸 후회했다. 아무때든 이 계선을 알려야 하며 또 이 계선을 넘어 설 용단이 있는가를 물어야 하리라 생각했지만 이런 식이 아니었다. 천성이 락천적인 그는 처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게 웃으며 비치고 룡말 섞어 물으리라 생각했었다.

용팔은 서둘러 물었다.

《수림이, 평양에 며칠 있겠지. 나와 함께 대극장도 구경하구 교예극장, 옥류관, 대성산도 가보자구...》

처녀는 눈물을 머금은 두눈에 웃음을 피여 올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오빠, 그러자요. 래일모레 자동차로 실어 보내 준다니까 래일 하루 시간이 있어요.》

용팔의 부모들도 수림의 방문을 대단히 기뻐하였다. 동생들도 대번에 반해서 떠들썩 좋아들 했다. 동생들은 저저마다 수림을 이끌고 거리를 구경시킨

다, 극장과 유희장에 간다며 야단들이었다. 수림이도 신기한 세상에 뛰쳐 나온 숲의 요정처럼 두눈이 동그래서 부지런히 따라 다니며 황홀해서 어쩔줄 몰랐다. 역시 평양은 평양이지, 너도 다른 처녀와 같은 처녀이구... 용팔은 은근한 기쁨속에 끼여 드는 리기심을 어찌지 못하면서 한숨 내쉬었다. 그러나 우려는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났다. 동물원에 갔을 때였다. 곰사에 이르렀을 때 수림은 갑자기 켜지는 소리를 질렀다.

《썸터야! 너 여기 있었구나. 나야 나... 너 나를 모르겠니? 수림이야.》

가족일행은 물론 다른 구경군도 모두 눈들이 동그래 졌다. 손님들속에서는 혹시 처녀가 실성한게 아닌가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곰들속에서 까만 털색바탕에 이마뺨에 흰점이 박힌 중곰 한놈이 허우적거리며 처녀앞으로 달려 오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철창을 사이 두고 눈물겨운 상봉이 벌어 졌다.

처녀는 철창속으로 두팔을 뻗쳐 곰을 그려안고 곰은 그 애무가 그리웠던듯이 처녀의 손을 핏었다.

《네가 여기 있는줄 알았으면 제일 먼저 여길 찾아 올걸. 썸터야, 네 동생들도 잘 있다. 보고 싶지, 응?!》

신기한 상봉에 손님들도 경탄을 금치 못했다.

《저런, 세상에 희한한 상봉도 있군.》

《옛말에 나오는 선녀가 아닐가.》

《산짐승과 저렇게 정이 들었은즉 마음씨가 여간만 고운 처녀가 아닐게요.》

처녀는 문득 생각키운듯 《좀 기다려, 응?...》하고 총알처럼 달려 가더니 사과며 배, 밤봉지를 한아름 사들고 나타났다.

《썸터야, 먹어라. 여기 있는줄 알았으면 네가 좋아하는 머루랑 다래랑 한바구니 가져 왔을텐데 어찌겠니. 이거라도 어서 먹어라.》하고 곰의 입에 과일을 넣어 주었다.

사람들은 흥성거렸다. 용팔의 동생들은 미친듯이 좋아들 했다. 용팔이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한구석에선 이طم할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감돌았다. 사랑스럽기 그지없을수록 불안도 그만큼 더 짙어 갔다. 그것은 처녀한테 팍용팔이라는 존재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생각, 그 귀중한것으로부터 처녀를 떼어 낼수도 없으며 설사 떼어 낸다 해도 그한테 슬픔과 불행만을 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였다.

수림은 숲의 딸이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숲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처녀였다.

숲은 그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맑고 청신한 아름다움과 숨결을 주는 존재였다. 팍용팔은 학창시절 백두산 답사길에서 보았던 가냘픈 꽃 한 송이가 생각났다. 백두산 양귀비라고 불리우는 그꽃은

아무리 정성들여 떠다 심어도 백두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다 죽는다는 것이었다. 수림이가 바로 그런 꽃이고 숲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처녀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세월이 흐르면 산천의 꽃은 자기 생명을 준 숲을 떠나 원래의 수림, 원래의 색깔과 감정, 성격을 잃고 시들어 버릴 것이다. 팽용팔의 갈망은 불잡은 이 고운 새를 놓아 보내지 말라고 웨쳤건만 리성과 량심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떠나보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팔은 처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수림동무, 집에 무척 가고 싶지? 어머니가 계시고 숲이 있는...》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두눈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빛발이 뿜겨 나왔다. 그 한 순간의 끄덕임과 표정만으로도 우려는 확증되는 셈이다. 용팔은 가슴속 어느 한 귀퉁이가 푹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에 후-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왜 그러나요?》

민감한 처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순진한 처녀한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너와 헤어진 꿈이 불쌍해서 그런다.》 하고 용팔은 통을 주듯 내뱉었다.

《아마 지금쯤은 울고 있을거야요.》

(흥, 남의 심정은 잘도 아는데. 그 꿈의 처지가 별로 나와 같은줄은 모르고...) 혼자속으로는 화가 나서 이렇게 두덜거리면서도 대답은 이렇게 했다.

《어찌겠소. 올라지...》

팽용팔은 주고받는 말속에 뜻 있는 감정을 누벼갈 줄 아는 사색가도 못되었다. 꿈, 우연히 끼여 든 가련한 처지의 꿈에 비유해 이렇게밖에 표현할수 없었다. 묻고 어찌고 할 필요가 뭔가. 대답은 이미 받은 셈이 아닌가. 아무일이 없었던듯이 웃으며 조용히 떠나보내자.

그 다음날 아침, 둘은 대동강유보도를 따라 수목원으로 향하였다. 용팔은 이 유보도를 오늘같이 유명한 슬픔을 안고 걸어 보기는 처음이었다. (인제 떠나보내면 다로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심벽에서 괴롭게 메아리치고 있었다. 처녀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아무 말없이 따라왔다.

대동강은 유연한 물빛속에 두 젊은이의 모습을 안고 생각 깊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문득 수림이가 고개를 들었다.

《용팔오빠!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던 오빠를 만나뵈구 말없이 조용히 떠나자고 생각했드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되누만요. 저도 인제 철없는 소녀가 아니에요. 오빠가 무엇때문에 피로와 하는줄 알아요. 그 피로움이 저의 피로움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오빠, 우리는 즐겁게 헤어 지자요. 저한테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용팔은 놀란 눈길로 처녀를 쳐다보았다. 강바람이 처녀의 옷깃과 머리칼을 날렸다. 두눈동자에는 이름할수 없는 슬기와 아름다움이 비쳤다.

무릇 새들이 나래를 접고 나무가지에 앉아 까불대며 재재거릴 때에는 곱고 귀엽기는 하나 경망스럽고 연약해 보인다. 그러나 나래를 펴고 창공높이 날아 오르면 그 상승의 높이와 자유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바로 처녀가 지금 그렇다.

용팔은 처녀의 정신적인 나래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가 펼쳐 졌는지 놀랍기만 했다.

《막상 떠나자니 오빠가 걱정스러워 저 혼자 가슴에 품고 떠나자던 이야기를 해요.》

평양에 도착한날 저는 수목원의 관리일군을 만나 온 사연을 말하고 그 일군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수목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참 희한하더군요. 우리 양덕산골에 있는 나무들은 물론 온 나라에 분포된 수종들이 다 있더군요. 숲에서 자란 제가 처음 보는 나무들도 많았어요. 제가 정신없이 만져 보고 쓸어 보고 냄새를 맡아 보고 있는데 등뒤에서 누군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물으시는게 아니겠어요.

<처녀동무가 수삼나무를 양덕산골에 가져다 심어 보자고 온 동무요?>

<네, 그렇습니다...>하고 저는 나무앞새에 얼굴을 묻은채 우렁우렁한 목소리의 주인이 수목원의 총책임자 되시는분이려니 생각하고 철없이 재재거렸어요. <수목원이 참 좋구만요. 온 세상 나무와 꽃들이 다 모여 왔어요. 이런데 와서 일해 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요.>

<하하하... 내 그럼 처녀동무를 여기로 데려올가.>

<정말 그렇게 될수 있다면...> 그 순간 저는 용팔 오빠와 함께... 이 수목원에서... 하는 생각과 함께 희열과 열망에 넘친 눈길로 나무가지를 헤치고 그 이앞에 나섰어요.

그만 저는 우뚝 굳어 지고 말았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의 앞에는 그처럼 오매에도 그립고 뵈고 싶던 그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서계시는게 아니겠나요!

저의 기쁨과 환희를 무슨 말로 다 헤아리겠나요. 철 없는 아이처럼 팔소매를 붙잡고 발을 구르고... 그 다음에야 미처 알아 뵈지 못하고 무람없이 군데대해서 사회를 아뤼어요.

<내가 생각했던바 숲의 처녀가 틀림 없구만.

여기 나왔던 길에 양덕에서 수삼나무모를 가지러 왔다길래 누군가 보고 싶었소. 나도 첫눈에 동무가 흠뻑 마음에 드요. 정말 수목원에 와서 일하고 싶소?>

<일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가까이 모시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 이 일을 어쩐다? 함께 강변을 거닐며 생각해 봅시다.> 그이께서는 저의 팔굽을 가볍게 잡으시고 대동강가로 이끄시었어요. 저의 가슴은 격랑을 일으켰어요. 그이의 한마디 말씀속에 저의 희망, 꿈, 행복이 모두 달려 있다구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긴 눈길을 대동강 상류쪽으로 보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었어요.

<수림동무 고향이 양덕 막바지라고 했지. ...해방된 이듬해 어머니와 함께 갔던 생각이 나오.>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다정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시었어요.

<수림동무, 이 대동강물이 왜 이처럼 맑고 풍만하고 장엄한지 아오?>

너무도 뜻밖의 물음이었어서 저는 대답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었어요.

<그 시원인 샘줄기가 있고 그 샘줄기를 따르지 않고 풍만하게 해주는 푸른 산과 숲이 있기 때문이요. 숲이 없다면 나라의 젖줄기들인 압록강도 청천강도 없었을거요. 숲이 없으면 가을때는 강바닥이 드러나고 홍수때는 물란리를 면하지 못하지. 인간의 생존조건에 미치는 후과는 말할것도 없고 이 강을 중심으로 꽃 피우고 발전해 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 감정도 마르오.

그런데 우리 나라 숲이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었소. 왜놈들이 란벌해 갔고 쫓겨 갈 땐 불까지 질렀소. 전쟁때는 미국놈들이 산림을 태웠고 전후에는 복구건설을 하느라 많은 나무를 찍어 썼소.

수령님께서도 숲을 두고 걱정이 많으시오. 그래서 숲을 지키고 가꾸는데 한생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를 형상한 영화를 한편 만들어 수령님께 올리고 인민들도 교양하자고 하오. 아까 수림동무가 수목원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 수목원도 무엇을 위한 수목원이겠소. 온 나라를 원림화하기 위해 수령님께서와 우리 당에서 직접 가꾸 보고 키워 온 수목원이요.

자기 한생의 희망과 꿈을 누구결에서 일하는가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해야 하오. 애국과 혁명이라는 의미에서말이요. 조국애를 떠나선 설사 한지붕아래 살아도 남과 같은것이고 이에 충실하면 멀리 떨어져 저 있어도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이고 벗이지. 그렇게 놓고 보면 양덕과 평양은 먼곳이 아니지.

나는 수림동무를 믿고 양덕의 숲을 믿소.>...

양덕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피로왔어요.

오빠를 보고 싶는데 헤어 질 때는 어쩌나 하고 말이에요. 생각도 복잡했고 동요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서로 오빠 동생으로 편지도 자주 하며 애국의 의미에서 한마음한뜻으로 살자요.

대동강물이 마를수 없듯이 평양으로 보내는 저의 정도 숲속의 영원한 샘줄기로 마르지 않을거예요. 저는 행복을 거기서 찾겠어요...>

곽용팔은 숨이 콕 막히었다. 아득한 창공에 내려쳐 올라 자기 숲으로 날아 가는 아름다운 새를 배워듯 그 아득한 공간을 온몸에 느끼며 처녀를 배웠다.

집으로 돌아 오며 그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너는 뭐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믿음이 수림동무를 그렇게 높이 날아 오를수 있도록 했다면 너는 어째서 나래를 퍼지 못하느냐. 그렇다. 문제는 수림이한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다.

나의 어리석은 동정과 아량은 수림에게가 아니라 내게 돌려 져야 했다. 사랑도 애국의 뜻을 떠나서는 꽃 필수 없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도 조국애를 떠나선 설사 한지붕아래 살아도 남과 같고 이에 충실하면 멀리 떨어져 저 있어도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이고 벗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이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로 살자. 이 길만이 진정한 사랑도 있고 인생의 보람과 행복도 있다. 그 다음날 용팔은 제대배낭을 다시 지고 양덕으로 떠나갔다.

며칠후 부모형제들과 동네 아낙네들을 놀래우는 전보 한장이 날아 왔다.

《0월 0일 결혼식을 함. 상속된 거대한 <재산>판리가 걱정되어 귀가는 불가능함.

곽용팔.》

4

《...그러나 그 <상속>은 일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한것이 아니라 근면한 로동으로 한생을 다 바칠것을 요구하는 애국과 사랑의 상속이었소. 그때로부터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소. 그동안 숲을 어떻게 가꾸고 일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신문에 다 났으니까요.

나라형편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때도 여기서는 란벌이요 도적채벌이요 하고 떠든적이 없었소. 숲이 풍성하니까 사람들도 너그러워지더군요. 강대, 삭정이들이 수두룩한데 누가 애써 생나무를 찍겠소. 거대한 공동의 재산이 바로 자기집, 자기의 것이라는 믿음을 낳은거요.

가장 피로운건 평양에 대한 그리움이었소. 나는 우점보다 결함이 많은 사람이요. 목적이 하나 서면 그외것은 리성으로 누를줄 아는 그런 사내가 못되오. 숲은 사람의 손을 끝없이 요구하는 물건이었지요.

무엇에든 거칠기 짝이 없는 내 성미의 고삐를 잡아 쥐고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요. 푸른 숲, 그게 아마 사랑이라는것이겠지. 푸른 사랑...

때로는 산판에서 일을 하다가 펄쩍 주저 않아 멀리 평양쪽을 바라보며 생각하오.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따라 가면 대동강이 나지겠지...대동강기슭의 정든 수도 그 강변에 그리운 모교가 있고 내 집도 있소.

못 견디게 그리운건 장군님의 모습이었소. 평양에 있었으면 자주 뵈올수 있지 않을까, 가까이서 못 뵈더라도 무슨 행사나 명절때 시위대렬에 끼워서 멀리서라도 장군님! 하고 목청껏 불러 보고 싶은 심정이었소. 이렇게 공상에 잠겨 있느라 감정이 무뎠던 이 사나이의 두눈에도 축축한 눈물이 젖어 들더군요.

금년 봄이었소. 것처럼 뵈고 싶던 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나는 금오골에서 들었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녀편내한테 손찌검을 할번 했소구려. 금오골 금오골 하더니 날 제일 깊고 외딴골에다 끌어다놓고 장군님을 뵈지 못하게 했다고, 스무해동안 나를 이 산골에 끌어들여 뵈지 못하게 했으면 죽겠지 또 오늘 어느 산신령의 꼬드김을 받아 금오골로 끌고 왔느냐고 고향을 질렀댔소. 저 사람도 얼굴을 싸쥐고 읊디다. 그도 내 심정같았고 내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우리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길에라도 가보자고 허둥지둥 산판을 내리는데 낯설은 젊은 사람이 길을 막아 섭디다. <곽용팔부부가 아니십니까? 장군님께서 가까이 부르십니다.>

<장군님께서요!>

<네, 장군님께서서는 동부전연지대에 현지지도를 가시던 길에 아무리 바빠도 이 숲의 주인을 만나 보고 떠나자고 하시며 샘터부근숲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샘터부근이란 바로 이 그림에 그려진 숲이요.

천지조화에 의해서 차례진 행복이랄까 장인이 김정숙어머님을 뵈옵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부부는 위대한 장군님께 뜨거운 인사를 올리었소.

<곽용팔동무, 수림동무! 다 들었소.동무들의 사랑이 끝내 이처럼 훌륭한 숲의 바다로 펼쳐졌구만. 얼마나 풍만하고 장엄하고 아름답소. 한생에 이만큼 나라의 재부를 안아 키웠다면 그야말로 보람 있는 한생이라고 할수 있소. 동무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애국자이고 혁명가요.>

장군님께서서는 거칠어 진 우리 부부의 손을 모아 잡고 쓸어 주시며 말씀하셨소. 나는 그우에 뜨거운 눈물방울을 떨구며 겨우 이렇게 떠듬떠듬 말씀올렸소.

<아닙니다.우리의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가선생, 장군님앞에 미처 말씀 올리지 못했던 저희 부부심정을 그대로 글로 써주오.

김정숙어머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지켜 주시고 키워 주셨고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해발이 있었기에 오늘의 숲의 바다가 펼쳐진거요. 장군님의 기슭이 없는 그 애국의 품에 우리의 사랑도 숲의 바다도 푸르러 설레는거요. 숲이 아무리 푸르고 무성해도 태양이 안겨 주는 자애의 빛과 열량의 1%밖에 자기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오. 우리도 그렇지. 우리 부부가 아무리 아글타글 애썼다 해도 장군님의 그 크나큰 사랑, 애국의 뜻을 백분의 일, 천분의 하나나 받들었겠소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듭거듭 치하해 주시었소.

<동무들의 사랑이 이 숲의 샘줄기로 대동강과 이어져 이 땅의 맑고 풍만한 젖줄기, 생명수로 흐를거요. 수백만그루의 실한 나무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대들보로 될거요. 고맙소. 동무들이 가꾼 이 숲을 보니 마음이 더 든든해 지고 개운해 지오. 조국의 미래, 강성대국도 이런 사랑에 떠받들리워 일떠서는게 아니겠소. 나는 자기들의 사랑을 이처럼 풍만하고 아름다운 푸른 숲으로 꽃 피운 동무들의 사랑을 축하하오!>

나는 감격과 격동을 금할수 없었소. 우리 부부의 한생이 발자취가 어리고 한그루한그루에 로동이 땀과 사랑을 쏟은 숲을 향해 이렇게 웨치고 싶었소.

<내 사랑 푸른 숲아! 푸르른 소나무와 이갈아, 백양과 분비, 단풍나무야! 장군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우리를 축하해 주신다.

자애로운 태양의 축복속에 더 푸르러 설레여라.

천연자연에 불과 했던 너 숲이 태양과 인간과 함께 오늘처럼 뜨겁게 열렬한 사랑으로 얹혀져 찬연히 빛난적 있었던가. 이 나라 강줄기에 더 맑고 풍만한 물줄기를 대주고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기둥으로, 우리 인민의 생활과 정서에 더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 주며 더 푸르러 설레여라, 내사랑 푸른 숲아!>

강산은 찬란한 해발로 더욱 빛났소. 우리 부부끼리 서로 손 잡아 부축이며 뿔아 오르던 치마바위가 물기를 머금고 번쩍거렸고 금오골의 높은령마루우의 철쭉꽃이 불 탔소. 노루등판의 이갈과 잣나무숲이 설레이고 샘골에서 시작된 내줄기가 구슬꺾미처럼 숲을 누비며 반짝이었소. 장군님의 태양같이 밝은 웃음을 받아 모든것이 찬연하고 아름답게 빛났소. 위대한 김정숙어머님께서 지켜 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 주신 우리의 푸른 사랑이 영원한 태양의 축복속에 설레이고 있었던거요...>

이야기는 끝났다. 안주인도 방안에 들어와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들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았다. 해빛은 밝게 웃고 있었으나 숲은 옅은 안개에 잠겨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푸른

숲, 푸른 사랑을 되찾아 준 영상을 모시지 못한 슬픔과 애수가 그 색조속에 어려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숲은?...

갑자기 온 누리에 찬란한 태양의 빛발이 쏟아져 내리고 기쁨과 환희의 푸른 물결로 이 땅의 숲이 파도쳐 설레인다. 그 푸르고 광대무변해 진 오늘날의 새 화폭속에 이들 부부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나래쳐 올랐다.

나의 눈앞에는 느닷없이 세계명화첩에서 본 두개의 화폭이 떠올랐다. 그중 하나는 사랑과 정욕에 불타는 태양의 신 아펠론이 강언덕을 따라 바다의 신 피네이의 딸 다프나를 따라 잡는 순간 아버지의 구원을 받은 다프나가 한 절반 월계수로 변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다. 또 다른 화폭은 어느 한 세계적인 생리학자의 반신상이 굽어 보는 아래에 서로 사랑하는 청춘남녀의 농군이 정열의 눈길을 주며 마주다 가는데 처녀 사나이의 발밑에 밝힌 푸른 잎사귀를 가리키는 모습을 부조각상으로 얹힌 기념비였다.

태양의 지구행성에 푸른 생명을 만들어 놓는다는 수십억년이 걸렸다. 푸른 숲은 이 땅우에 아메바로

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탄생시키는데 또한 수억년을 소비했다. 인류가 자기의 갈망과 꿈을 신화속에 비추어 보던 고대시기로부터 오늘날 과학적리상과 탐구의 눈길로 그려 보던 태양과 인간자연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조화는 이 땅에 이루어 졌다. 태양과 열록소, 생명의 깨칠수 없는 거대한 고리속에서 이 땅의 인간과 자연을 새롭게 탄생시킨본은 자연의 태양이 아니라 인류의 태양 **김정일**동지이다.

그것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승리였다.

슬픔과 애수는 깨끗이 가서 졌다. 오늘날의 이 사랑의 화폭, 승리의 화폭을 그려야 할 사명은 나에게 주어 졌다. 나는 매일 아침 이들 부부와 함께 자애로운 어머니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셨던 그 숲에 가볼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태양과 인간, 자연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조화를 이루었던 그곳에 자신을 세워 놓고 가슴 가득 차 설레이는 환희와 사랑의 걱정을 담아 이들의 푸른 숲, 푸른 사랑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다.

더 넓어 지라고, 더 무성해 지고 더 푸르려 지라고....

주체89년 7월

명언해설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작가가 인간생활을 선도하는 시대의 기수, 선각자 되어야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작가가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며 인간에게 참답게 복무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 나가면서 인민들을 교양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자, 기수가 되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을 모르는

작가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좋은 작품을 써낼수 없다. 작가가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이다. 작가는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수업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대의 앞장에 서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영원한 모습

차명숙

그 언제나 그리워 사무치게 그리워
마음속에 그려 보는 모습입니다
아 백두의 풀물 오른 군복을 입으시고
봄날같이 웃으시는 녀장군의 모습

그 언제나 못 잊어 자나깨나 못잊어
마음속에 안고사는 모습입니다
아 사령부 보위하신 기쁨에 넘치시여

행복의 눈물 짓던 녀장군의 모습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후손만대 모시고 살 모습입니다
아 태양만을 받드신 결사옹위 한길에서
아름다운 한생 바친 녀장군의 모습

아 우리 어머니님 김정숙어머니님

어머님은 총을 잡고 계신다.

강일남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해만 지는 어머니님 생각으로
내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마음으로
어머니앞에 섰노라

군복차림의 어머니님 모습
제일 좋다고 하신
수령님의 말씀 지켜 가시는가
초록색군복 정히 입으시고
이제라도 총성을 울릴듯
권총집에 손을 얹으신 어머니님 모습

불비 쏟아 지는 항일의 혈전장에서
사령관동지의 안전은
조선의 운명이라시며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불벼락을 안기던 권총이여

어려운 적후공작임무의 나날에도
위험하신 자신이 한몸보다도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위해서만
불을 뿜던 총

세월은 흘러 어머니께서 차시던 권총
우리 장군님 이어 받으시여
수백수천만의 총대가 숲을 이루고

령장의 밝은 빛속에
무적의 총검으로 파도쳐 설레여라

장군님 총대로 조국을 지키시기에
이제는 어머니님 총을 놓아도 되시련만
어머니님 오늘도
총을 억세게 틀어 잡고 계신다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한 길
백두산시절의 그 군복 입으시고
장군중의 장군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수령님 유훈 이어 가시려는듯

아 어머니님은 더 억세게 잡고 계시여라
수령결사옹위의 빨찌산총을
제일선의 경위대원으로
영원히 서계시고 싶으시여
영원히 서계시고 싶으시여

행복한 세월은
이 땅우에 끝없이 흘러도
어머니님은 오늘도 총 잡고 계신다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장군님을 모셔야 할
참되게 가르치는
오 군복입은 스승의 위대한 모습이여!

고향과 서정

최희건

이 세상에 시인들치고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을 두고 노래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들이 다 공감을 준것은 아니다. 시의 공감력은 시인,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이 고상한 정서로 안받침되는데서 생겨 난다.

서정시 《고향아 나의 고향아》와 《사랑의 메아리》가 고향에 대한 사랑의 서정으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시인이 고향땅에서 받아안은 사상감정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파고들어 노래한데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구름피는 아아한 마식령 넘어
산그늘 길게 드리운 양지풀어구
눈부신 창문들이 반겨 웃는데
목메이게 풍겨 오는 산열매의 향기
칭칭 실가지 드리운 버들방천에
도란거리는 맑은 내물소리

...

이것이 바로 밤마다 꿈결에도 실려와서 시인의 마음을 다잡고 놓지를 앓아 다시 왔노라는 시인이 태를 묻은 산촌마을을 정든 고향이었다.

이 시의 매 구절구절에는 고향마을의 아름다운 풍치가 그려져 있다. 조선화적인 필치로 그려 낸 한 폭의 농촌풍경화를 보는것만 같다.

바로 아름다운 고향산촌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감정묘사》에 의하여 향토애의 감정정서가 나타나는것이며 그러한 정서속에서 고향에 대한 사랑의 서정이 흐르게 된다.

이와 같이 시인의 감정은 구체적인 생활정황과 섬세한 느낌으로 하여 정서적반응을 일으켰으며 그것이 시에서 강렬한 향토애의 서정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하기에 시인은 《때 이른 흰서리 귀밑에 비끼여도 사랑의 정은 늙지를 앓아》 소꿉시절의 그때처럼 애슬푸른 언덕에서 마구 덩굴고 싶었고 종개잡이손 더듬어 해 가는줄 모르던 추억 깊은 그 고향의 실개천에 첨벙 뛰여 들고픈 심정이라 하였다. 이것은 소꿉시절에로 돌아 가고픈 단순한 감정의 충동이 아닌것이다. 사랑의 정이 늙지를 앓았다는, 세월은 멀리 흘러 갔어도 고향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은 오늘에도 변함없음을 느끼는 시인의 남다른 환희였고 자부였으며 향토애였다.

여기에 고향에 대한 일부 서정시들에서 나타난것처럼 동요시절에 맑은 시내가와 푸른 동산, 바다가 모래불에서 폴각시놀음하고 종이배를 띄우고 하이얀 연을 띄우며 놀던 때를 못잊었다는 야릇한 추억만을 더듬은 그런 약점을 극복한 모범이 있는것이다.

물론 고향에 대한 시에서 향수의 감정, 추억의 감정정서를 두고 나무람할것은 못된다. 그것은 아름다운 감정정서이다. 향수의 감정은 우리 시대 시인들이 쓴 시들에도 있었으며 특히 해방전 시기의 시들에 많았다.

1920년대 시인들인 김소월의 《고향》, 조병희의 《나의 고향이》, 그리고 박팔양, 신석정, 정지용의 시들은 한결같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의 눈물에 젖은 시들이였으며 해방후 적지 않은 시편들에서도 향수의 감정만이 다분한것들을 느낄수 있었다. 그러한 시들에도 물론 향토애의 감정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이 열렬한 조국애의 사상감정으로 승화되지 못했던 까닭에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이를수 없었다.

오늘에 와서 우리의 많은 시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하고 무결한 서정의 문학으로 형상하지 못하고 있다. 향토애가 곧 조국애라는것이 구체적인 시적형상으로가 아니라 논리로 설명한 시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향토애로부터 흘러나오는 조국애를 추상화된 개념으로 취급하거나 형상적인 인식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인식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예술적형상탐구의 태만에서 오는것이다.

형상적인 인식, 형상적인 탐구는 시인의 현실에 대한 예술적파악과 깊은 정서적체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시인들에게 있어서 예술적파악, 정서적체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현실을 시적으로 느껴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할것이다.

서정시 《고향아 나의 고향아》와 《사랑의 메아리》는 이러한 점에서 시인이 고향에 대한 생활체험, 정서적체험을 진실하고 깊이 있게 하였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실례로 《고향아 나의 고향아》에서 보면 해발고가 너무나도 높아 구름이 피여 나는 마식령을 넘어 맑은 시내물이 흐르는 정든 고향마을에 이르는 그 과정을 시인은 눈앞에 보듯 방불하게 그렸는데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느낌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에서도 말했지만 이 부분의 시구절은 시인이 마식령고개를 넘어 내리여 양지골마을에 이르는 과정과 고향의 풍치를 그려 낸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향땅에서 보고 느끼는 시인의 정서적 체험을 엿보게 된다. 집집의 눈부신 창문들도 고향의 아들을 반겨 짓는 웃음으로 보고 느끼었으며 버들방천에 흐르는 맑은 내물소리도 도란거리는 소리로 듣고 있다.

고향의 그 시내물을 돌돌 흐른다거나 졸졸 흐른다고 할 수도 있었겠는데 시인은 어찌하여 도란거린다고 표현하였는가?

돌돌 흐른다고 하면 그리 많지 않은 시내물이나 도랑물이 좁은 목으로 부딪치며 좀 빠르게 흐르는 소리를 표현한 것일 것이며, 졸졸 흐른다고 하면 가는 물줄기가 끊어 지지 않게 순하게 흐르는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구태여 고향의 시내물이 흘러 가는 소리와 모양만을 보여 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도란도란거리며 흐른다는 사전적 의미는 나직한 소리로 정답게 조용조용히 서로 말을 하듯이 속삭이며 흐른다는 것이다.

분명 시인은 행복에 웃는 집집의 눈부신 창문들과 목 메이게 풍기는 산열매의 향기를 두고, 이 정든 고향산촌을 찾아 온 아들인 시인을 두고, 맑은 내물도 반가움에, 기쁨에 도란거리며 속삭이며 흐르는 것으로 감수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시적 체험이며 정서적 체험이다.

《도란거리는 맑은 내물소리》라는 시적 표현은 그것이 시적 언어의 형상적 탐구 과정을 보여 준 것으로 뉘 뿐 아니라 보다는 시인의 시적 체험, 정서적 체험의 깊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시인이었기에 《마시며 자라온 청신한 정기와 웅달샘》도 자기의 몸에서 《살이 되고 피로》되어 뉘었기 때문에 전화의 그날에 결사의 각오를 안고 불비속을 내달을 수 있었다고 노래하였다.

이것은 고향의 푸른 정기와 뜨거운 냇이 자기의 생명력으로 신념과 투지로 되었음을 정서적으로 느낀 것이다.

그러한 정서적 체험을 가진 시인이었으므로 《고향의 민요가락》을 《꿀맛같이 달고 단》 것으로 느끼었으며, 《수리봉 여울목에 발전기 동음 타고/집집에 피어나는 정겨운 웃음소리/산마다 보물산 인심도 후한 고장/피내고 피내어도 밀창을 모르는 인정의 <호수>》인 화목으로 뜨겁게 단합된 고향의 새 모습을 두고 탁배기로 일근히 흥취를 돌구면서 이밤만은 감회깊이 회포를 나누어 보라고 눈물 젖어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정서적 체험이란 이처럼 생활을 정서적으로 느끼어 자기의 감정으로 받아 들이는 체험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서적 체험으로부터 시의 정서가 풍부해지며 그것이 깊고 뜨거운 서정으로 시에 차 흐르는 것이다.

진정 시 《고향아 나의 고향아》는 고향에 대한 깊은 정서를 타고 흐름으로써 사랑하는 우리의 그 모든 고향은 우리의 운명과 하나로 이어져 《세상을 통채로 다 준대도 아니 바꿀/피어린 계급의 유산》이기에 《잠시라도 마음의 탕개를 풀수 없는》 우리들임을 깨우쳐 주고 있으며 《죽어서도 못 버릴 어머니 품》인 고향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라는 사상의 절정에 오를 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이 서정시가 가지는 사상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깊고 뜨거운 정서로 시의 사상을 감명 깊게 노래할 수 있는 형상적 비결이 있는 것이며 고향에 대한 사랑의 서정이 가져다 준 생명력과 공감력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시인이 고향에 대한 자기의 두 편의 시에서 서정적 주인공의 사상 감정을 풍만한 정서로 것처럼 기쁘고 인상 깊게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을 서정과 밀접하게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생활의 정서적 반영인 서정은 역시 시인이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악하고 체험하였을 때만이 생겨 난다.

다시 말하면 시인이 체험한 사상 감정은 생활로부터 발생하며 그것이 서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생활이 서정의 바탕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이 서정의 바탕이라고 하여 생활 자체가 곧 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을 대하는 시인의 사상 감정의 열도, 생활을 대하는 시인의 자세와 립장에 따라 그 생활이 서정으로 되는가 못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생활은 아름답고 풍만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미적인 시각》과 그것이 풍기는 향기를 맡을 줄 아는 《미적인 감각》이 예민한 시인만이 생활의 정서를 자기 체험의 도가니 속에서 걸러시키고 정화시켜 자기의 정서, 자기의 주정, 자기의 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인이 생활을 체험하고 받아 들이고 형상으로 표현하는 합법칙적 과정이다.

시인의 사상 감정과 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정서는 생활적인 정서로 파악되며 생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시의 생활 정서와 시의 서정이 산생되는 예술 형상 생리의 형성과 시인의 정서적 체험과 형상적 사유 과정을 시 《사랑의 메아리》에서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시 《사랑의 메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해발 아래 세쌍둥이가 태어난 고향 마을의 경사를 두고 느끼는 서정적 주인공, 시인의 사상 감정을 풍만한 농촌 정서로 생활적으로 감명 깊게 노래하였다.

이 시는 특히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의 정서를 짙은 민족적 감정 정서로 노래함으로써 시의 서정을 더욱 풍만하게 하였다. 우리의 일부 서정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결함은 민족적인 정서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그러한 부족점을 바로 상기

의 시에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시 《사랑의 메아리》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게 된다.

젖빛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아늑한 산촌의 새벽에 밤새껏 불빛이 흐르던 썸골집창가의 고요를 깨치며 새 생명의 출생을 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경사로운 그 기쁨을 제가 먼저 알고 알리노라고 어느 새 담장우에 날아 올라 긴 목을 빼들고 뺨을 치며 《꼬끼요—》하고 요란스레 내뿜는 수탉의 꺄대칭! 이것은 조선의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활정서이다. 한 수탉의 이 꺄대칭에 《연해연송 겨꿈내기로 온마을이 들썩하게 화답하는》 수탉들의 꺄대칭은 《호기차고 조화롭게》 잘도 어울렸으니 그것은 청아하고도 류량한 내 고향의 경쾌한 취주악의 가락이었으며 《내 고향의 만복을 함뿍 떠실고/끝없이 울려 퍼지는》 산촌의 메아리, 축복의 노래였다. 시의 (1)부분은 전부 21행(시의(2)부분도 21행)밖에 안되지만 이 시줄속에 고향산촌의 경사를 단숨에 노래하고 있다. 세 쌍둥이가 태어난것을 먼저 알고 그 소식을 먼저 알린것이 어찌 수탉이었겠는가. 새 인간의 고고성을 먼저 들은것도 먼저 알린것도 사람들일 것이었으나 그것을 농촌의 새벽을 먼저 알리는 수탉들의 꺄대칭에 의탁하여 고향의 경사를 노래하려고 한 여기에 시인의 기발한 시적작상이 있으며 바로 농촌새벽의 고요를 깨치는 수탉의 꺄대칭에 시형상의 초점을 두었다는데 시의 예술형상적 독특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로부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농촌마을의 생활정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생활정서가 있게 된 것이며 시의 서정을 특색 있게 펼쳐 보여 준 형상의 비결이 있다. 이것은 이 시인의 깊은 시적사색과 예술적탐구로 얻어진 형상의 발견이다. 시인은 이시의 (2)부분에서도 역시 농촌의 정황에 어울리며 그 생활정서에 맞는 시적형상으로 고향땅에 꽃피난 새 전설을 감동적으로 노래하였다.

매봉산 구름봉이 하도 높아 아침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그 한낮에 산까치가 무리 지어 지붕들을 넘날으며 온 마을이 분주하게 깍—깍— 거렸으니 과연 그 무슨 기별을 전하러 하는것인가? 그것은 이름없는 여기 산골마을 썸골집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직승기가 날아 온다는 감격적인 소식이였다.

그리하여 제대군인청년인 세쌍둥이아버지는 달리던 트랙포트를 멈춰 세우고 귀를 귀울이니 정말 저 멀리서 으름으름 동음소리 들려왔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문을 차고 트랙으로 나서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제먼저 보았다고 비행기가 날아 온다고 떠들썩하였으니 꿈인가 생시인가 썸골집마당가로 직승기가 서서히 내려 앉는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환호를 터치며 흐느끼고 있었으니 그 모습 바라보는 시인 어찌 울지를 앓았겠는가!

시인이 노래했듯이 진정 고향땅에 《문명의 해발은 파사로이 비끼여/위대한 사랑의 새 전설이 태어

났거니》 귀여운 옥동자의 밝고밝은 그 미래를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사랑의 하늘길로 눈물젖은 산골마을의 감사를 실어 보내는 고향사람들의 감격은 무한히 뜨거웠다.

보는바와같이 이 시의 (2)부분에서는 희한한 고향마을의 경사를 두고 느끼는 사람들의 사상감정세계를 농촌의 생활정서와 민족적생활감정에 맞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방불하게 그려냈는가. 여기에서도 시인은 산까치의 울음으로 사랑의 비행기가 날아온다는 희한한 소식을 받아 안게 되는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을 펼쳐 보임으로써 진한 향토적정서와 민족적생활감정을 깊은 서정으로 차넘치게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 《고향아 나의 고향아》, 《사랑의 메아리》는 감정정서의 구체성과 섬세성, 고향의 산천을 방불하게 그려낸 회화성, 깊은 정서적체험에 의한 농촌의 생활정서와 민족적감정정서의 풍만성으로 하여 우리 시인들과 독자들에게 고향에 대한 서정시창작에서 훌륭한 참고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인들은 너나없이 이 시인과 같이 생활을 시적으로, 정서적으로 체험하고 생활을 뜨겁게 감수하는 예술가적감각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시인적자질과 기질을 가질 때에야 진정한 서정시다운 서정시를 써낼수가 있을것이다.

시인들은 자기의 창작생애에 수백편의 시를 남겼다고 하기에 앞서 인민들의 기억에 남는 시를 몇편이나 썼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인민이 기억하는 시란 언제나 즐겨 외울수 있는 시이다. 그런 시를 쓰기 위해 시인들이 고심참담한 창작로동의 뜨거운 땀을 빼는것이다.

시인의 땀이란 뉘이 타고 피가 타서 방울져 떨어지는 《구슬》이다. 그 《구슬》을 방울방울 꺄여 줄줄이 늘어 참으로 백옥같은 시줄을 얻어 낸다면 사람들이 세월을 두고 기억하며 애송하는 시로 남을것이다. 이 시인이 읊조렸듯이 진정으로 고향을 《떨어져 살수 없는 련인과도 같이》 사랑하고 《죽어서도 못버릴 어머니품》처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길 때야 시인들은 자기 고향을 조국이라 부를것이다. 시인은 자기의 한편의 시로써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낳는다는 그런 시인적사명감을 가질때 만 이 시인으로 될수 있다.

그러한 사명감을 두고 리상화가 《시인에게》라는 시를 남기였다.

한편의 시 그것으로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아야 할줄 깨칠 그때야
시인아 너의 존재가
비로소 우주에 없지 못할 너로 알려 질것이다.

...

시인은 그 어떤 주제의 작품을 쓰든지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아야》한다. 서정의 문학, 체험의 문학만이 새로운 세계를 낳을수 있다.

시 《고향아 나의 고향아》와 《사랑의 메아리》는 요란스럽지는 않아도 위대한 태양의 해발아래 꽃피난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의 아름다운 생활의 세계와 력사에 다시 없는 위대한 인간사랑의 새 전설을 생활적으로 민족적향취가 나게 풍만한 서정으로 노래한 시이다.

나는 시를 사랑하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두 편의 시를 두고 고향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세계를 음미해 보고저 이 평필을 들었으나 시세계의 깊이를 못다 헤아린채 허물 많은 글을 여기서 마침을 부끄러이 생각한다.

하지만 시인이여, 내 그대와 약속한다. 만약 시인이 이제 구름 편다는 아아한 그 마식령을 다시 넘고넘어 산그늘 길게 드리운 양지골에서 도란거리는 고향의 맑은 내물소리로 향토애의 노래를 부를적에 오늘에 진 빛을 갠고 이 글의 허물을 씻으라고 다짐한다.

시인이여, 더 멋진 고향의 시를 쓰기 바란다.

작가일화

《나도 황제가 되었을거요》

림제(1549~1587)가 역마에 관한 일을 말아 보는 종6품벼슬인 찰방으로 있을 때였다.

찰방이란 말이 벼슬이지 왕의 어지를 전하는 차사들이나 지방순시로 때없이 돌아치는 중앙이나 지방관료들에게 역마를 대주어야 하고 또 그 관리까지도 보살펴 주어야 하는 말등관직이었다.

어느날 림제가 창도역에 나가 있을때 한무리의 무관들이 역에 쓸어들었다. 추운 날씨에 언뭍을 녹이느라 한참 분주탕을 피우던 그들은 몸이 얼마간 녹자 이런저런 한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열결에 귀를 기울이노라니 그들이 주고받는 말이란 모두 한고조가 어떻고 항우며 한신이 어떻고 하는 중국의 력대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들뿐이었다.

(제 나라 이름있는 명장들은 찾을줄 모르고 몽땅 큰 나라에 대한 이야기뿐이로군, 파시 육체는 있어 뉘이 빠진 자들이로다!)

그들의 이야기에 넌지시 끼여 든 림제는 애국명장 남이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끌고 가다가 시한수를 지어 읊었다.

오랑캐 일찌기
이 나라를 엿볼때
장군은 말 달려
국토안정시켰도다

지금 국경엔
싸움이 없고
장사들 역루에서
단꿈만 꾸네

림제는 시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북부국경지방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부투한 남이장군을 추모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국경경비를 소홀히 하고 공리공담에만 빠져 있는 무능한 관료배들을 은근히 비난하였다.

그의 시를 듣고 탄복하던 무관들이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재능이 출중한데 어찌 찰방 같은 미관직에 묻혀 있소?》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격인 림제는 큰소리로 허허 웃으며 이렇게 받아 넘겼다.

《중국의 6조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돌림황제쯤은 되었을거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때문에 화를 당할줄이야...

좌석에 끼였던 한 량반이 제격 이 말을 형조에 고해 바쳤다.

그리하여 림제는 반역기도죄에 물려 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대에 빠진 량반나부랭이들의 꼴이 보기역겨워 한마디 룡을 던진것이 이런 화를 빚어 냈던 것이다.

아무리 매질을 하며 문초를 해보았으나 더 특별한것이 나올것이 없는지라 형조에서는 며칠후 림제를 석방시켜 버렸다.

언제나 사대를 증오하고 멸시해 오던 림제는 림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한다.

《사해제국에 모두 황제라 칭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유독 우리 나라만이 이를 못하니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 죽음에 무엇이 서러운것이 있겠는가.》

리동성

20 세기에 남기는 시편들

김명익

새 세계

오늘날, 세계정치지도는 누가 그리는가?
누리에 선군시대를 펼치는
오, 동방의 조선사람들이 그리노라!

길

무릇, 지구의 돌레가
장장 10 리라면
이 세기를 개척하신
우리 수령님의 파란만장길은
어허, 260 여만리나 되는데...

세월의 추녀아래

먼— 인류문화의 발상지 대동강류역
청청한 너의 기슭엔 서 있구나 풍상의 대동문이
유구한 수도의 옛 성문이어
네 추녀아래 20 세기를 노래해온
이 나라 못 시인들의 창 밝은 집도 있노라

물노라

물노니, 저무는 인류백년사여
네 어떤 세기이더냐
너는 만고의 우리 수령님을 잃은 세기
너는 전설의 우리 장군님을 맞은 세기

주인

차크에서 로케트에 이르는
현세의 10 대 발견
이를 낳은 인간들이 자기를 발견한것도
오, 20 세기 이땅에서였나니
우리는 주체사상탑아래서
20 세기를 살아왔다
노예로부터 천하의 주인으로!

출생

칠월 초사흘날 백두대지에서
한녀인의 순산이 보고되는 아침
전선의 최고사령부에는

홍단의 출생증이 이미 있었다
이제 또 있으리 새 천년기엔
대홍이 두번째 출생증이...

이끼는 푸르러도

옛 고적이 많아서이리
에짚트의 고대사가 오래다 함은
그래도 후세사람들은 이야기하리
인간행성에 이끼가 푸르도록
아득히 세월이 흐른다 하여도
시의 시대는 노동당 세월에 있었다고
오, 고대 에짚트의 력사는 오랫동안
사랑의 시는 없었더라고

별

인간세상에는
참다운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 시와 노래로 탑을 쌓는다면
아름답고 성스런 금자탑이 되리
그 탑우에 빛나는 별은
아마도 선군시대 녀인들을 노래한
영웅시가지리라

반지

우물집 손이더러 언약을 하고
푸른 들을 지나 전선으로 떠난 그대
령어의 몸이 되었다 오늘에서 돌아 와
백발 애인의 손을 더듬어 끼워 주는데
그 시절에 그만 못주고 품어 온 반지여
장기수 남아의 가늘어 진 은빛반지엔
이 세기 마흔해의 옥종고초가 비졌던가!

서명

아, 통일세기의 문이 열린던
환희론 순간
북남공동선언서에
김정일장군님 서명하신
그날밤 11 시 25 분이여!
그 시각을 맞기까지는
이 강토우에 1 만 9 천 6 백여일의

해가 뜨고 달이 졌더라

가을

이해 2천년 이 가을은 다 가도
그이는 종시 못 오시누나
찬바람 이는 날들엔 오시면서도
감향기 넘치는 감철에는...
아, 감나무중대 너병사들의 그리움속에
감이 무르익는 조선의 계절이여
그 감철을 기다려, 21세기 첫 가을에도

후회

새들은 유난히 우짖고
그이는 아쉬워 잠든 애를 바라보시고
《자는 아기는 깨워선 안되지
커서 사진을 보면 잠 잔것을 후회할거요》
아버이는 웃으시는데 력사는 사진기에 찍히고...

단평

꽃다발속에 비껴진 시적일반화의 세계

최영희

서정시 《밤으시라 이꽃다발》(정혜경 작 《조선문학》 주체89(2000)년 11호)은 뜨거운 시적체험과 열정으로 시적일반화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깊은 감동을 준 좋은 시라고 생각된다.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인의 진실하고 소박한 감정속에 들꽃 한송이라는 시적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섬세하고 생활적인 정서를 안고 시적일반화의 폭을 넓혀 나갈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고 있다.

시인의 감정속에 존재하였던 들꽃, 인생의 머나먼 길 기쁨과 슬픔을 안고 세월의 언덕우에 피었다진 꽃송이들은 얼마나 많았을것인가.

정녕 시인의 마음속에 피어난 이 꽃은 작별과 상봉의 수많은 오솔길에서 레사로이 주고받던 그 꽃송이들과는 비할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꽃인것이다.

시에서 노래된 꽃은 먼저 장장 40여년을 철창속에 시들면서도 불굴의 신념을 안고 티없이 순결하게 피워 온 우리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의 꽃이다. 피 터지는 고문과 고독, 굶주림에 철창은 녹아떨어 저도 복두칠성 우러르며 잠 못 들던 밤 그 마음의 프락에 피어나던 꽃송이, 비전향이라는 세 글자를 지켜 빼가 부서지면서도 가슴에 안아보던 고향집의 그 꽃송이였다.

아가야! 네 이제 한살이니 백살은 잘 살아
그러면 한세기를 후회해야 하리
그래서나 령길가족소대녀인들
《고후회》라 애이름을 지었네
보아라, 이 땅의 보통날들에
수령과 인연 맺은 사람이 많은 20세기여!

작별

인간이 책을 가장 많이 쓴 20세기
그래서 책의 산맥우에
이 세기는 저문다고 했던가
그 진리와 문명의 첩첩한 령봉너머 잘 가시라
김정일시대를 낳은 영광의 세기여
너의 기슭에 백화로 안아 뿌리노니
부디 잘 가시라 안녕히!
아, 천추에 잊지 않으리
우리 살아 온 20세기여!

그 신념의 꽃잎에 반한 시인은 격화되는 감정을 안고 우주의 한끝에 꽃이 있다면 그 꽃을 꺾어 그들의 피어린 자욱자욱에 놓아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슴 불 태우고 있으며 백발로 신념의 꽃을 피운 그대들이 전선으로 떠나가던 그 길에 한송이 작은 들꽃도 못 드렸던 자신을 더없이 송구스러운 감정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송구함속에 솟구쳐 오르는 격정과 열망을 안고 뜨겁게 안겨 오는 다른 하나의 꽃의 세계를 발견할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낮이나 밤이나 눈 오나 비오나 집 떠난 아들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어린 꽃다발이며 그 어머니들의 아픈 마음을 다 안으시고 굽이굽이 전설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엮으신 동지애의 꽃다발인것이다. 이것은 벌써 시인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던 한송이 가냘픈 들꽃이 아니라 참된 인생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경탄,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에 매혹된 시인의 높은 정신세계로 승화된 꽃바다의 탄생이였다.

이처럼 시는 진실한 감정과 열정으로 시대를 뜨겁게 공감하고 체험할 때 새롭고 참신한 서정의 세계를 발견할수 있으며 시적일반화의 높은 경지에 올라설수 있었다는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지에 대한 이야기

강귀미

…우리는 씨앗이었다. 어느 물결에 실려갈지 어느 광풍에 날려갈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운명에 맡겨진 씨앗이었다....

주체50(1961)년 초봄 어느날.

고베조선고급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귀국열기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학교에는 강당이 없어 모든 모임을 운동장에서 가지곤 하였다.

그날도 운동장에서 《고베조선중고급학교 학생 귀국결기모임》을 가졌는데 주석단에는 교장을 비롯한 학교의 책임일군들이 앉아 있었고 연락에 학생들이 편이어 달려나가 열변을 토하였다.

나도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땀머리에 까만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는 맨 먼저 연락에 나가 열렬하게 귀국할것을 결의하였었다.

《...동무들, 조국이란 개념은 얼마나 티없이 깨끗하고 신성하고 따뜻하고 포근한것입니까. 어머니 조국은 두팔 벌려 우리를 부릅니다. 귀국의 길만이 진정한 배움의 길이며 조국의 참된 아들딸이 되는 길입니다.

비록 나이는 16살, 녀자의 몸이지만 조국으로 돌아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충직한 딸이 되겠습니다. ...모두다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귀국합시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웁소!》, 《잘해!》 하는 웨침소리까지 울려 나왔다.

이날 모임이 끝나자마자 귀국을 결의한 학생들은 곧장 일본구역소에 가서 귀국을 신청하였다.

며칠후에는 《조선신보》4면에 내가 쓴 《귀국 결의》라는 제목으로 된 《귀국성명》 비슷한 글이 큼직하게 게재되었다. 일본구역소에서 귀국신청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받쳐서...

조국으로! 조국으로! 조국으로! 나의 온몸과 마음은 벌써 조국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속에서도 나에게서는 은근히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할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리라는 우려였다. 나의 할머니는 녀자는 밖에 나돌아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봉건사상이 뼈속까지 짝 배여 있는 평장히 완고한 늙은이였기때문이었다.

우연히 만난 학급의 남학생과 길가에서 몇마디 말을 주고받는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 그야말로 생벼락이 떨어 지곤 했다.

《이놈의 계집애, 큰길에서 사내하고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노?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노?!》

이런 할머니였으니 아무리 조국이라고 해도 수천리 먼곳으로 어찌 소녀를 혼자몸으로 떠나보내려고 하랴. 《계집애란 집밖에 나가 돌아 치면 못쓰게 된다.》 그것이 할머니의 견해였으니 말이다.

어느날 저녁, 나는 하루종일 버려다가 드디어 할머니에게 《도전》해 나섰다.

《할머니, 나도 귀국하겠어요!》

나는 제편에서 먼저 눈살이 찌그러서 할머니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나로서도 태어난 이래 할머니에 대한 첫 《도전》이었다.

그런데 단방에 안된다고 호령을 내릴줄 알았던 할머니가 뜻밖에도 주름 잡힌 얼굴에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는것이 아닌가!

《내 다 안다. 가거라. 김일성원수님께서 계시는 조국인데 가거라. 그 품은 어머니품이다.》

나는 너무 기뻐 할머니품에 와락 안겼었다.

《봉건》의 통제속에서 손녀를 《상자안의 처녀》로 키우면서도 걱정을 놓을줄 모르던 할머니가 어찌 그렇듯 쉽게 어린 처녀의 몸으로 혼자 귀국하려는 이 손녀의 결심을 허락하였던가?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할머니가 비록 남조선태생이지만 우리 민족의 하늘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그곳만이 진정한 어머니조국이라는것을 소박한 인생의 철리로 깨닫고 있었기때문이었었던것 같다.

이리하여 나는 16살되는 해인 주체50(1961)년에 마침내 단신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니이가다.

첫 귀국선이 뜬것을 기념으로 조선식으로 《버드나무거리》라고 명명한 거리는 고베조선중고급학교학생귀국집단성원들의 떠들썩거리는 모습으로 하여 활기를 띠었다.

우리 부모들의 원한 서린 배길이어

오늘은 그 아들딸들이

환희와 기쁨에

웃으며 웃으며

너를 건너 조국의 품에 안기노라

어떤 학생들은 격동된 심정을 담아 즉흥시를 읊는가 하면 목소리를 합쳐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조국에 대한 노래, 고향에 대한 노래...

지나가던 일본사람들은 놀란 얼굴을 하고 황급히 길을 비켜 서곤 했다.

우리는 벌써 조국의 거리를 활보하는 심정이였다.

어제날 망국노의 후손들의 활기찬 모습!... 지금도 그때의 나와 동무들의 모습을 기억에 더듬어보느라면 눈곱이 찌릿해 지곤 한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들이었던가!

나는 이 학생집단의 단장이었다. 학교에서 얼굴을 익힌 학생들이고 그중에는 상급생들도 적지 않았지만 모두 자진해서 귀국하는 선진적인 학생들이어서 하급생인 나의 말도 순순히 잘 들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니이가다귀국자숙소에서 실무적인 수속문제로부터 유쾌한 오락회조직에 이르기까지 단장사업을 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그런데 유독 한 남학생만은 우리와 잘 섞이지 않고 판곳에 혼자 있곤 하였다.

얼굴이 창백하고 언제나 뿌연 인상에다가 탄력을 잃은듯이 느르해 보이는 체격, 우리는 그를 두고 《무력성체질》이라고들 불렀다.

이름은 김승대, 일본학교에 다니다가 몇달전에 우리 학교에 전학해 온 경력을 가진 고교부 3학년 학생이었다.

나는 그를 보면 《김승대》라는 이름보다 《무력성체질》이라는 별명부터 떠올랐다. 그말이 저도 모르게 입밖엔 나갈가봐 주의해야 할 정도였다. 모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오락회를 하거나 집체적인 사업이 제기될 때마다 나는 그를 빈번히 어느 구석진 곳에서 찾아 내곤 했다.

그의 오른쪽 눈섭우에 있는 팔알만한 귀미까지도 그의 창백한 얼굴과 더불어 신경질적인 《무력성체질》을 강조해 주는듯 했다. 게다가 목에는 목걸이까지 걸고 있어서 더 눈에 거슬렸다. 마지막에는 그와 마주 서면 내가 먼저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때로는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술병까지 꺼내서 훌쩍 마시여 나를 아연케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알아보니 유독 그만이 자기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요청에 의해 이 학생 귀국집단에 망라되었다는것이였다.

원래부터 성격이 깔끔했던 나로서는 그를 도저히 곱게 볼수 없었다. 줄곧 감격과 기쁨으로만 설레이던 내 마음은 《무력성체질》로 하여 종종 흐려지곤 하였다.

귀국선에 오른 학생들은 이제 머지 않아 조국땅에 가닿게 된다는 기쁨과 흥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여 설레이었다.

귀국선에 올라 첫 식사시간은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식탁에 여러가지 요리와 함께 오른 하얀 쌀밥, 나는 선뜻 수저를 들수 없었다.

밥사발을 두손으로 감싸진 나는 난생 처음으로 보는 조국의 쌀밥의 향취에 한동안 취해있었다.

일본땅의 쌀밥, 그것도 역시 하얗기는 일반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김이 무력무력 나는 따끈한 밥이라 해도 어쩐지 차거운 형광등의 색깔이 떠도는 랭기를 풍기고 있는듯 했었다.

그러나 조국의 쌀밥은 달랐다.

나는 밥알 한알한알을 세는듯이 입에 넣으며 그 맛을 음미해 보았다.

참으로 구수하고 맛이 있었다. 어쩌면 조국의 대지의 구수한 흙냄새가 풍기는듯 하고 어머니조국의 따스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듯 하였다.

귀국선에서의 첫날밤은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학생들은 밤새 이 호실, 저 호실을 다니며 노래도 부르고 법석 떠들기도 하였다.

조국이란 무엇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설레게 하는것일까!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단장인 나까지도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밤을 지새우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돌아 갔다.

배가 드디어 조선동해수역에 들어 섰을때 아직도 도착시간까지는 멀었으나 모두가 갑판에 나와 꿈결에도 그림던 조국의 기슭을 누구보다 먼저 보려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안타까이 파아란 하늘과 검푸른 바다가 잇닿은 수평선 저쪽을 그냥그냥 바라보았다

나도 선수에 나가 학생들과 함께 어린애마냥 흥분으로 젖어 있었다.

그런데 그속에서 유독 《무력성체질》만은 눈에 띄우지 않았다.

나는 그가 늘 쌍가 있군하는 선미쪽의 후미진 곳에 가보았다. 아니나다를가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 낫 잃은듯 들여다 보고 있는 그의 뒤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찌나 열중했던지 내가 다가가는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어깨너머를 들여다보던 나는 저절로 눈살이 찌프러졌다.

글쎄 목걸이의 로켓트(목걸이에 달린 사진을 넣게 된 장식품)를 열고 그속에 있는 웬 여자사진을 정신없이 들여다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곧 너그럽게 생각해 보려고 했다.

혹시 너동생이나 누이의 사진일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로켓트속 너자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어 보였다.

높이 틀어 올린 머리, 꼬리가 쳐들린 눈, 미묘한 웃음이 떠도는 입...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자즈 음악과 간드러진 웃음소리로 밤을 모르는 술집 《카르맹》이 떠올랐다.

그 여자이다. 남자들이 한번 걸려 들면 돈주머니가 비여야 나온다고 소문난 그 술집마담의 사진이였다.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 한동안은 말도 나가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가까이 오는 조국의 기슭을 남 먼저 맛으려고 가슴들을 설레이고 있는데 어독시그레한

구석에 쭈크리고 앉아 요사스러운 술집일본년의 사진이나 들여다 보고 있다니. ...아무리 조국이 어머니 품이라 하지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품어주겠는가. 어머니조국앞에 내가 다 민망스럽고 죄스러워 짐을 감할수 없었다.

다음 순간 나는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었다.

《동무도 조선청년이야요?! 제발 조국에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진에만 정신이 팔렸던 김승대는 내가 내쫓는 말에 깜짝 놀라 허둥거렸다.

그러건만 나는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아 책 돌아서 버렸다.

청진.

뜨거운 동포애가 흐르는 환호와 꽃바다! 조국동포들과의 감격적인 상봉!

청진초대소에서 수수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아주머니들이 뜨끈뜨끈하게 덥혀놓은 온돌방에서 일본땅 다다미방에서 나서 자라 싸늘해 질대로 싸늘해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 주던 기억은 오늘까지 인상깊게 남아있다.

어릴 때부터 꼭 신문기자가 되고 싶어하던 나는 희망대로 김일성종합대학에 추천 받았다.

무용을 잘하는 미혜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 화학기사가 되고싶어 하던 건일이는 화학전문학교에 가게 되었다.

나의 눈앞에는 불현듯 2년전 학예회때 일이 떠올랐다.

고베신문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예회는 학생들과 학부형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미혜의 바레무용독무차례가 왔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음악이 장내에 은근히 울려 퍼지자 관중들은 잔잔한 호수가에 앉은 기분이 되어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새까만 의상을 입은 흑조가 나오는것이 아닌가. 관중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용수의 세련된 무용동작에 섭취되어 조용해 졌다.

마술의 힘으로 백조가 되어 버린 공주의 설음, 그 감정과 함께 하얀 의상을 살 돈이 없어 검은 련습복을 입고 무대에 나와야 하는 설음까지 겹쳐 미혜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그러했던 미혜가 평양의 일류급 음악무용대학에 가게 된것이였다.

이처럼 우리 학생귀국집단은 모두가 자기의 희망대로 배치 받았다.

배치지로 떠나던 날, 우리는 뜨겁게 손 잡으며 서로서로 굳게 약속했다. 《조국의 참된 아들이 됩시다.》라고.

이리하여 우리모두는 조국의 방방곡곡으로 떠나갔다. 광풍이나 거친 물결이 아니라 조국의 어머니사랑이라는 따뜻한 강물에 실려...

그로부터 7년후 나는 희망대로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신문과를 졸업하고 XX신문사 기자가 되었다. 참으로 기뻐다. 온 우주를 안은듯...

일본에서는 신문기자를 《왕관을 머리에 얹지 않은 왕》이라고도 하였다. 그만큼 숭배의 대상이였다. 그런데 내가 바로 조국에 와서 소원대로 신문기자가 된것이다!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글을 많이 쓰자.)

이렇게 속 다짐한것은 물론이였다.

이처럼 나는 행복의 세례를 받았다. 그 나날에 이따금 그 말썽꾸러기 《무력성체질》에 대한 생각도 떠올랐었다.

그것은 그에 대한 그 어떤 애착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처럼 고마운 조국에 짐이 되고 있거나 앓을가 하는 우려, 조국에 대한 송구스러움때문이었다.

청진에서 동무들과 헤어질때 나는 동무들보다 한 발 먼저 평양으로 떠나게 되어 《무력성체질》 김승대가 어디에 배치받고 갔는지 알수 없었다. 그때 배에서 면박만 주고 따뜻하게 충고를 주지 못한것이 후회되기도 하였다. ...

기자생활을 시작한지 어느덧 15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아들을 둔 어머니가 되었으며 글도 펴고나 썼다.

그러던 어느날 부장이 나를 찾았다.

《○○기관차대의 기관사 김승대동무를 취재해야겠소. 그곳 통신원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그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에서 혁신자라고 하오.》

김승대? 나의 눈앞에는 언뜻 《무력성체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의 취재대상이 혹시 《무력성체질》인 김승대가 아니겠는지?

그러나 나는 곧 도리질을 하였다. 귀국길에서까지 일본술집녀인의 사진에 빠져 있던 그가 신문에 소개될만한 혁신자로는 도저히 되었을것 같지 않았다. 마른 나무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것과 비슷하다고 할가...

어떻든 나는 취재가방을 메고 출장길을 올랐다.

출장지에 도착하자 나는 먼저 기관차대 초급당비서를 만났다.

《기다렸습니다. 기자동무, 김승대동무를 널리 소개해 주십시오. 그는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사는 일본에서 온 동무입니다.》

첫 대면에 한 초급당비서의 말이였다.

《아니 일본에서 온 동무라고요? 몇차로 귀국하였습니까?》

나의 물음에 초급당비서는 대답했다.

《아마 주체50(1961)년도쯤에 귀국했을겁니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이름난 혁신자가 바로 《무력성체질》 김승대일것이라는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을까?)
《조금전에 승무를 끝내고 왔으니 지금쯤 대기실에 있을겁니다.》

나는 서둘러 김승대를 찾아 대기실로 향했다.
처음에 나는 그를 알아 보지 못했다.
내앞에는 얼굴이 구리빛인 어깨가 쩍 벌어진 억센 사나이가 나타났던것이다.

《김승대동무지요?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나를 찬찬히 마주 보던 그가 뜻밖에도 하얀 이발을 드러내보이며 환하게 웃는 것이었다.

《야 이거, 학생귀족집단…단장…단장동무 아니요?! 나를 모르겠소? 나 김승대요!》

《?!》
의심할바 없었다. 내앞에는 《무력성체질》 김승대가 서있었다. 그러나 옛날과는 전혀 다른 김승대였다. 그의 얼굴에 예나 다름 없이 있는것은 별스레 눈에 띄우던 오른쪽 눈섭우의 팔알만한 기미뿐이었다. 옛날에는 얼굴을 더 창백해 보이게 하던 기미가 이때는 구리빛 얼굴의 억센 기상을 더 돋구어 주고 있었다.

《정말 그 김승대동무가 맞아요? 꿈만 같구만요. 이런 믿음직한 로동계급, 기관사의 모습으로 된 승대동무를 만나게 돌출이야…》

조국에 짐이 될줄 알았던 김승대가 떳떳한 인간이 되어 나타났으니 그 기쁨과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나를 바라보며 김승대는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조국에서의 나날이, 조국땅이 나를 이렇게 변모시켰지요.》

(조국에서의 나날, 조국땅!)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추억이 뒤엉킨 류다른 취재를 시작하였다.

《말씀해주세요. 동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모될 수 있었는지를…》

그의 이야기는 멀리 흘러 간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였다.

…김승대는 고베시 신나가다역에 있는 철길아래 주런히 늘어선 《하모니카식》 살림집에서 태어났다.

승대의 부모들은 자그마한 신발재봉을 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새벽부터 밤까지 쉬임없이 달리는 열차의 소란스러운 덜커덩소리와 기적소리, 9대의 재봉기 돌아 가는 소음속에서 지나갔다.

승대가 학교갈 나이가 되자 총련계가 아니었던 그의 부모들은 그를 일본소학교에 입학시켰다.

총련분회장이 조선초급학교에 넣으라고 몇번이나 권고하였으나 부모들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소학교시절 남달리 공부를 잘했다. 소학교를 졸업할 때는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교장의 표창장까지 받았다.

중학교에 올라 가서는 수재라고 인정된 야마오까 아끼라라는 일본학생과 1,2등을 다투었다.

(나도 그학생을 알고 있었다. 아끼라는 우리 이웃마을에서 살았는데 자그마한 잡화상집 아들이었다. 온거리가 잠 든 깊은 밤에도 공부에 열중한 아끼라의 2층창문만은 불이 환히 켜져 있군 하던 기억이 난다.)

승대는 그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자기의 바라는바를 다 얻게 될것이다.

그러나 3학년애 올라갔을때 그에게는 첫 《좌절》이 닥쳐왔다.

그것은 늦가을 어느날의 작문시간, 교원이 칠판에 《희망》이라고 쓰고 그 제목으로 작문을 지으라고 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릴 때부터 쉬임없이 오가는 열차를 보며 자라온 승대의 머리속에는 철도정복에 흰 장갑을 낀 기관사들의 모습이 깊이 새겨 져 있었다. 그것은 곧 미래의 자기 모습으로 형성되고 말았다.

하여 그는 기관사가 되어 일본의 끝에서 끝까지 열차를 몰고 다닐 희망에 대하여 단숨에 엮어 나갔다.

다음날, 괜찮게 쓴 작문이 몇편이 교실뒤벽에 내붙여 졌다. 그중에는 승대의 작문도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쓴 작문앞에서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조선인학생이 항상 학교적으로도 성적이 앞자리를 차지하는것이 가슴에 걸려 있던 일본학생들은 이때라고 약속이나 한듯 떠들어 댔다.

《하하하…혜소가 짜오 와가쓰. (배꼽이 차를 훑인다는 어처구니 없다는 뜻의 일본속담)》

여, 조센징기관사를 본 일이 있어?》

《설마 일본열차를 조선땅에 몰고 가려는것 아니겠지?》

알뜰게도 녀학생들까지 《조센징기관사라니? 명치유신이라 없었지요. 앞으로 일본열도가 가라앉기 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호호호…》라고 뇌까리는 것이었다.

승대는 숨이 킁 막히는것 같았다.

일본학생들의 지껄임은 계속되었으나 그의 귀에는 더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조센징》, 《조센징》하는 소리만이 들려 올 뿐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듯 일언반구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야마오까 아끼라의 뒤모습이 모욕감을 더 질게 하였다. 그 자세에서는 경쟁자에 대한 《관대성》 조선학생에 대한 값싼 《동정》, 그보다는 《너는 나의 경쟁자가 될수 없다》하는 목소리가 너무도 력력히 들리고 있었다.

그 다음날 승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으나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

발길 닿는대로 걷던 그는 한적한 교외의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공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인적 드문 공지에는 누렇게 시들어 가는 잡초들만이 거칠게 면도한 늙은이의 턱수염처럼 들쭉날쭉한데 그속에 끼워 선 한포기 코스모스가 류달리 눈에 띄었다. 제일 꼭대기에 하얀 꽃송이 하나가 가을아 가지 말라고 애원이라도 하듯 한들거리고 있었다. 그 한송이 꽃으로 하여 공지는 더욱 쓸쓸한 감을 자아내었다.

그는 그 코스모스옆에 앉았다. 이 세상에서 그 가냘픈 외토리 코스모스꽃송이만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 줄것만 같았다....

신발공장, 고무공장이 많아 거기서 나오는 연기로 개인 날에도 푸른 빛을 잃고 항상 뿌잇한 고베의 하늘, 재빛으로 보이는 구름이 그의 머리위로 흘러 갔다.

한점, 두점...흘러 가는 구름을 멍하니 올려 다 보는 승대의 눈가에 어느덧 물기가 맺히더니 끝내 눈물이 줄줄이 흘러 내렸다. 모욕의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던 그였다. 억울한 그 사연을 집에 가서도 말하지 않은 그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자고 아득바득 일하는 부모들에게 차마 그 말을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는 눈물이 건잡을수 없이 흘러 내렸다.

승대는 그날 공지에서 하루 시간을 다 보냈다.

그런데 집에 돌아 오니 어머니가 반갑게 가방을 받아주며 《오늘도 공부를 잘했니? 좀 늦었구나. 어서 들어 가서 밥을 먹어라.》하고 따뜻이 맞아 주는 것이었다.

승대는 밥상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닭알부침, 고등어구이, 고기순대... 갖가지 반찬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라 하여 그에게만 특별히 차려주는 《특식》앞에서 그는 입술을 사려 물었다.

(래일부터는 학교로 가자. 그 누가 뭐라던 모든 것을 참고 공부만 잘하자!)

다음날부터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그때부터 승대는 병어리처럼 말이 없는 학생으로 되고 말았다. 싱긋 웃을 때마다 오른쪽뺨에 생기군 하던 볼우물도 흔적없이 사라졌고 항상 고베의 하늘처럼 뿌연 얼굴을 하고 다녔다.

마침내 승대는 중학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아끼라와 함께 그는 성적에서 학교적으로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다.

승대의 마음속 고충을 전혀 알리 없는 부모들은 소박한 《졸업축하연》까지 차려 주었다.

아버지는 술잔을 높이 들고 흐뭇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장하다. 장해. 어쨌든 실력으로 대학졸업증까지 타야 해. 이 아버지를 좀 바라. 학식이 없으니 집에서 이 모양이 아니냐? 내 그래서 너를 조선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승대의 마음은 괴로웠다.

(아버지의 말대로 공부만 잘한다고 하여 모든 희망이 이루어 질가? 조선사람은 기관사조차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부모들은 성적이 우수한 아들을 둔 자랑을 안고 생활비에서 적자를 내면서까지 승대를 고베시에서 한다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 학교에서도 승대는 야마오까 아끼라와 맞다들었다. 선수권쟁탈전에 나선 링그안의 두 권투선수처럼...

학급에 중학교동창생이 아끼라뿐인것이 다행이었다. 승대는 《작문사건》으로 인한 모욕감과 좌절감을 밀어 내고 공부에 전심할수 있었다.

승대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 갔을 때였다.

학교에서는 미국으로의 류학생선발시험을 치게 되었다. 학교적으로 제일 성적이 우수한 학생 두명을 뽑아 보낸다는 것이었다. 승미사상이 풍토로 되어 버린 일본땅에서 미국류학은 일본학생들의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승대 역시 일본학교에서 교육을 받은지라 그들과 같이 마음이 붕—뚧다.

학교적으로 가장 우수한 아끼라와 자기가 선발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모두 그렇게들 말하였다.

승대는 밤을 새우며 공부를 하여 선발시험을 나 무랄데없이 잘 치렀다.

며칠후 선발된 두 학생의 이름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끼라와 김승대가 아닌 다른 학생의 이름이었다.

승대는 그앞에 돌미륵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하였다. 왜 내 이름이 없는가. 이것은 시험점수때문이다. 아니다. 승대는 자기의 시험점수가 최고의 점수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를 밀어냈을가...

그는 문득 뒤에서 수군대는 학생들의 말소리를 들었다. 순간 그는 한방망이 얻어 맞은듯 비칠거리었다. 《조센징》이라는 말마디가 들린때문이었다. 바로 그것이였다. 조선사람이라때문이었다! ...

그는 그앞에서 묵묵히 돌아섰고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

그의 머리속으로는 부지중 지옥을 두고 읊었다는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나니 그저 보고 지나가라》하는 한 시인의 시구절이 떠올랐다.

그의 발길은 향방없이 터벌터벌 옮겨 졌다. 불시에 귀전을 때리는 파도소리에 멈춰 서고 보니 스마의 바다가 모래불이었다.

그는 모래불에 쓰러지듯 드러누웠다. 처절씩, 처절씩...

이전에는 깊은 정서를 자아내곤 하던 파도소리까지 송대의 마음을 아프게 긁어 내는것만 같았다.
(우리 조선사람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송대로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그가 얻어 낸 대답이란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것이였다.

그는 이이상 일본고등학교에 많은 학비를 내면서까지 다닐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그처럼 많은 기대를 걸어 온 부모들에게까지 자기가 받은 정신적타격을 안겨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며칠동안 가방을 메고 거리바닥을 헤맸다.

이전에 그를 위로해 주었던 교외공지의 하얀 한송이 코스모스마저 이제는 없었다. 그 공지에는 그사이 화학공장이 일어 서서 굴뚝으로 시꺼먼 연기를 내뿜고 있었던것이다.

이 끝목, 저 끝목을 헤매는 송대의 마음은 공허감으로 하여 허탈상태에 놓여 있었다.

어느날, 그날도 역시 가방을 멘채 거리를 헤매이는데 술집 《카르맹》앞에서 손님을 끌어 들이던 녀접대원이 그의 향방 없는 걸음을 띄어 보고 팔소매를 잡았다.

《도련님, 여기 들려 가세요.》

송대는 처음 당하는 일에 당황하여 허둥거렸다.

《아니, 난 저—》

그러거나 말거나 녀접대원은 능숙한 말솜씨로 송대의 팔을 놓지 않고 《카르맹》안으로 끌어 들였다. 싫다는 사람도 끌어 들이는 재간을 가진 그 녀자에게 방황하는 송대쯤 끌어 들이는것은 식은 죽 먹기였던것이다.

어둑시근한 복도를 지나 또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은 불그레한 조명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짝사랑을 하소연하는 너가수의 쥐여 짜는듯한 노래소리가 애달프게 울리고 있었다.

여러 식탁들에서는 남자들과 어울려 거의 반라체의 녀접대원들이 술을 권하니 마시거니 하고 있었다.

녀접대원은 송대를 카운다에 앉아 있는 한 녀자에게로 데려 갔다.

《마담, 새로운 도련님이예요.》

그녀자가 송대를 바라보았다.

한송이 빨간 장미가 꽃혀있는 높이 틀어 올린 머리, 꼬리가 쳐들릴사한 새까만 눈, 장미빛의 입... 접대원들과는 달리 온몸을 새까만 공단도레스로 감쌌는데 가슴에도 역시 빨간 장미꽃 한송이가 꽃혀 있었다.

송대를 보자 그의 입에는 대변에 사람의 뱃까지도 잃게 하는 미묘한 미소가 피어 올랐다.

영화나 TV에서만 미녀들을 보아 온 송대로서는 어리둥절해 지고 숨까지 막히는듯하였다.

카운다에서 나온 마담은 손수 송대를 식탁에 앉혔다.

《귀여운 도련님, 무슨 술을 드릴가요? 위스키? 아니면 붉은 포도주? 흰 포도주?》

송대는 얼떠름해 가지고 마담이 끄는대로 의자에 앉아서 꼭두각시처럼 이래도 저래도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어느새 송대의 앞탁에 접대원이 붉은 포도주와 가공낙지, 땅콩을 한접시씩 날라왔다.

그런 경황에서도 송대의 머리에는 치르어야 할 술값이 걱정되였다.

(그렇지. 내 안주머니에 어머니가 준 월사금봉투가 있지. 예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바엔 마시고 보자. 속도 타는데...)

옆에 앉은 마담은 《어서 들어요.》하며 《상냥》하게 남실남실 넘치는 붉은 포도주잔을 송대의 손에 들려 주었다.

송대는 눈을 꼭 감고 단번에 술잔을 들이켰다.

달큰한 술이 목젖을 적시며 속으로 들어가 온몸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두잔, 석잔, 마침내 머리가 핑 돌고 온몸이 스르르 녹아 내리면서 아무생각도 없어 졌다.

마담은 물기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 보았다.

《술이란 묘하거든요. 술만 마시면 만사름이 잊혀지거든요. 옛 노래나 하나 들려 드릴가요?》

카운다뒤에서 이 세상과 리별하는듯한 애수에 찬 노래소리가 느릿느릿 흘러 나왔다.

술은 눈물이더냐

한숨이더냐

마음속의 번민을 버릴 곳이라

...

아, 아, 이 붉은 포도주도 송대의 마음속으로 흐르는 피눈물만큼이야 진하랴. 마시자, 마시자, 이 마음속의 번민을 다 끌어 버리자...

밤도 깊어서야 술집에서 나오는 송대의 귀가에 대고 마담은 소곤거렸다.

《고민에 빠지면 또 찾아 와요. 세상은 넓어도 도련님 같은 사람이 찾아 올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애수와 절망에 절은 인생의 속삭임은 송대의 가슴속에 깊이 찌르고 들었다.

마담의 머리와 가슴에 장식된 빨간 장미가 송대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또 한차례의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청춘기에 들어 서고 있는 소년이었다. 그에게는 쓸쓸한 코스모스보다 빨간 장미가 더 마음에 들었다. 코스모스에는 애수만이 있었다면 빨간 장미에는 녀인의 빨간 입술 같은 유혹이 있었다.

이리 비칠 저리 비칠 하며 겨우 집을 찾아 들어가자 부모형제들의 아연실색한 얼굴들이 눈앞에 희미하게 안겨 왔다.

어머니가 먼저 그를 부축하며 다급히 물었다.

《너 이게 어찌된 일이나?!》

《어머니 미안해요... 나...나... 한잔 했어요. 속... 이 속이 타서요...난 미끄러졌어요. 조선사람인 탓에... 미국류학길에서 떨어 졌단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구?!!》하고 되물었다.

《아버진 실력이 있으면... 다 된다고 했지요?... 천만의 말씀 난 망했어요... 공부해선 뭘해... 신발 재봉질이나 하고 말겠어요...》

《승대야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일본에도 대학은 많다. 공부는 계속 해야 한다. 오늘은 꼭 자거라.》

아버지는 역시 남자여서 아들의 마음을 대범하게 이해해 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의 머리말을 걱정 어린 얼굴로 지켜 앉아 밤새껏 한숨을 쉬었다.

그 다음날 승대의 발길은 여전히 학교로는 옮겨지지 않았다.

그는 또 술집 《카르맹》으로 향했다...

승대는 점점 그 나락으로 깊이 빠져 들어 갔다. 그거은 마치 깊이를 알수 없는 진펄과도 같았다. 빠져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부모들의 피땀이 스민 월사금도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주머니에 넣어 주는 용돈까지도 모두 《카르맹》 술집마담의 돈궤에 흘러 들어 갔다. 그 유혹은 한도를 넘어 승대는 사전과 참고서들을 모조리 고서점으로 내갔고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돈지갑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그는 이미 순진하고 착했던 이전의 승대가 아니었다. 알콜중독으로 얼굴은 해쓱해 지고 눈빛은 거뭇거뭇해 졌으며 학생대복대신 분홍색와이샤쓰를 입고 뼈것이 술집을 드나들게 되었다.

그제야 승대의 부모들은 때 늦은 후회를 하면서 총련분회장을 찾아 갔다. 그리하여 승대는 고베조선중고급학교에 편입하게 되었다.

승대의 술집출입은 좀 떠졌으나 그의 낮은 여전히 그 《진펄》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가정에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불안의 씨앗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부모들은 그를 학생귀국집단에 망라시켜 조국에 맡길것을 결심하였다...

조국에 귀국한 승대는 함흥에 있는 기계전문학교에 편입되었다.

전문학교를 졸업하였을 때 그는 공업대학에 추천을 받았으나 기관사가 되는 길을 택하였다. 일본땅에서 받은 모욕이 용이로 박혀 있는 그여서 그것들이 보란듯이 기어코 기관사가 되고 싶었던것이다.

그는 기관차대에 배치 받았고 기관사조수로 일하였다.

하루하루 평범한 나날들이 흘러갔다. 승무가 끝나면 휴식하고 승무시간이 되면 또 기관차에 오르고... 휴식할 때면 영화관에도 가고 극장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적당하게》 한잔 마시기도 하고 기관차에 오르면 조사석에서 열차의 전도와 후부감시를 하며 기관사에게 소리쳐 알리고 기관사의 말을 규정대로 복창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여 걱정

없는 생활이었다. 이런 생활의 나날이 지나가면 그도 기관사로 될것이었다.

《재미 있었습니다. 흥겹기도 하구요. 사실 우리 생활에서야 자기 할일만 제대로 하면 뭐 걱정할게 있습니까? 실업자가 될 걱정이 있습니까, 세금걱정이 있습니까... 난 모든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 할일을 했는데도 칭찬해 주고 속보에도 내주고 끝 기관사가 될것은 확정적이고... 흥겹더군요.》하고 김승대는 웬일인지 말의 내용과는 반대로 흥겨운 어조가 아니라 머리를 흔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비판도 더러 받기는 했지만 난 꿈만하게 여겼습니다.그거야 내가 더 잘되라고 도와주는거라 느낄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넌 언제면 로동계급맞이 나게 되겠나?>하는 기관사의 말을 한두번만 아니게 들었지만 그 말도 역시 흥겨운 기분으로 넘겨 버렸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 나는 일하는 사람이니 로동계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껏 달리던 로선이 달라 졌습니다. 고원쪽으로말입니다.》

창밖에서는 차갈이작업이 진행되는듯 기관차의 동음과 칙칙거리는 압축공기 흐르는 소리, 덜커덩 거리는 편걸고리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승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쪽 로선으로 첫 승무하던 날이었습니다...》

...고원역에 도착하여 승대가 기관조사자리에 앉아 역구네를 내려다 보고 있는데 한 아바이가 검차마치를 들고 차바퀴쪽으로 다가가는것이 보였다.

승대는 한동안 그 아바이를 측은하게 내려다 보았다.

나이가 많아서도 차바퀴와 함께 사는 늙은이, 일본땅이라면 차창으로 내던지는 빈 밥판이나 과일껍질세례를 반군 할 《차바퀴인생》이었다.

승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관사는 열른 운전실에서 내려 아바이에게 깽뚝이 경례를 하는것이였다. 승대는 별을 단 기관사의 행동이 의아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그런데 기관사는 그의 생각을 알아 채기라도 한듯 그에게 내려 오라고 하였다.

승대는 더욱 의아해 저서 내려 갔다.

《인사하게. 검차원아바이네.》

(《차바퀴인생》에게?)

그러나 기관사의 말을 건승 급석해 보였다.

승대를 한번 힐긔 쳐다본 아바이는 《새로 온 기관조사인가.》하고는 차바퀴으로 몸을 숙였다.

기관사는 그를 앉은걸음으로 따라 가며 물었다.

《영희가 손풍금을 그냥 합니까?》

《웬걸. 지금은 지휘를 한다나.》

《지휘를 해요? 저런!》

《그걸 하면 술한 악기소리들속에서도 틀리는 소리를 제껴 잡아 내게 된다더군.》

승대는 대뜸 아바이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아마 딸이 예술단에 있는 모양이구나. 지휘를 한다? 녀성지휘자면 대단하구나. 그런데 왜 자기 아버지를 이런 검차마치나 들고 다니는 《차바퀴인생》으로 살게 하고 있을가?)하는 의문에 싸였다.

승대는 차가 역을 떠난 후 기관사에게 물었다.
《저 검차원아바이의 딸이 어느 예술단 지휘잔가요?》

《딸이 예술단에?》

기관사는 잠시 얼퍼름해 있더니 마침내 승대의 묻는 뜻을 깨달은듯 껄껄 웃었다.

《영희란 딸이 아니라 아바이의 손녀일세.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

《그런데 지휘를 한다지 않았습니까?》

《오—그것 말인가? 중학교 예술소조에서 지휘를 한다는거지.》

《그—래요?》

글쎄, 그러면 그럴테지. 승대의 흥미는 단번에 식어 버렸다.

그러나 그의 흥미에는 관계없이 언제 어느 시각 어떤 날씨에 역으로 들어가나 역구내에는 김석범아바이가 서있었고 검차마치를 들고 차밀을 오가며 딱따구리 나무 쫓듯 차바퀴며 련결볼트나트들을 재빨리 두드려 나가곤 하였다.

승대에게는 그의 모습이 마치 전철기나 통표반이 대 같은 고원역의 고정시설처럼 느껴졌다. 때때로 그의 곁에서는 중학생교복차림의 처녀애가 보이기도 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쳐 들고 따라 다니고 밤이면 불을 비쳐 주며 따라 다니었다. 승대는 그 모습에도 익숙해 졌다. 그러나 역에 전철기가 하나 더 생겼다는 식의 느낌에 지나지 않았다.

눈보라가 울부짖는 어느 겨울날 새벽이었다. 그 날도 역구내에서는 김석범아바이가 변함없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관사는 차가 멎기 바쁘게 뛰어 내려 갔다.

《아바이... 수고하십니다.》

《수고야 자네들이 하지.》

아바이의 털모자에도 눈섭에도 온통 성애가 하얗게 붙어 있었다.

기관사는 역으로 가며 승대에게 전지를 주었다.

《아바이가 검차하는걸 비쳐 주게.》

겨울새벽이라 아직은 거의 캄캄했던것이다.

승대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차바퀴를 두드려대는 아바이에게로 다가가 불을 비쳐 주었다.

《아바이, 아직 멀었나요?》

《...》

대답대신 마치소리만이 계속 울렸다. 승대는 지루해 졌다. 손발이 시려 들었다.

《아바이, 그건 전 기술역에서 다 본거예요. 고장이 없었어요. 보나마나예요.》

《뭐라구?!》

아바이는 버럭 소리 질렀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고 나서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차란 한바퀴 굴러 갈 때 다르고 두바퀴 굴러갈 때 다른거야. 오늘도 어제 같거니 했다간 랑패를 볼 수 있다네.》

(흥!) 승대는 속으로 코웃음치며 눈보라치는 하늘만 쳐다보았다. 아바이는 그냥 차밀에서 마치를 딱딱거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버럭 소리 질렀다.

《뭘해? 불을 비치지 않구!》

승대는 짙끔하여 불을 비치었으나 점점 약이 올랐다. 《차바퀴인생》이 기관조사에게 큰소릴 치다니?...

석범아바이는 그 다음에도 한동안이나 차바퀴를 두드려 보고 살펴 보고 하더니 승대를 불렀다.

(정말 시끄럽게 구네.)

속으로 투덜대며 가까이 다가왔던 승대는 다음날에는 와들 놀랐다.

《앞대차의 오른쪽 두번째 바퀴살에 균열이 갔네.》

《예?!》

가슴이 다 싸늘해 졌다. 그러나 육안으로 아무리 봐야 알아 볼수 없었다. 그러자 아바이가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주었다. 머리칼보다 더 미세한 실금이 보였다. 승대는 아바이를 놀랍게 쳐다보았다.

《아바이, 아바이의 눈에는 확대경이 달려 있는게 아닙니까?》

아바이는 그의 경탄에 씩씩하게 대답했다.

《이런것도 알아내지 못한다면야 무슨 검차원이겠나?》

승대는 꿈뚱 얼어서 얼음덩이처럼 된 아바이의 손을 덥석 잡아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아바이... 아바이가 아니었으면...》

...

《하지만 나는 잊을수 없는 그 추운 날이 석범아바이와의 마지막상봉으로 될줄은 몰랐었습니다.

다음번 승무때 저도 모르게 아바이와의 상봉을 고대하며 고원역에 들어 섰는데 언제나 한본새로서 있곤 하던 역구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지 쓸쓸하고 서운한 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관사에게 물었습니다. <석범아바이가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하구요.

그런데 기관사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바라보니 그의 두볼로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바이가 어떻게 되셨는가요?>

기관사는 한동안 지나서야 대답했습니다....

<승대, 석범아바이는 며칠전에 세상을 떠났네.>

<예?!>

그날에야 나는 석범아바이가 어떤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후에는 우리 나라의 첫 세대기관

사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시수송에서 위훈을 새운 공화국영웅이라는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는 전후에는 조국해방전쟁때 입은 상처로 기관사를 할수 없게 되자 자진하여 검차원으로 일했다는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차바퀴인생>이라고 마음속으로 멸시하기까지 했으니...

김승대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말을 이었다.

《그때에 비로소 나는 조국땅에서 살고 있는 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비범한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관사에 대해서도 우리 기관차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우리 조국의 사람들에 대해 다 알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배운다는 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후 승무의 나날, 고원역이 가까와 올때면 승대의 마음은 그지없이 허전해 지곤 했다. 석범아버이가 없는 역구내는 언제나 텅빈듯이 느껴지곤 하였다.

그날도 렬차는 승대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미끄러지듯 고원역구내로 들어섰다. 어둑어둑한 새벽이었다.

승대의 시선은 자연히 아버이가 서 있곤 하던 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비여 있을줄 알았던 그 자리에 그 누군가가 서 있지 않는가.

(착각인가?)

착각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웬 낯선 처녀가 서있었다.

그 처녀가 검차마치를 들고 렬차로 가까이 왔을때 승대는 너무도 놀라와서 차에서 뛰어 내리어 불쑥 물었다.

《동무가 검차원이요?》

《예.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처녀는 아름다웠다. 수수한 철도복차림이었으나 날씬한 몸매에 철도모자밑으로 엿보이는 그의 얼굴은 새벽빛때문인지 꿈속에서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그가 차바퀴에 허리를 굽힐 때 승대는 부지중에 그를 막아 나설번 하였다. 검차마치를 들고 차바퀴밑으로 기어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처녀여서였다.

《왜 그러니까?》

승대의 이상한 거동에 처녀는 의혹을 품고 쳐다보았다.

《아니, 그— 저—》

입을 열고 보니 할말이 없었다. 당황해 지기만 하는데 기관사가 상반신을 내밀며 소리치듯 물었다.

《영희 아니냐?》

기관사는 차에서 거의 날아 나오듯이 뛰어 내렸다.

《영희야!》

《아저씨!》

(영희? 영희라면...) 승대는 석범아버이에게 우산을 받쳐 주거나 불을 비쳐 주며 따라 다니던 중학생처녀애를 기억해 냈다. 바로 그였다. 석범아버이의 손녀였다.

기관사는 처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지켜 보더니 그의 손에 쥐인 검차마치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할아버지의 검차마치로구나.》

《예.》

눈보라를 몰아 가는 바람소리만이 역구내를 울리고 있었다. 달아 올랐던 차바퀴들이 식으면서 켑—켑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처녀는 언뜻 생각에서 깨여 난듯 몸을 돌렸다.

《아저씨, 전...》

《그래 검차를 해야지.》

차밑에서 딱딱거리는 마치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를 눈으로 따라 가며 지켜 보는 승대에게 기관사는 말했다.

《저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처럼 검차원이 되겠다고 했네. 그래서 예술소조에서 음악을 했지. 음악을 하면 귀가 예민해 진다고 말일세. 그리고 차그마한 이상소음이라도 잡아 내는것을 배우려고 지휘를 하게 되었다네.》

저에는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할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별써 검차원의 일을 다 배웠지...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가 잡고있던 검차마치를 잡고 할아버지가 섰던 자리에 섰지...》

마치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단조로우면서도 수천수만마디의 말보다 더 심오한 뜻을 말해 주고 있는 검차마치소리...

《그 소리는 나에게 말해 주는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다르게 살수 없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것이 우리의 조국이다 하고말입니다. 그 소리는 나의 귀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역을 떠나 달릴때에도 승무를 마치고 휴식할 때도 계속 울렸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하고말입니다.》

...승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나는 이름할수 없는 감동으로 하여 한동안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승대동무자신이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것 같습니다? 없었을겁니다. 있을수 없지요.》

《...》

《그리고 부탁인데 나에 대한 기사는 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나친 겸손이 아닐까요?》

나의 말에 승대는 흰구름이 흘러 가는 먼하늘을 바라보며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내 귀가에는 아직도 <조선사람이 기관사가 되면 배꼽이 차를 꿰이겠다>고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웃어 대던 일본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는듯 합니다.

그들도 이제는 어른들이 되었겠지요. 지구주위를 적어도 백바퀴쯤 돌 정도로 무사고주행을 한 다음에 <이 김승대가 당당한 조선의 기관사가 되었다>고 신문에 큼직하게 한판 내어 주십시오. 바다 건너 섬나라에까지 알려 지도록...》

나는 떠나기에 앞서 귀국선에서 나의 분노를 자아냈던 레의 그 목걸이를 어떻게 했을가 하는 너자로서의 알곳은 호기심이 생겨 나 그에게 물어 보았다.

그러자 김승대동무는 나의 물음에 허구프게 웃었다.

《그 목걸이는 그때 바다가에 던져 버리고 말았지요. 귀국선에 올라 조국땅을 가까이 하고 보니 일본땅에서의 악몽같은 나날들이 떠올라 그 목걸이를 들여다 보고 있었지요. 그러는 나를 보고 단장동무는 소리쳤지요. 동무도 조선청년인가구... 단장동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생각되는바가 크더군요. 그래서 저주로운 지난 날과 결별하는 심정으로 또 나도 조선청년답게 살아 보려는 결심으로 그 <기념품>을 바다속에 수장해 버리고 말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나를 바래 주던 승대동무가 문득 《참 야마오가 아끼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소?》 하고 물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몇달전에 방문단으로 온 동무한테서 들었는데 15년형을 지고 감옥신세가 되었다는거요.》

《예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때 미국류학을 간다지 않았어요.》

《나도 대충 들었는데 미국류학을 갔다가 7년만에 돌아와서 한두해 지난 후 어느 회사 사장네 아이를 유괴하였다는거요, 그리고 그때부터 10년동안을 아이의 부모에게서 돈을 짜내다가 작년에 붙잡혔다고 하요.》

《정말 세상일이란... 모르겠군요.》

나는 이렇게 말할수 없었다.

평양행 열차에 앉아서도 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였다. 어떻게 수재로 전도가 양양하다던 아끼라가 그런 어린이랍치범이 되었을가.

문득 나는 일본에서 살때 보았던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그 영화는 천국과 지

옥같은 빈부의 차이에 분노한 주인공이 호화주택에 사는 아이를 유괴함으로써 사회에 반항하는 이야기였다.

나에게는 그 영화가 마치 아끼라의 미래를 그린 영화였던것처럼 생각되었다.

정말 그렇지 않았을가. 그런것을 두고 운명의 귀결이라고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붕- 차창밖에서 기적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지구를 백바퀴쯤》 하던 승대동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밝아 진 기분으로 차의 진동에 몸을 맡겼다.

×

그때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나는 조국에로의 귀국실현 40돐기념 방송야회에 취재차로 참가하였었다.

무대에는 그동안 조국을 위해 다소나마 이바지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그속에는 승대동무도 있었다. 로력영웅메달을 가슴에 단 그의 모습이 무대에 오르자 나는 누구보다 먼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제는 중년기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짙어진 승대동무의 가슴에 여러개의 훈장과 함께 빛나는 영웅메달.

(승대동무,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제는 조선의 어엿한 기관사가, 영웅기관사가 되어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자랑하게 되었군요.)

이어 이름난 예술가들이 소개되었다. 그속에는 그때 같이 귀국하였던 미혜도 있었다. 분명 그는 일본땅에서 백조의 의상이 없어 검은 의상을 입고 눈물을 머금고 백조의 춤을 추었던 그 미혜였다.

미혜는 그동안 학생소년궁전에서 체육무용후비 양성사업을 잘하여 공훈예술가가 되었던것이였다.

무대에는 박사메달을 단 과학자, 기술자들도 십여명이나 올랐다. 그속에는 귀국당시에 안경을 꺼서 《근시》로 불리웠던 건일동무를 비롯하여 이름은 생각나지 않으나 낯익은 동무들이 또한 여러명 되었다.

그날 우리는 방송야회가 끝난후 반갑게 만났다.

그것은 거의 40년전에 귀국의 물결에 실려 온 《씨앗》들의 뜻 깊은 상봉이였다.

그들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밤, 나는 어째선지 아끼라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슴에 금별메달이 빛나는 승대동무의 조선로동계급다운 장한 모습, 감옥에서 출옥했을 수염이 덜 수룩한 전과자 아끼라의 모습...

나는 승대동무에게 그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다른 동무들도 모두 들었다.

《참, 어찌먼!》

우리는 한동안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것은 할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을 활짝 꽃 피워준 어머니조국의 고마움이 가슴 가득 차올라서였다.
그 밤 우리는 늦도록 앉아 있었다.

이제는 나의 긴 이야기를 끝내야 할것 같다.
나는 이야기에서 행복한 운명의 혜택을 받은 우리들, 《씨앗》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푸르싱싱 자라고 활짝 꽃 피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은 씨앗들에 대하여...

그러나 이야기를 마치면서 보니 나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으로 되어 버렸다. 다시 생각해보니 달리는 될수 없었다.

《씨앗》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어느 땅에서나 풍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여 나는 나의 이야기를 《대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로 하였다.
아, 어머니대지여...

할머니는 꿈속을 거니시네

리진철

할머니는 바라보시네
주름진 이마에 손을 얹고
지평선 아득히 넓은 들을
바라보니 눈뿌리만 시여 들고

울망줄망 뽕기논이 바다되어 출렁이니
뜨락뜨르도 두둥실 떠가는듯
푸른 파도 늠실늠실 일어 번지니
이랑마다 쌀산이 움썩움썩 솟는듯

이 땅에 태를 묻고
백살도 넘어 사신 할머니
이 논판 저 논판 해종일 오락가락하시네
보면 볼수록 꿈을 꾸는것만 같아!

땅이 한숨이고 원망이던 그 세월엔
눈을 감아도 꿈조차 없더니
땅이 기쁘이고 자랑인 이 세월엔
눈을 떴어도 나날이 꿈속이었네

꿈이면 깨지 말아 잠 못 드셨네

열흘같이 기름진 앞벌
죽어도 소원이던 그 땅에
제 이름 석자 말뚝되어 박히던 날에...

꿈 아닌 꿈이어서 놀랍기만 하였네
넓은 뜨락에 벼가마니 솟아 올라
하늘의 달도 가리울적에도
꿈속에 선너 같은 도시쳐너
손자며느리되어 큰절 올리던 날에도...

꿈 같은 세월에 복받은 할머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한이 없다시더니
또다시 꿈 같은 천지개벽앞에
머리를 흔들며 말씀하시네

—아무렴! 이 땅에
꿈같은 일 얼마나 더 많을라구
이제 백살은 더 살아야겠군!—
옛그제 받으신 백둘상
할머니에겐 마치 첫돌상인듯!

소설문단에 핀 지성의 꽃

—소설가 강귀미의 단편소설들을 읽고—

박춘력

한떨기의 꽃을 가지고는 아름다움을 다 알수 없고 한떨기의 꽃으로는 백화만발한 꽃동산을 이룰수 없다.

오늘 우리의 소설문단이 그야말로 백화만발한 꽃동산을 이루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것은 소설문학의 앞장에 서서 형상의 독특한 세계를 창조해나가는 소설가들의 개성으로 갖가지 빛갈과 생김새와 향기의 조화가 이루어 지기때문이다.

소설가 강귀미는 자기 작품의 독특한 향기와 청신한 자태로 소설문단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그의 소설들은 새로운 생활철학을 담은 높은 지성도로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하고 있으며 짙은 향기와 색깔로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예술적형상과 기교면에서 볼때 그의 소설들은 극히 작고 평범한 사실에서 극적인 계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서적으로 침투하여 생활적인 감정으로 꾸밈없이 소박하게 그린 생활묘사, 그 어떤 특이하고 인위적인 과장과 멋부림이 없이 생활의 논리를 따라 순탄하고 명백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면서 굴곡도 있고 극도 있게 감정을 조직하여 견인력을 주는 구성미, 일상생활적인 사실에 기초하면서 여성다운 섬세성과 아름다운 정서가 숨배인 진실한 세부묘사로 특징 지을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그의 소설들은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우며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작품은 작가의 문학정신의 반영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에 각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던 그는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조선중고급학교에 다니다가 작가가 되려는 큰 포부를 안고 16살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 혼자서 결연히 주체 50(1961)년 5월 귀국선에 올랐다.,

어머니조국은 조국에서 문학공부를 하여 조선의 작가가 되려는 그의 소원을 귀중히 여겨 주면서 희망을 꽃 피우라고 그를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에 보내주었다.

대학시절은 그에게 있어서 조국을 알고 생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작가로 되는 인간수업을 한 뜻 깊은 나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마운 은덕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기관의 기자로 일하면서부터 그의 문필활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그의 본격적인 작가수업과 문학창작이 시작되었다.

작가의 노력은 크게 세가지 분야, 즉 생활탐구, 독서, 창작에서 나타난다고 할수 있다.

문학에 대한 남 다른 포부와 지향은 창작기량을 연마하는데 남다른 정력을 쏟아 붓게 했고 그만큼 성실하고 진지하게 문학을 대하게 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가 높은 지성세계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잘 형상한 작품은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고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화시킬수 있다.》

소설가 강귀미의 작품들을 읽고 이야기할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에 생활철학과 미의 세계가 생활적으로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감동깊게 펼쳐 지는것이다.

문학작품에 작가에 의하여 발견된 새로운 생활철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철학성과 관계되는 문제인 동시에 지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생활의 귀중한 진리를 담은 심오하고 독창적인 내용이 밝혀 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작품의 높은 지성도를 느낄수 있다.

단편소설 《표창장》, 《담임선생》, 《삶의 위치》 등은 생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 작가의 철학적안목과 지성적인 사고력, 높은 형상력으로 작품의 지성도를 담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편소설 《표창장》의 창작경위는 생활에 대한 그의 독특한 안목과 자세를 알게 한다.

어느날 신문사의 여성기자들 몇이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웃으며 자기 남동생의 결혼식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인즉은 남동생의 새색시가 시집 오면서 폐장감에 색 날은 군사로청표창장(당시)을 넣어 가지고 왔다는것이 다.

점심시간에 여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중앙사로청표창장이면 또 몰라라 군사로청표창장을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오다니...

그러나 이때 작가는 그 이야기에서 뇌리를 치는 그 무엇을 느꼈다. 아니다. 군사로청표창장을 시집 오면서 소중히 싸가지고 온 그 처녀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 인간이나, 번쩍이는 훈장을 달고 온것보다도 군사로청표창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없이 기특하고 돋보였다. 이런 충동속에 씌여진것이 《표창장》이다.

단편소설 《표창장》은 가장 평범한 작은 보통사실 속에서 생활의 큰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생활의 씨앗을 심어 형상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작품으로서 사람들을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소설에 형성된 것처럼 아무데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농촌가정의 평범한 처녀가 시집오면서 레장감보파리속에 군사로청표창장을 꽃보자기에 정히 싸가지고 왔다.

중학교에 다니는 대철지배인의 조카애가 자기도 탔다고 자랑하는 군사로청표창장을.

(철부지애까지 탄 저런 표창장을, 그것도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랫동안지 누르스름해 진걸 시집오는 날 가지고 오다니...)

대철은 어이없이 허구프게 웃고 결혼식에 왔던 친척들은 얼굴들을 마주 보며 서로서로 눈짓을 하며 가볍게 웃음을 터뜨린다.

군사로청표창장을 시집오면서 가지고 온 처녀의 소행이 과연 남의 웃음거리를 자아낼 그런것일까.

작가의 사색은 깊이 있게 승고한 세계로 이어졌다.

작가는 군사로청표창장에 깃들어 있는 보통사람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소행, 바로 여기에 형상의 력점을 찍었다.

대철지배인은 20년전에 자기도 저 색시와 똑같이 군민청표창을 탄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생의 크나큰 기쁨과 활력을 받아 안았고 친구들도 동구밖까지 나와 기다리다가 목마까지 태워 주었다. 하기에 그는 첫 표창장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열정을 안고 오늘에로 달려 왔고 지금은 큰 공장의 지배인으로, 영웅으로까지 되었다.

헌데 오늘은 그 시절의 체험도 다 잊어 버리고 높은 직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 세상에 이름이 뜨르르하게 알려진 사람들속에서만 그 무엇인가 큰것, 아름다운것을 찾으려고 한다.

노상 《특별한것》에 에워 싸여 흘러 가는 생활의 격류속에서 《특출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의 벗이 된 대철지배인이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 볼 기회를 처녀가 준다.,

특별한것이 없는 평범성, 바로 여기에 인간의 진실이 있고 순결이 있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것이 있는것이 아니었던가!

대철은 머리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색시에게서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을 보는것이다.

인생을 새 출발하는 날에 《자그마한》 표창장을 소중히 간직해 온 녀성.

세상에서 가장 청렴한 녀, 고결한 인간의 모습이 이 녀자에게 있는것이 아닌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대한것은 바로 농촌 어디에서나 만날수 있는 저 소박한 인간속에 있구나.)

대철은 자기를 말없이 깨우쳐 준 이 평범한 농촌 처녀, 평범하면서도 평범치 않은 이 셋째 제수를 눈시울이 뜨겁도록 고마와 한다.

작가는 군사로청표창장을 가지고 온 처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고상한 세계로 끌어 올린다.

군사로청표창장을 받아진 대철이 아버지.

《애야, 네가 정말 장하구나.》

새 며느리의 표창장을 두손으로 받쳐 들고 대견해 하는 아버지의 웅심 깊은 목소리.

그 어떤 표창장앞에서도 칭찬을 모르던 아버지, 아들의 영웅메달앞에서도 칭찬을 모르던 아버지이다.

셋째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평가는 웅당한것이었다.

조국과 인민의 자그마한 평가를 가슴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는 깨끗한 그 마음을 어떤 공로에 비기겠는가.

이것이 작가가 시대앞에 소리높이 웨치는 생활의 진리, 생활의 철학에 대한 긍지 높은 목소리이다. 여기에 시대와 인간을 보는 그의 남다른 미학적안목이 있다.

단편소설 《표창장》은 이렇듯 가장 평범한 이야기에 심오한 생활철학을 담고 인간의 참다운 미를 천명함으로써 아름답고 고상한 미의 세계, 철학세계를 감명 깊게 펼쳤다.

문학은 인간생활의 미를 찾아내고 그린다. 작가가 현실에서 무엇을 아름다운것으로 보며 그것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그려 내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지성도를 재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주체의 미학관은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며 그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가장 아름다운것으로 본다.

강귀미는 무릇 사람들이 하찮은것으로 여기는 군사로청표창장을 색색시가 시집 오면서 꽃보자기에 정히 싸가지고 온 이 사실에서 우리 시대 인간의 성격을 보았고 생활철학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평범한 보통 농촌처녀의 이런 순박한 모습에서 인간의 미를 본 작가의 미학적리상은 소설을 읽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작품에 생활철학이 담겨져 있다는것은 거기에 작가의 사색이 비껴 있다는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 사색의 심도에 의하여 작품의 지성도가 좌우되는것이다.

자기의 첫 담임교원을 추억하면서 창작한 단편소설 《담임선생》은 이에 대한 실례로 된다.

단편소설 《담임선생》은 조선사람으로서의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거치른 일본땅에서 후대들을 애국의 녀를 지니도록 교양하는 사업에 자신의 진심을 바치는 한 평범한 교원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후대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는 사업에 헌신하는 교원들의 생활을 취급한 문학작품들을 지금까지 많이 창작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그토록 깊은 인상을 안겨 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일본땅에서의 특유한 생활을 취급한데서만 오는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단편소설이 취급하고 있는 생활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레사로우며 그것은 현실속에서 흔히 찾아 볼수 있는 생활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그 어떤 영웅적위훈을 세운 사람도 아니며 기이한 운명을 타고 난 사람도 아니다. 그는 이국땅에서 재일조선인자녀들이 조선사람의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어떤 세월의 파도속에서도 조국을 잊지 말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가는 소박하고 광범적인 인간이다.

이처럼 평범한 교원 김영체가 오래전에 귀국하여 어른으로 된 진석에게 영원히 잊혀 지지 않는 영원한 인생의 담임선생으로, 생활의 훌륭한 스승으로 남아 있으며 작품에 그려진 성격형상이 독자들의 강렬한 미학적감흥을 불러 일으키는것은 작가가 주인공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고결하고 뜨거운 민족적자존심과 조국애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낸것과 관련된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뜨거운 애국심과 높은 민족적자존심, 사람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워 내려는 그의 고결한 마음, 인간적광심은 그 어떤 거창한 생활사건이나 요란한 사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특징적인 생활, 자그마한 사건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밝혀 지고 있다.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것처럼 철없는 《나》가 저질렀다는 잘못을 보면 웬만해서는 흘려 버릴수도 있는 사소한 일이다.

우산없이 비를 맞으며 학교로 달려 가던 《나》는 우산을 쓰고 가는 마을의 일본인 학생의 도움을 받아 옷을 적시지 않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고마운 생각으로 그의 장화에 묻은 흙을 나무가치로 긁어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로 될줄이야.

위낙 말수가 적고 웅심깊은 담임교원이 조선인학 교의 엄격한 교칙도 있어 버릴만큼 격동되어 《너 에겐 조선사람의 자존심도 없는가!》라고 부르짖으며 교수봉으로 《나》의 종아리를 쳤던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울분도 아니였고 매가 곧 사랑이라는 그런 성질의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한갓 울분이나 사랑을 아득히 초월한 민족적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고결한 녀의 흐느낌이였고 불 타는 절규였다.

그 일로 담임선생은 시골학교로 조동되어 가게 되었고 그때까지 장난하는데만 골몰하던 어린 녀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던것이다. 다시 말하여 고결한 녀의 절규에 잠 자던 어린 녀이 메아리쳐나섰던 것이다.

평범한 생활, 흔히 보게 되는 자그마한 사실에서 거인적인 주인공의 성격을 특색 있게 그려 보인데 소설가의 사색의 깊이가 있고 창작기교가 있고 예술적안목의 높이가 있다.

김영체교원의 형상, 참으로 거기에는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것보다 높고 사람들이 경탄하고 올려다 볼만한 미의 세계가 그려져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의 작품들에는 또한 조국애의 숭고한 감정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거의 모두 조국에 대한 주제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그가 거처른 일본땅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조국과 인생에 대한 남 다른 체험이 가져다준것이리라.

생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입장을 가지며 새롭고 아름다운것을 열렬히 옹호하고 긍정하는 강렬한 사상적지향성과 높은 미학적리상으로 볼때울때 작가들에게는 그들이 특별히 관심을 돌리게 되는 주제분야가 나서게 된다.

특별히 애착과 관심이 돌려 지고 예술적취미를 불러 일으키는 주제분야를 가진다는것은 작가가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풍부화시킬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시대에 대고 웨치고 싶은 자기의 고유한 목소리, 자기의 독특한 흥미와 기호를 가지지 못하는 작가에게서 그의 고유한 문학세계를 기대할수 없으며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자기 나름으로 개척하지 못하는 작가에게서 그 어떤 창작적개성도 이야기할수 없게 되리라는것은 자명하다.

그는 어머니조국을 무한한 애정과 숭고한 감정을 가지고 열렬히 노래하였으며 조국에 바치는 공민의 광심과 인간들의 고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창작의 불꽃을 돌렸다.

단편소설 《삶의 위치》, 《나의 가정이야기》, 《소나무무늬 상감자기》, 《마지막<배우수업>》 등은 이것을 보여준다.

그의 조국에 대한 주제의 작품들에서는 무엇보다도 조국은 민족의 운명이며 조국의 운명속에 민족이 있고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행복도 있다는 사상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으며 조국과 인간, 조국과 광심, 조국과 삶 등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다.

조국이 없이는 삶이 없다. 조국은 인간의 존엄을 주는 어머니이며 마음껏 재능을 꽃 피우고 행복을 누릴수 있는 삶의 요람이다.

작가가 자기의 어머니가 겪은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쓴 단편소설 《삶의 위치》는 이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

잡지 《오늘의 조선》에도 실려 대외에 널리 소개된 단편소설 《삶의 위치》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인 일본에서 도로청소부로 일하면서 갖은 천대와 민족적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한 녀성이 사회주의조국

의 품에 안겨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자본주의 일본땅에서 인간이하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오던 도로청소부녀성이 자기의 희망대로 일터를 잡을수 있는 사회주의조국에 와서도 무엇때문에 도로관리원직업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서 삶의 위치를 차지하려 하는가. 작가는 여기에 형상의 초점을 돌렸다.

작가는 자본주의 일본땅에서의 도로청소부의 생활과 사회주의조국에서의 도로관리원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그려 내는것으로 그것을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멸시당하던 도로청소부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도 새로운 삶의 위치에서 인간의 만복을 누리는 하나의 큰 사회적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사회주의조국에서의 직업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밝힘으로써 직업과 참된 삶에 대한 새로운 형상세계를 창조하였다.

또한 단편소설 《나의 가정이야기》에서는 조국은 천만사람에게 삶을 주는 원천이며 참된 삶을 키워 내는 요람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보여 주고 있다.

어머니없이 자식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조국이 없이는 우리모두의 삶이 있을수 없고 피어 날수도 없다는것이 그가 작품을 통하여 시대앞에 던지는 강렬한 웨침이다.

단편소설 《나의 가정이야기》에는 두 과학자의 상반되는 운명이 그려져 있다.

자본주의 일본땅에서 한 조선인과학자가 집안에 작은 실험실을 꾸려놓고 잡관목으로부터 천연물감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서 하는 연구사업에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변변치 못한 가산이 연구사업에 쟁그리 바쳐진다. 살림살이는 나날이 쪼들고...

그리하여 안해는 살림을 더는 지탱할수 없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버린다.

처와 아들과 생리별당한 비극적수난자인 그 과학자는 집까지 팔아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마침내 천연물감을 얻어 낸다. 그는 그 물감생산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가지고 어느 한 방직회사로 찾아 간다. 기술자료를 본 회사측에서는 이 새 기술개발이 현존 생산품의 실현에 저해가 된다는것을 타산하고 음흉하게도 이 과학자의 운명이 깃든 기술문건을 없애 버린다.

피눈물을 뿌리며 한생을 바쳐 연구완성한 연구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없어진 그때에야 과학자는 남의 땅에서 《내 고향의 색깔》을 찾으려던 그 희망이 허망한것이며 그자체가 어리석은 실책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며 숨을 거두고 만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 귀국한 《나》는 어머니조국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과학의 전당 **김일성**종합대

학 화학학부에서 마음껏 배우고 과학탐구의 길에 나서서 불과 7년만에 잡관목에서 천연물감을 추출하는 연구사업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30대에 박사가 되었다. 조국은 그에게 과학자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주었다.

소설은 이렇듯 아버지와 아들의 상반되는 생활과정을 엮은 한 가정의 운명사를 통하여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조국과 민족을 떠난 과학연구사업은 뿌리 없는 초목과 같은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과학자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과 운명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와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

자그마한 고향의 시골마을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친 아름다운 한 인간이 황금만능의 남의 나라 자본주의 세계에서 과학의 길로 가면 갈수록 모든것을 하나하나 다 잃어 버리고 나중에는 안해의 버림까지 받는 비참한 생활과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과학의 길에서 만사람의 축복속에 성공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나》의 생활,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되는 생활로 된 한 가정의 극적인 운명사는 사람들에게 과학을 하기전에 조국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 준다.

예로부터 과학연구사업은 국경도 민족도 초월하는 인류공동의 사업이라고 하여 왔다. 그러나 아니다. 조국과 민족을 떠난 과학연구사업은 뿌리없는 초목과 같은것이다. 바로 이것이 작가가 제기한 과학과 조국에 대한 생활철학이다.

작가는 단편소설 《마지막<배우수업>》에서도 자기 조국을 떠나서는 참답게 살수 없고 행복할수도 없으며 소박한 소원마저 성취할수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소설에 그려진것처럼 박록산이 지냈던 영화배우로 되려는 꿈이 일본땅에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으나 어머니조국은 그를 영화배우로 키워 주고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그를 장군님께서는 그를 혁명적대작에서의 주역배우로 내세워 주시었다.

소설에서는 사람이 살아 가느라면 별의별 일이다 생기게 되지만 부귀영화가 유혹하고 눈 부신 성공과 명예가 앞에 있다 해도 그런것에 끌려 순간이나마 조국을 잊는다면 그건 곧 자기를 낳아 준 조국에 대한 배반으로 되고 그런 인생은 진흙탕속에 처박힌다는 강렬한 주장이 울린다.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량심, 인간의 소박한 소원마저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저주로운 자본주의현실의 부패성을 배우가 되려는 박록산의 꿈이 깨여지는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보여 주면서 인간을 《배우》로, 세상을 《무대》로 만들어 버린 자본주의사회에 비한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운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깊이 있게 확증하였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인간을 어리광대로, 상품광 고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가만

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 나오지 않는 웃음을 짓고 불행하면서도 《행복》 한척 하고 나오지 않는 눈물도 짓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새로운 생활적형상으로 예리하게 발가놓고 있다. 여기에 이 소설의 혁신성이 있다.

소설가 강귀미의 소설들에는 사람은 조국의 귀중함을 노래할뿐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할줄 아는 참다운 인간, 의리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한 진실한 인간의 형상이 있다.

단편소설 《처녀의 회답》의 솔메, 《소나무무늬 상감자기》의 조달근 등이 그러한 형상들이다.

왜놈들이 조선에서 빼앗아간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 들어 있는 고려청자기를 기어이 찾아 조국에 보내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기울이고 빚까지 내어 사들이는 조달근로인.

밤길도 혼자서는 무서워 걸지 못하고 수집어 하면서도 고향마을이 원썬들에 의해 짓밟혔을 때에는 서슴없이 한목숨 기꺼이 내대는 처녀 솔메.

이들의 형상에서 사람들은 조국을 위한 삶의 가치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인간의 삶,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다.

형상과정은 실지로 작가의 높은 창작적기량을 요구하기때문에 이 공정에서는 형상적문제들을 푸는 독특한 솜씨가 있어야 한다.

그는 단편소설창작에서 독특한 솜씨와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가진 작가라고 말할수 있다.

그의 단편소설들은 승화된 정서속에서 절절하고 뜨거운것을 느끼게 한다.

작품에는 멋부림을 쓴 미사려구나 불필요한 수사학적표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감

동시키는것은 인간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양양된 시적정서속에서 천명하기때문이다. 그의 작품들은 또한 풍부한 생활적표상과 함축으로 특징적이다. 그것이 작품이 여운을 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과련상을 보태가며 작품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되게 한다.

그는 묘사에서 집약과 함축, 생략의 수법을 적절하게 리용함으로써 형상적화폭의 탄력성과 활동성을 보장하고 인물의 성격적특질을 생동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하여 그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단숨에 재미있게 읽히우며 인상에 남는다.

그의 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평범한 생활속에서 문학적인 이야기를 찾고 그것을 생활적으로 전개하는것이다. 그 어떤 특이하고 기발한 인위적인 꾸밈과 과장이 없다. 소설은 생활의 논리를 따라 순탄하고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흐른다. 그러면서도 극이 있고 굴곡도 있다. 독자들속에서 그의 소설이 재미 있게 단숨에 읽히우는것은 이때문이다.

강귀미의 창작에서 하나 더 이야기할것은 언어문체의 소박성이다. 그는 체험한 사실과 느낀 사상감정을 화려하거나 멋부림이 없이 진실 그대로 소박하게 생활적으로 표현한다. 여기에 또한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애착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까닭이 있다.

지금까지의 작품들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독자들은 앞으로도 작가가 높은 문학정신과 뜨거운 창작적열정을 안고 동행자의 불태를 더욱 역세계 틀어잡고 선군혁명문학창작의 알찬 열대로 소설문단에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지성의 꽃으로 피어있기를 바란다.

하얀 종이장

주경

하얀 종이장
내 눈앞엔 지금 있다
순간이면 쓸수 있는 전향서
천만번 아니 쓴
하얀 종이장

조국 아닌 조국을
삶이 아닌 삶을 인정하라는
가련한자들을 굽어 보며
서리찬 조소로 날려 버린
하얀 종이장

꺾이지 않는 전사의 지조
굽히지 않는 전사의 절개
딸라의 뭉치를 뿌리친 내 량심이 있고

향락의 의자를 짓부신 내 주먹이 있는
하얀 종이장

철책로도 묶을수 없는 나의 신념
불로도 태울수 없는 나의 의지
부서진 나의 팔다리가 있고
뾰족한 나의 두눈이 있는
하얀 종이장

기나긴 42년을 하루같이
지옥에서 깨닫이 지킨
전사의 고귀한 생이 있고
위대한 조국이 있는 하얀 종이장
아, 이름없는 전사의 옥중수기
티 없는 내 삶의 자서전이어!

나의 한세기

김일규

12월의 눈은 내리고내리고
송년의 시각은 오고오고
하많은 추억의 이랑이랑
갈아 번져 끝이 없으련만
이제 울려 오리 제야의 종소리
마음은 가는 세기를 붙들고 놓고 싶지 않구나

20 세기의 절반을 살아
한세기를 다 산듯
마치도 내 생을 복되게 떠밀자고
현 세기의 절반 세월이 흐른듯
10년대 20년대...
추억의 창가에 눈처럼 쌓이는 년대와 년대여
고마운 세기-나의 한세기여!

10년대

반만년의 세월이 20 세기를 받들자고
그리도 모진 진통을 겪어 왔던가
력사에 부푼 세월의 숙원이 망울져 망울져
주체 1년의 4월도 보름날
얼어 붙은 시대의 동토대우에
일시에 터친 꽃망울의 환희
세기의 첫 기슭에 진동했으니
20 세기의 가장 위대한 날이여
인간태양이 동 터오른 세기의 봄이여

20년대

길이 있어야 했다.
누구나 가야 할 길이지만
누구나 가지 못한 길
아직은 려명의 그 이른 새벽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무겁게 눈이 앉혔으니
양춘을 찾는 길은 왜 그리도 멀었던고
죽음을 넘어 대를 이어 가고가고
조국을 떠메고 가야 할 길이기애
조국의 위대한 아들이 그 길에 나섰더라
인간태양이 자기 궤도를 놓으며 시작한 조선의 첫
길이여
눈덮힌 만경봉언덕에 눈바람 몰아 칠 때
비장히 새겨지던 숫눈길우의 거룩한 자욱이여

30년대

메아리 메아리-

사라지지 않는 총대의 메아리
백두산야에 진정한 주인이 고고성처럼 울린
조선의 운명인 총대의 메아리
이 땅을 옥죄인 노예의 철쇠를 녹이며
새 시대의 봄우뢰를 터친
위대한 장군의 웨침이여!

40년대

세계가 굽어 보이는 하늘아래 첫 봉우리
백두산 마루에 솟은 칼벼랑우에서
백호의 고성이 눈사태를 일구더니
소백수 여울물소리 정다운 기슭에 피여 나던 서리
꽃 서리꽃
눈 부신 해살이 퍼나던 빨찌산의 귀틀집
동기와 처마우에서 비껴 오른 찬란한 노을이
새 세기의 하늘가로 비껴 갔으니
지구도 한결 밝아지고
백두산마루에선 미래가 내다보였다

50년대

호미자루밖에 쥐여 못 본 샘골집 덕삼이
침략자의 땅크를 석대나 까고
금별메달 번쩍이며 돌아 온 고향의 밤
모기불 타는 명석방에 난생 처음 틀지게 앉아
논두렁의 떡장구 잡듯 별게 아니라고
그간놈들이라 미국을 불러 제끼며 하던 이야기
하고 또 해도 밤이 짧던 날이여
하루에도 수천만발의 폭탄이 땅을 뒤집고
온 나라가 불길속에 타고 탔어도
노예의 삶을 원치 않은 자주적인민의 맛을 보며
준 영웅의 땅에서
어디 가나 가슴팍에 천리마 휘장을 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던 나날이여
내 첫 걸음마 익히던 대동강가에
갈게보다 탄피가 더 많았던 세월이여

60년대

맨발로 차던 고무공이 가벼워
낡은 책가방을 뜯어 그우에 덧씩우고 하는
동네 축구시합에서 좌상아바이가 《컵》을
수여하던 날
머나먼 런던의 하늘아래서
이웃집 형님이 세계강팀의 축구문 그물에

철썩-꼴을 안긴 통쾌한 소식
전주대 확성기에서 꿈처럼 전해 질 때
만집한 기관차를 로선에 세우고
만세 3 창을 소리높이 웨친 철이 삼촌이
난생 처음 연착이란 죄명을 쓰고
성으로 비관서를 써가지고 말없이 걸어 갈 때
건설담배 한팩 사든 외태머리쳐너가
울며 따라 가던 먼발치에서
우리 마을 축구팀은 얼마나 들뜨고 기뻐던지
어머니가 이고 나온 수수지짐 한 광주리가
순간에 다 없어 졌어라

70년대

기름내 배인 작업복을 군복으로 갈아 입고
밤길 산길은 많이도 걸은 나날
보고 싶은 책은 왜 그리도 많은지
눈이 몇개 더 있었으면 하던 공상의 날들이여
희한하고 벅찬 일들이
날마다 전설처럼 이 가슴 부풀게 해
땀 배인 병사수첩에 시도 많이 썼더라
고민도 많고 눈물도 많아 때 일찍 머리 희며
위대한 전환의 시대를 바빠 살아
뛰고 달리면 발바닥이 마를새 없었고
장알진 손으로 못해 본 일이 없는
아, 내 마음의 키가 크던 세월이여!

80년대

한껏 머리를 뒤로 제치고서야 바라볼수 있는
탑이며 기념비가 많이도 솟던 나날
무르익은 가을처럼 조국의 대지우에
인간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지던 시대에
아, 시가의 붓대를 목숨처럼 간직하고
수령의 집무탁에 나의 시가도 올려 본 행운이여
혁명에 조언하고 투쟁에 숨결로 흘러
내 이 한자루 붓대면 세상 무서울것 없던 어느날
때 아닌 소꿉친구의 초청에 나섰던 유보도에서
한줌 안주가 담긴 어느 잡지장 한귀에
내 시가 장물범벅으로 후줄근해 진 그 앞에서
성도 못내고 울지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술이 모자랐던 그 밤 그 새벽이여
말없이 나를 때리던 친구의 모진 매앞에
심장이 울던 고마운 날이여

90년대

하나 둘 자식들도 커가고
하나 둘 가슴에 훈장도 늘었어도
내 발로 땅을 짚고 걸어 보지 못한 나날도 있건만
그보다도 만수대 총계아래 연 사흘 어푸러져
그리도 많이 피눈물을 흘리며
곡성인지 억함인지 앞뒤 없는 말을 눈물속에
내뱉던 비애여
밥걱없는 자식들 책가방을 무겁게 메워 주며
내 어깨에도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고
힘겹게 오가던 출근길이여 취재길이여
내 생애 처음으로 쌀에 대한 운명적인 시도 쓰며
붉은기의 귀중함에 피가 끓던 년대여
조국운명이 무엇인지
피속에 뼈속에 새긴 년대여

×

눈은 내리고내리고
가는 세기는 마음에 더 깊이 쌓이고쌓이고
그러나 마음은 서둘러 서둘러
오는 세기의 노을 손을 더듬어 찾노라
민족속원의 대문에 모질게도 질렸던
그 무거운 빗장도 열렸으니
또 무슨 소원의 꽃망울이 새 세기의 하늘아래
망울지려나
새 세기의 숫눈길을 걸어 걸어 뚜렷한 자욱을
남기며
나는 또 한세기를 살린다.
우리의 태양이 아름답게 가꿀
강성대국의 봉우리에 우뚝 서서 웨칠
내 목청이 쉬지 않으련지
잘 가라 나의 한세기여!
어서 오라 나의 또 한세기여!

-20 세기를 보내며-

갈매기

한원희

갈매기 갈매기 흰 갈매기
너 어이 바다를 사랑하나
무엇에 반했더냐
너 어이 바다 떠나 못 사나
말해 주려마 그 사연
아, 갈매기 갈매기 흰 갈매기!

(1)

푸른 파도는 늑실늑실 다가와 배머리에 부딪쳐서는 해빛속에 은구슬, 금구슬로 휘뿌려 지고 배는 그 억만구슬들을 량쪽으로 갈라 헤치면서 달리였다.

흰 갈매기들이 마스트우에 날아 예다가는 물결을 향해 쏜살같이 내려 꽃이기도 하고 물결을 박차고 다시 떠올라 즐거운듯 기쁜듯 빙빙 감돌기도 하였다. 어떤 갈매기들은 수면 가까이 내려와 춤을 추듯이 흰 날개를 우로 추켜 들고 퍼덕이다가 가볍게 날개를 접고 출렁이는 물결우에 몸을 맡긴다.

취사원 홍명애는 취사실 문설주에 그린듯 기대어서서 갈매기들을 정답게 바라보고 있었다. 참말 얼마나 정 깊은 갈매기들이람. 왜 저 갈매기들은 저리다 바다를 무서워 하지 않고 파도를 겁내지 않고 오히려 넓고넓은 바다와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한시도 바다를 떠나 못 사는것일까 하고 처녀는 생각했다. 산에 가면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가며 지저귀는 산새가 없이는 적막강산으로 여겨 지듯이 바다에선 갈매기가 없이는 살아 숨쉬는 바다의 풍치를 느껴 보지 못할것 같았다.

가뜩히 차려 입은 흰 취사복에 역시 눈처럼 하얀 취사모를 가볍게 눌러 쓴 처녀는 저 바다의 흰 갈매와 같이 날씬하고 곱다. 흰 이마아래 그윽히 빛나는 눈, 어떤 때는 스물여섯살의 처녀다운 명랑한 빛을 띄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머니와 같은 사려와 시름에 젖어 들기도 한다. 지금이 바로 그랬다. 갈매기를 바라볼 때면 갈매기의 넋이 옮겨 와 앉은듯 마음이 가벼워 지고 열네명이나 되는 배식술을 생각할 때면 취사원으로서의 책임이 무겁다.

지금 타고 가는 배 「C-XX×12」 호는 압록강 하구로부터 황해남도 부포까지 서해안의 여러 곳에 널려져 있는 천해양식장마다에 떼바줄을 날라 가고 있다. 꿈무늬에 차고 가는 부선에도 떼바줄이 그득히 실려 있으나 식량은 열흘분밖에 실지 못하였다.

규정밖에 모르는 경리과 창고아바이는 항해일수를 따져가며 에누리가 없었다. 된장,간장,기름 같은 것도 규정량밖에는 더 타내지 못하였다.

《창고장아바이 좀 생각해 보세요. 배가 바다에 뜨면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에 부딪칠수도 있다는 건 아바이도 잘 아시지요.》 하고 사정을 해보았다.

《알아도 잘 안다. 그러나 너도 좀 생각해 봐라. 지금이 어떤 때냐. 누구나 허리띠를 조여 매고 일하는 때가 아니냐. 안됐다. 잘 다녀 오너라.》

창고장아바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다섯해째 이 배의 취사원으로 있다. 그때문에 바다사람들의 식욕을 잘 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이 배를 함께 타는 선원 남태성이라는 총각이 지긋게 달라붙는 그것이었다. 넉넉치 못한 식량은 선장이나 선원들의 말마따나 떼바줄을 넘겨 주는 곳에서 보충 받을수도 있고 배에 있는 그물로 고기를 잡아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수도 있지만 이 총각문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알지 모르겠다.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홍명애의 눈에 비끼는 이 총각의 모습은 탐탁치 않았다. 무슨 일에서나 사내답지 않게 시원스럽지 못하고 처녀처럼 얌전하기만 하였다. 자기보다 나이는 두살 우이지만 배 타는 나이로 보면 한살 아때다. 말하자면 홍명애는 일년 선배이고 남태성은 일년 후배다. 시시때때는 재를 못 넘어도 얌전이는 재를 넘는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가 홍명애에 자기를 엉뚱하게도 열렬히 사모할줄을 어떻게 알았으랴. 청년동맹회의때에도 그렇고 어떤 다른 모임때에도 말 한마디 없이 있는지 없는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곤 하여 매양 답답스러운 동무, 이 동무가 처녀의 뒤소문만 내게 할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오늘 낮 출항준비를 할 때에도 그랬었다. 방금 떠나자고 닻을 올리자고 했으나 왜서인지 끄떡하지 않았다. 누구인지 닻줄을 타고 바다밑으로 내려가서 분명히 무엇에 걸린듯한 닻을 빼놓아야 하였다. 그때 옷을 벗어 던지고 남태성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얼마후에 그는 닻줄을 타고 잠간사이에 올라왔다. 물론 커다란 무쇠닻도 무사히 올릴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람. 선원들이 그에게 수고했다고 말을 하자 남태성은 뜻밖에도 《홍명애가 곁에 있으면 힘이 난다.》고 해서 사람들을 웃기였다.

《암, 그렇구말구. 사랑이란 억센 힘을 낳는거야.》

《청춘이란 그래서 좋은거지.》

그 순간 홍명애는 부끄러워 얼굴이 뾰뚱 불 타올랐다. 동무들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옹호할 줄 아는가봐. 그런 말은 남자에게 허물될것이 없다 쳐도 처녀인 나에게는 왜 허물이 되지 않겠는가.

남태성이는 이렇게 분별없는 말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여 소문만 내준다. 3년째나... 찰떡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글썽 찰떡전술인지 진드기전락인지 누가 안담. 백번 짚어 안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을 그는 진실로 믿는 모양이다.

총각들은 대개가 제 마음에 드는 처녀를 쟁취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애쓴다고 한다. 처녀의 눈길을 끌리우도록 공장속보관에 자기의 멋진 사진과 함께 이름이 나붙게 한다는가 혁신자들의 축하무대에 올라 꽃다발을 받는다는가 직장간 체육경기에서 특출한 맹활약을 보여 준다는가 어쨌든 그 방법은 다양하다고 한다.

홍명애는 그런것에 끌리는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우물쭈물 달라붙는 남태성이라도 싫었다. 자기는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선박을 만들어 낼 위대한 포부를 안고 공부를 한다지만...

그 동무가 지금 선원실에서 책을 볼려고 있든가 무엇을 쓰고 있을것이다.

차집고 소금기 배인 바다바람이 불어 왔다. 왼쪽으로 바라보이던 물은 벌써 사라진지 오래다. 망망대해에 홀려 떠서 만경창파를 헤가르며 달리는 배, 여기서는 14명 선원들 모두가 생각도 숨결도 행동도 하나로 하여야 한다. 그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동지이고 한식술이며 생사운명을 함께 할 전우이기도 하다.

홍명애에게 있어서 남태성이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귀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것이 의리적으로는 옳지 않겠는가? 처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에게 물어 보았다.

《명애, 난 그동무를 잘 모르겠어. 명애,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상대를 택할수 있어. 그런데 남태성은 뭐 특이한데가 없지 않니. 있다는건... 그걸 다 말해 무엇 하겠니.》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가 이렇게 속살거린다. 그러자 홍명애는 깜짝 놀랐다. 이 말은 언제인가 언니가 한말이었다. 그러니 내가 이미 언니의 말을 자기것으로 안고 있었던단말인가.

갈매기 한마리가 날아와 배전에 앉더니 처녀의 속생각을 알아 맞추어 보려는듯 록두알 같은 작은 눈을 빛내이며 고개를 이리저리 갠거렸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이를 어찌면 좋니-)

처녀는 한숨을 호-내그었다.

갈매기는 놀란듯 날개를 펴고 날아 오르더니 아오- 아오-소리를 지르며 명애의 머리우를 감돈다.

안다구, 대체 무엇을 안다는거냐. 안타까운 내 마음을 네가 어찌 알겠니. 명애는 또다시 한숨을 내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저녁준비를 해야 한다. 해는 벌써 조타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2)

홍명애는 취사실 가시장을 열었다. 거기에 식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어야 할 식칼은 없고 낡은 식칼이 있었다. 손잡이에도 때가 오르고 칼날도 닳아서 볼 품이 없다. 이미 쓰던 식칼은 어디 가고 이런 식칼이 있을가. 아-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그 식칼은 잃어 버렸지. 그런데 이 식칼은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배에 있던 식칼은 불수강으로 만들어서 녹이 쓸지 않고 언제나 번쩍거리었었다. 그런데 그 식칼을 바다에 빠뜨렸었다. 바로 남태성이가 지난번 바다에 나갔을 때 식칼을 갈아 준다고 하면서 어찌어찌하다가 침병 빠뜨리었다. 그때 홍명애는 칼이 아까운것보다는 청하지도 않은 일을 맡아 가지고 나서서 재구를 치며 성가시게 구는 그의 행동이 마음에 거슬렸다. 그런데 남태성이 말은 또 얼마나 거북스러웠던가.

《그까짓 칼이라는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홍명애동무가 빠지면 나는 바다를 다 기울여서라도 찾아 낼테요. 그걸 알아야 하오.》

생활에서 간지고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것을 하나하나 살필줄 아는 알뜰한 처녀인 홍명애조차도 지금껏 식칼을 깜박 잊고 있었다. 왜 그랬던가. 아버지가 자꾸만 혼사말을 내놓았기때문일까.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짬이 없었던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는 그를 불러 앉히고 말했었다.

《얘야, 너의 신랑감이 생긴가부다. 네 언니가 골랐다더라. 이번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 오면 그사람을 한번 만나보아라... 이 아버지인 그 남태성이 시원치 않구나-》

그랬었다. 땅에 내려 생각해야 할 일도 많았고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밀렸던 일도 많아서 그는 식칼을 감감 잊고 있었다.

홍명애는 낡은 식칼을 집어 들고 무우와 배추를 다듬어 나갔다. 보기와는 달리 칼은 이내 손에 익고 쌀았다. 그래서인지 그의 일손은 빨랐다. 눈깜박할 사이에 한무지의 남새를 다듬고 씻고 한다음 무우를 찹쌀게 썰어 나갔다. 과도에 배가 흥떡이는 까닭

에 몸균형이 무시로 파괴되어 자칫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겠으나 그의 칼장단소리는 일매지게 울리었다. 또 썰어 지는 무우발도 하나처럼 고르롭다. 동그스름한 두어개는 칼장단에 맞추어 살랑살랑 잔물결친다.

홍명애는 어릴적부터 앓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밥도 짓고 빨래도 많이 하면서 자랐다. 그나마 어머니를 잃은 다음엔 집안 세간살이를 도맡아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그래서인지 처녀는 말이 없고 부지런하였으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나 막히는 일이 없었다.

공장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더더구나 총각들은 누구나 그를 사랑하고 싶어 하였다.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어느날 그는 《C-X-X12》호의 취사원으로 배치되였다. 공장에서는 책임성이 높은 그를 훌륭한 책임자로 골랐던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사내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 세때 식사를 보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파도에 부대끼고 멀미에 시달리고 그 또한 풍랑을 만나 뒤죽박죽 배가 흔들리는 날에는 다 지어 놓은 밥과 국을 가마채로 엮지르는 등 취사원의 고생이란 헤아릴 길이 없다. 그 때문에 처녀들은 배의 취사원으로 가라면 십리만큼이나 달아나고 혹 랑만적인 감정으로 취사원을 자진하였던 처녀들은 얼마 못가서 다시는 배를 타지 않는다고 딱 잡아 떼었다.

홍명애는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배에 올랐다. 그때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지만 처녀는 꾀꾀히 힘든 초소, 험치않은 일을 담당해 온다. 그렇다고 하여 동요가 전혀 안 생긴다고는 말할수 없다. 더구나 이즈막에는 남태성의 성화에 견디어 내지 못할것 같아서 배를 내릴 결심이 생기곤 하였다.

《명애는 남태성이 싫지 않는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싫다면야 왜 그와 함께 그냥 배를 타겠어.》

처녀들이 이렇게 쉬쉬 말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올 때마다 배를 내려 자기의 청백성을 보여 주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쳐 생각하곤 하였다. 나까지 배에서 내리면 어느 처녀가 선원들의 밥을 지어 주고 뒤바라지를 할가. 녀자의 손길이 미쳐야 할 곳이 구석구석에 오죽 많은가. 내가 그 동무 하나때문에 배에서 내려야 하겠는가. 아니 그건 옳지 못해. 지금이 어느때인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모두 떨쳐나서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를 박차고 강성대국건설에로 내달리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기 초소를 버리고 배에서 내리겠는가. 그것도 사사로운 개인감정때문에... 그것은 우리 배사람들에게 죄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 처녀는 그냥 배에 남아 있다.

홍명애는 무우를 다 썰어 놓고 식칼을 씻었다.

바로 그때 남태성이 소심하게 얼굴을 붉히며 취사실안을 들여다 보았다.

《내가 도와 주어야 할 일은 없소?》

처녀는 남태성의 이런 말엔 이미 습관된지 오랫동안 매번 몸 돌바를 몰라 하며 마주 보는 얼굴을 대할 때면 저도 몰래 웃음이 나갔다. 늘쌍 이런식으로 처녀의 신성한 율타리를 뛰어 넘어 보려는것을 누가 모를줄 알구... 부르지도 않았는데 군색스럽게 도와 줄 일이 없는가고 하면서... 아이참, 님을 보고 싶어서 뽕 따러 간다더니 엉큼하기란...

《괜찮아요. 부엌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어서 자기 볼 일이나 보세요.》

처녀는 돌아 보지도 않고 다 씻은 칼을 당반우에 올려 놓았다.

《아- 그 식칼... 마음에 드오? 지난번에 내가 식칼을 빠뜨렸었는데... 안됐소. 그전 식칼이 더 좋았겠는데...》

남태성이 미안한듯 또 얼굴을 붉히었다.

《안되긴요. 전 이 칼을 가시장에 넣어 준 사람이 고마울뿐이에요. 식칼을 바다에 빠뜨린 사람과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럼 됐군요.》

남태성의 얼굴은 금시 환해 졌다. 그 웃음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기쁨이 한껏 어리었다.

홍명애는 혹시 이 동무가 식칼을 가져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부정해 버리었다. 남태성이편에서 그 식칼을 누가 가져 왔는가고 물어 왔기때문이다.

《그걸 알아서 무엇하자고 그래요?》

《나 말고도 누가 동무를 수리개가 병아리 채가듯 하려는지 알자고... 그 수리개를 잡아서 바다에 빠뜨려야 할게 아니요?》

《호, 참... 동무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는가요? 난 차라리 동무를 빠뜨렸으면 좋겠어요.》

《찬성이요... 그러자면 나를 안아서 들어 올려야 되겠지. 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둘이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생각이란 말이요. 그걸 알아야 하오.》

남태성의 두눈이 숏불처럼 타오르는것을 본 처녀는 그를 콧 밀어 치우고 열른 취사실철문을 탕 하고 닫았다. 그리고 재빨리 안으로 빗장을 질렀다. 가슴이 활랑거리었다. 남태성이 눈에 타던 숏불을 내 어디서 또 보았던가. 그래, 옳아. 바다속에 뛰어들어 닻을 끌어 올리던 오늘 낮이었지. 내가 곁에 있으면 힘이 솟는다고 하던 그때... 그때... 참 모를 사람이야. 늘 봐야 바다사람 같지 않다가도 어떤 때는... 헉헉대장부와 같이... 아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밖에서 남태성이 가만가만 철문을 두드리었다.

《문은 왜 거는거요? 내가 무슨 못할 말을 했기에.》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이 동무가 문은 왜 두드리는데. 남이 보면 또 시시한 소문이 나돌게...

《내 말을 듣소. 이 철문이 결코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수는 없소. 그걸 알아야 하오.》

남태성이는 말끝마다에 《이걸 알아야 하오.》 하곤 한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뜻인가부다. 그렇게 자꾸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걸 알아야 하오.》 라고 하니 처녀도 자기의 심장이 《이걸 알아야 해.》, 《이걸 알아야 해!》 하고 쿵 뛰는것처럼 느껴 지기도 하였다.

바다의 저녁해가 수평선 한끝으로 잠겨 들었다. 그러자 붉은 노을, 붉은 파도가 온 바다에 끓어번지었다.

(3)

《C-XXX12》호는 꼭 8일만에 강령군 부포에 도착하였다.

열흘분 식량중에서 남은 식량이 이틀분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가보는 배길이므로 썰물때마다 물끓과 등판 같은것을 조사하고 해도와 대조하면서 가다나니 때바줄을 넘겨 주는 일수를 엄청나게 초과하였다. 부포에서 또 하루를 보내야 했다. 결국 식량은 두끼분이 남는다. 그 사정을 안 부포사람들은 걱정 말라며 식량을 자기네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미안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고기를 얼마만이라도 잡아 주어 성의를 표시하기로 하였다.

본래 부포앞바다는 서해안의 좋은 어장중의 하나였다. 허나 짧은 시간에 잡아 낸 고기는 얼마되지 않았다. 저녁녘에 부포에서 통강냉이 두포대를 넘겨 받았다. 뭐니뭐니해도 안도의 숨을 내신것은 흥명에였다. 흰쌀이면 좋겠지만 통강냉이면 뭐라나.

밤이 왔다. 바다의 밤. 바다도 잠을 자는지 잠을 자면서 고르로운 숨을 쉬는지 물결이 고요히 오르내리였다. 때바줄을 넘겨 준 동무들도 고기잡이를 한 동무들도 피곤하여 선원실에 들어 가 침대에 누웠다.

흥명에는 설것이를 끝내고 통강냉이를 씻어 가마에 안쳤다. 이 저녁에 부근부근하게 삶았다가 새벽에 밥을 지으려는것이다.

선미갑판쪽에서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리였다. 꾸지람기가 섞인 소리는 선장아저씨이고 그에 대답하는 소리는 남태성이 분명하다.

《태성이, 그러면 안돼. 그건 우리에게 식량을 준 부포동무들에게 다 넘겨 줄것이 아니였다.》

《이 가재미와 꽃게는 제가 쓸데 있어서 따로 마련한것입니다.》

《어쨌든 고기잡이할 때 그랬겠지. 하늘에서 똑 떨어진거야 아니지 않나.》

《하늘에서 떨어질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장아저씨의 말이 조금 높아 졌다.

《자네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라구.》

사위는 조용해 졌다. 그대신 배전을 치는 물결소리만이 철썩 쳐절썩 더 뚜렷하게 울려 왔다.

흥명에는 가마밑에 장작을 더 밀어 넣었다.

(울지 못해. 하늘에서 떨어진 고기라니... 만약 그 동무처럼 너도나도 그렇게 제 몫으로 떼낸다면 어찌한단. 글썽, 오늘도 땀을 동이로 흘리면서 수고하기야 했지 뭐. 그런데 가재미, 꽃게가 무엇이길래... 낮에 잡은 고기에서 콜라 냈지 뭐야... 도저히 가늠이 안 가는 사람이야.)

어떤 때에는 남태성에 대한 믿음이 밀물처럼 가슴에 흘러 들기도 한다.

...몇해전, 선박 《C-XXX12》호는 어느 한 섬기슭에서 암초에 부딪쳐 큰 사고를 일으키였다. 배밀창이 파공되어 삼시에 바다물이 선원실로 광광 뿜어 올랐다. 잠간사이에 넘쳐 난 물은 선원실을 다 채우고 갑판을 무섭게 뒤덮기 시작하였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죽을 수가 나면 살 수가 난다더니 가라앉던 배가 문득 떴어 섰다. 바다밑 바위우에 배가 올라 앉은것이였다. 허지만 더 큰 위험은 앞에 있었다. 썰물이 시작되면 바위우에 덩그러니 남게 되는 배가 여불없이 기울어지면서 모로 자빠질것이다. 썰물이 지기전에 배를 구원해야 한다. 모두들 모여 서서 배를 구원할 방도를 의논해 보았으나 당장 좋은 수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창황중에 당한 일이어서인지 누구도 선뜻 입을 열념을 못했다.

얼굴에 흐르는 물을 훔치며 남태성이 례의 그 주저주저하는 몸가짐으로 우물쭈물 선장을 바라보며 나섰다.

《공장에 빈 도람통이 가득합니다. 그걸 구조선에 싣고 오라고 무전을 쳐야 합니다. 2백개 아니 3백개면 이 배를 떠올릴 뜰힘을 얻게 됩니다. -그는 눈을 내리 뜨고 무엇을 계산하더니 말을 이었다. -정확히는 빈 도람통이 280개면 됩니다. 그것을 선원실과 짐칸에 가득 잡아 넣고 또 배전을 돌아 가며 든든히 달아 매면 배가 뜰테니깐... 그러면 구조선에 끌려서 썰물전에 갈수 있습니다.》

《웁다. 그거다. 그게야, 무전수, 뭘 하고 있소. 빨리 무전을 치시오. 도람통 뚜껑을 확확 조여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구 3백개!... 뭉땅! 빨리!》

그날 배는 남태성의 말대로 무사히 구원되였다.

그럴 때 보면 남태성이 한결 미더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따금씩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하곤 하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곤 한다. 오늘 일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그 가재미, 꽃게... 그걸 글썽 따로 슬그머니... 정말 별난 사람이라니까.

홍명애는 남태성이 술에 취하여 자기의 집에 찾아 들었던 때가 떠올랐다. 그날 남태성이는 꿈무늬에 차고 온 술을 아버지앞에 내놓으며 대담하게 엉뚱 큰 소리를 하였다.

《아버님, 절 받으시오.》

아버지는 때 아니게 절 받으라는 소리에 한무릎 뒤로 물러 앉았다.

《헌데 임자는 누군가?》

《저는 아버님의 딸과 배를 함께 타는 남태성이라는 총각입니다. 이 집의 사위로 받아 주십시오... 명애동무는 아버님의 승낙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젠 아버님의 한마디에 달렸습니다.》

그는 평상시 우물쭈물하던것과는 판판 다르게 의젓하게 말하였다.

옷방 문뒤에 붙어 서서 남태성의 말을 듣고 있던 명애는 그만에야 얼굴이 활짝 붉어 졌다. 아이참, 내가 언제 그랬다구. 엉뚱하게 없는 말을 지어 내면서. 정말 못난이라니까...

《젊은이는 돌아 가 한잠 푹 쉬는게 좋겠네. 그런 인륜대사는 취중에 의논하는게 아닐세.》

남태성을 돌려 보낸 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지 쓴입만 다질뿐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명애는 한숨을 호- 내쉬었다.

(그래 아버지가 잘하셨지. 그 동무는 정말 리해가 안 간다니까...)

명애는 오늘에 또다시 그에 대한 믿음이 썰물처럼 쟁그리 흘러 가 버리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껴 안았다.

밖은 벌써 먹물을 풀어 놓은것처럼 칙흑 같다. 선미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남태성이 불쑥 나타났다. 왜선지 성난것 같기도 하고 심각한 표정을 담은것 같기도 한 그의 얼굴이 장작불빛에 드러났다. 처녀는 너무나 기가 막혀 제물에 웃어 버렸다. 아이참, 불미스러운 가재미, 꽃게의 주인공... 쫓 보기 싫네.

《명애동무, 래일은 우리가 돌아 가는 날인데다 동무의 스물여섯돌 생일입니다. 10월 23일, 경사에 경사가 겹친 셈이요... 자, 가재미 열네마리, 꽃게 열네마리, 우리 배 선원이 열넷이니 가재미, 꽃게가 한놈씩 돌아갈겁니다. 우리 두사람이 한상 차립시다.》

가재미, 꽃게가 그득 담긴 구력을 내놓은 남태성이는 우리 두사람이란 말을 한번 더 그루 박듯이 하고 울 때와 같이 심각한 낮빛으로 가버리었다.

(아니, 뭐?! 내 생일?!-참, 래일이 23일이지. 그 래 옳네. 아이... 그런데 그가 왜 내 생일을 기억해 두고 다녀. 자기와 무슨 상관에게... 이젠 내 생일이

자 자기의 생일이란 암시가 아닌가. 그러면 나와 저는 한마음 한몸이란 뜻이고 ...에그머니나, 이런 엉터리란... 이를 어찌면 좋아. 정말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수도 없구...)

홍명애는 남태성이 앞에 있다면 아궁에서 불 붙는 장작개비를 꺼내들고 막 두드려 패주고 싶었다.

이제 식탁에 오른 가재미, 꽃게를 보게 되면 선장 아저씨랑 동무들이 어떤 눈으로 나를 볼까. 내가 그를 꼬드겨 물고기를 떼냈다고 할거야. 아이 속상해... 어찌면 좋담...

처녀는 드디어 어떤 단호한 결심을 다지듯 입술을 움켜 물고 보기도 싫은 가재미, 꽃게구력을 한쪽 구석에 집어 던졌다.

(4)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 난 선원들은 귀항준비를 말끔히 끝내고 갑판에 빙 둘러 앉아 식사를 하였다. 날은 어지간히 밝아 와서 서로의 얼굴을 가려볼수 있을 정도였다.

홍명애는 통강냉이밥을 내놓은것이 제 잘못이기나 하듯 송구스러웠다.

《통강냉이밥이라도 많이들 드세요. 흰쌀이 두끼 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다가 환자가 생기면 흰 죽이라도 쑤어 먹여야겠으니...》

《그렇지 않구. 우리 명애가 제일이다.》

기관장이 이렇게 말하면서 통강냉이밥을 달게 떴다.

《내가 일을 쓰게 못해 명애가 안달아 하누나. 다 내 탓이다. 여유 있게 식량을 타도록 할걸... 자, 어서 명애도 밥을 먹자.》

선장이 웃으며 한옆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홍명애는 남태성이 아까부터 자기의 시선을 붙잡아 보려고 자꾸만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것을 눈치채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척 하였다. 어제밤 가재미와 꽃게를 이 아침에 내놓을줄만 믿었던것 같았다. 허지만 그걸 어떻게 내놓는단 말인가.

남태성은 자기의 뜻이 서리 맞은 풀잎처럼 흘러지고 말았음을 알았던지 밥을 먹는동안는등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하더니 치솟는 자격지심에 받들린것처럼 벌떡 일어나 버린다. 그는 온몸으로 말하는것 같다. 이젠 뭐가? 어제밤에 그만큼 말했는데 아닌보살하고 내놓지 않다니 이젠 분명 나와 관계를 끊는다는 말 없는 포고다. 진정으로 그렇다면 할수 없다. 이 시각부터는 홍명애 너를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 3년이나 아까운 시간을 너를 위해 바쳐 왔다. 그동안 무슨 말인들 안했던가. 그러나 너는 끝내 듣지 않았다. 좋다, 그만 두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처녀는 그 무언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며 마음속으로 대답하였다. 좋아요, 나도 그걸 바랬으니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거예요. 좀 더 일찌기 그랬으면 더 좋았을거예요-라고.

이윽고 선박 《C-XX×12》호는 부포앞바다를 떠났다. 질게 낀 해무는 여전하였다. 예상에 끌리워 오는 부선도 앞코승이만 보이고 그뒤로는 보이지 않는다.

홍명애는 아침 설것이를 끝내고 취사장안팎을 깨끗이 밀대질을 하였다. 한쪽 구석에 어제밤 남태성이 가져 온 그 가재미, 꽃게구럭이 그대로 있었다. 날 밝은 지금에 보니 꽃게 한마리가 자기의 주먹 같은건 두개를 합쳐도 대비도 안되게 크고 호합지다.

《아이구머니나!》

처녀는 저도 모르게 가벼운 탄성을 내질렀다. 참 말 희귀하다. 이런것을 잔치상에 놓으면 당장에 잔치상이 환해 진다. 가재미는 또 얼마나 탐스러운가. 이것은 보기 드물다.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있는 그것들이 탐났지만 처녀는 못 볼것을 본것처럼 게릴믹히 여겨 저서 그것을 문밖으로 들어 내갔다. 그때 마침 취사장앞을 지나가던 갑판장이 그것을 띄어 보고 걸음을 툭 멈추었다.

《에크, 이 꽃게 바라. 굉장하구만! 이젠 다 어디서 났소?》

《태성동무가 어제밤에...》

처녀는 제때답 얼굴이 홍시처럼 되어서 고개를 숙이었다.

《남태성이?! 그가 이걸 어디서?》

처녀는 어제 잡은 물고기중에서 빼놓은것 같다고 대답할수 없었다. 그런 말은 외우기만 해도 부끄러운것이다.

《허, 어제 잡은 물고기에는 이런것이 한놈도 없었는데... 그물을 내가 직접 털었는데, 아하- 그렇지. 그 녀석...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에 올랐됐구만. 물에서 넘겨 받은 강냉이를 배에다 실어놓았는데도 태성이가 보이지 않아서 기다렸더니 그가 나중에야 왔더라 말이야. 불룩한 배낭을 지구... 그제 무엇이냐 물었더니 후에 알게 된다고 씨물씨물 웃더니만 이걸 물에서 사가지고 왔됐구만. 허, 그 녀석 피짜다!》

《아니, 그제 정말입니까?》

《정말이구말구.》

갑판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홍명애의 가슴속에선 남태성에 대한 죄스러움이 점점 살아 났다. 난 그것도 모르고 그를 얼마나 비웃었다. 이제 무슨 낯으로 그를 본단 말인가. 배를 질게 둘러 싸고 있는 안개처럼 그의 마음속엔 이같은 생각이 질게 떠돌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선수갑판쪽에서 남태성이 웨치는 소리에 놀란 처녀는 변척 정신을 차리었다.

《모두 갑판우에 올라 오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갑투끈인지 모르겠군-》

홍명애는 갑판을 향해 몇걸음 나아갔다. 아닌게 아니라 남태성이 선원실 문을 열어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 보며 《빨리들 올라 오라구요. 내가 잘못 볼수도 있으니깐.》 하고 다긋는다.

《태성동무, 무슨 일이에요?》

처녀는 가까이 다가서며 조용히 물었다. 그는 한번도 남태성에게 먼저 말을 걸어 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에게 무엇인가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 그렇게 했는지 몰랐다. 태성동무는 자기의 부탁을 들어 주지 않은 나를 잘 대해주지 않을거야. 그렇게도 꽃게와 가재미를 내놓으라고 했었는데... 얼마나 원망할가, 못된 처녀라고... 아니, 난 벌써 들었지. 나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 무언의 목소리를...

아니나다를가 남태성은 홍명애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몇순간 뻔뻔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자기를 꿰뚫어 보는듯한 눈길은 처음이다. 하는 말은 또 얼마나 차거운가.

《해가 서쪽에서 났소. 동무처럼 반대쪽에서... 제길할, 망할 놈의 해가 어디서 뜨는거야. 우리배의 왼쪽에서 뜨다니, 오른쪽에서 떠야 할텐데.》

홍명애는 망할 놈의 해가 반대쪽에서 났다는 그 말은 자기를 빗대고 하는 소리라고 직감하였다.

《해가 서쪽에서 뜨다뇨?》

처녀는 잘못을 저지른 어린 소녀처럼 기여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길 보시오. 서쪽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처녀는 열겔에 그가 가리키는 서쪽을 보았다. 배구공 같은 해가 해무속에 가리워 뿌옇게 보인다. 아니, 그럼 우리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우리가 북상하는데 해가 오른쪽, 동쪽에 있어야 옳는데... 지금은 아침이다. 저녁이면 몰라도 아침인데... 홍명애는 깜짝 놀랐다. 그러니 배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처녀는 대답을 기다리듯 남태성을 바라보았다.

선원실에서 동무들이 올라 왔다. 무슨 영문인지 급기야 알아차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열어 붙은듯 할바를 모른다.

왕청같이 남쪽으로 가는 배, 언제부터 항로를 미실했는지 모르는 《C-XX×12》호... 해무가 잔뜩 낀데다 뜻밖에 라침판이 고장난줄을 몰랐던것이다...

선장은 황급히 배머리를 돌리며 소리쳤다.

《무전수, 쌍안경으로 전방을 감시할것. 나타난

정황을 무전으로 조국에 알릴것!》

이 배가 한바퀴 방향을 바꾸는 반경이 아무리 짧게 한다 해도 100m 가 넘는다. 그런데다가 뒤에 부선이 달려서 배는 굵게 선회할수밖에 없었다.

《전방에 해상분계선! 거리 800. 오른쪽에 백령도, 거리 2,000.》

무전수가 벼락같이 보고하였다.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쌍안경을 선장에게 넘겨 준 무전수가 무전실로 뛰어 내려 갔다.

배머리가 동쪽을 향하였을 때 선체가 흔들리면서 한쪽으로 기울어 졌다.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배의 왼쪽 옆구리를 사정없이 치는것이였다. 위험하였다. 빨리 배를 돌려 해류의 흐름방향과 직선상에 놓이게 하지 않으면 배는 여불없이 뒤집힐것이다.

《주의! 전원 구명조끼 착용할것!》

짧고도 날카로운 명령이 내렸다.

모두 선장의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배의 중심부에 모여 와 무엇이나 붙잡을수 있는것을 단단히 틀어 쥐고 파도와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명에는 갑자기 겁이 났다. 그는 저도 모르게 남태성이를 바라보았다. 남태성의 시선은 예상에 끌리워 오는 부선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있는 배의 위험에는 관심밖인듯 하였다. 그러니까 부선이 걱정되는 모양이구나. 저 동무는...

홍명애의 생각은 여기서 끊어 졌다.

배가 갑자기 정충 뛰여 오르는것 같더니 불시에 왼쪽으로 기울어 졌다. 그는 란간을 꽉 그러쥐었다. 딛고 선 갑판이 경사졌다. 두발이 허공중에 들렸다. 철봉에 매달린것처럼 온몸의 무게가 두팔에 실렸다. 세찬 파도가 그의 머리와 어깨, 온몸에 덮치듯 쏟아져 내렸다. 그 타격으로 한쪽손이 풀렸다. 당장 파도에 휘말려 바다로 멀어 질것같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배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졌다. 눈 깜박할 사이에 명에는 바로 섰다가 란간을 그러안고 꺼꾸로 섰다. 당장에 《악-》 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입술을 앙다물고 참았다. 소리친다한들 누가 어떻게 도와주겠는가. 모두들 자기처럼 정신없이 들볶이울것이다.

취사실에서 웅장명강 맞부딪치며 화식기재들이 제가끔 굴러 다녔다.

몇분이 지났다. 길들지 않은 생마처럼 날뛰던 배가 갑자기 순해 졌다. 드디어 배가 해류와 일직선상에 놓인것이다. 위험에서 벗어 났다. 저절로 안도의 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 배의 발동이 꺼진것이다. 파도에 부대끼면서 고장이 난것인가.

《기관장동무, 뭐요? 왜 발동을 껐소?》

선장이 기관실을 향해 소리쳤다.

기관장이 머리를 내밀었다. 당황실색한 얼굴빛이다.

《기관엔 이상이 없는데... 파부하를 받으면서

...》

그렇다면... 급히 고장원인을 찾아 퇴치하지 않으면 표류된다.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에 휘말려 떠날려 갈수밖에 없다. 누구나의 몸이 소름이 끼쳤다.

이때 남태성의 고함소리가 날아 왔다.

《선장동지, 추진기에 부선예삭이 감겼습니다.》

모두들 선미갑판으로 달려 갔다.

예삭고리를 비끄러맨 예삭이 바다밑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은 스무발가량 동안을 두었다가 나타나 활시위처럼 팽팽히 부선과 련결되어있다.

배가 방향을 급히 돌리는 순간에 두 배사이의 거리가 예삭의 길이보다 가까와 지고 그래서 바줄이 늘어 진 탓이 분명했다.

누구인가 후유- 하고 긴 한숨을 내불었다.

잠간사이에 배는 벌써 방향을 잃고 해류가 하자는대로 기우뚱거리었다. 아까처럼 배의 옆구리에 수직으로 해류를 받는다면 매우 위험하다. 조금전엔 그래도 최대마력을 내는 추진기의 덕분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뒤집혀 지지 않으면 조난 당하여 해상분계선을 넘을것이다. 그 저주로운 해상분계선이 지척이 아닌가.

갑판장이 구명조끼를 와락와락 벗는다. 배밑창으로 들어 가 바줄을 풀어 내려는것이다. 11월 초의 바다물은 차거웠다.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세차지고 파도가 높아 졌다.

《아바이는 안됩니다... 홍명애동무, 뭘하고 있소? 칼!...》

남태성이 자기도 옷을 벗으며 소리쳤다.

홍명애는 그제야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래, 그래... 맨손으로야 어떻게... 칼, 칼이 있어야지.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담. 땡땡이같이. 난 땡땡이야. 그는 자신을 탓하며 취사실로 바람처럼 내달렸다.

취사실은 뒤죽박죽이다. 식기, 술가락, 국자, 양재기, 버치, 가마뚜껑, 장작개비... 모든것이 다 휘뿌려져있다. 그런데 식칼, 식칼만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팽이처럼 좁은 취사장안을 맴돌아 쳤다. 그런데... 없다. 식칼이 눈에 띄우지 않는다. 초조했다. 안타까웠다. 아, 있다. 여기 있다. 식칼은 엉뚱하게도 가마속에 들어 가있다! 하긴 무슨 일인들 없으랴. 북쪽으로 가야 할 배가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예삭이 뜻밖에 추진기에 감겼을라니... 홍명애는 배의 운명이 이 식칼 하나에 달려 있기라도 한듯 그것을 꼭 그러쥐고 뛰어 갔다.

남태성은 내의바람으로 허리에 바줄을 매면서 《빨리, 빨리! ...》 하고 처녀를 다그쳐 댔다.

벌써 배는 퍼그나 밀려 나갔다. 한초한초가 생사를 판가리하는 순간순간이다.

홍명애는 남태성에게 식칼을 넘겨 주었다. 그

러자 웬일인지 남태성이 한테 무엇인가 빚진것 같은, 그래서 죄스럽던 마음이 조금 가셔 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칼을 이리 내오!》

갑판장이 남태성의 손을 짹 그러잡았다. 그의 허리에도 바줄이 매여 저 있었다.

《안됩니다. 이 칼은...》

《어서 내놓소. 시간이 없소. 동무 아직...》

갑판장이 언성을 높이었다.

《이 칼은 제 손에 익은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젠 우리 집 식칼입니다.》

그의 말마디들은 울부짖는 파도소리에 몽청몽청 끊기우고 바다바람에 날려 갔다. 하지만 홍명애에게는 그 마디마디들이 자기 가슴에 날아 와 박히는 듯 하였다.

처녀는 놀라왔다. 이 시각에 그 식칼이 누구의 식칼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을 그냥 안고 있을 사이가 없었다.

《갑판장동지, 제가 예약을 끊으면 그걸...》

남태성은 누가 어쩔 사이도 없이 식칼을 입에 물고 파도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뒤로 안전바줄이 좌르르 풀려 나간다.

홍명애는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엔 그 무슨 피물처럼 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파도가 사납게 으르렁대고 있었다.

남태성은 보이지 않았다. 처녀는 뉘이 빠진듯 아무것도 생각지 못하였다. 다만 안전바줄만을 짹 그러쥐었을뿐이었다.

선장이 조타실에서 시간을 재라고 고향친다. 누군가가 10초... 15초... 20초... 하고 큰 소리로 시간을 센다. 사람의 폐활량이 아무리 크다 해도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몇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때문에 시간을 반드시 재야 하는것이다. 25초... 30초... 긴장한 초초가 흐른다. 흐르고 흐르며 사람들의 심장을 쥐여 찢다.

아, 태성동무가 추진기에 이르렀을가. 물살에 떠내려 가지나 않았을가. 혹시 바다에 뛰어 들 때 입에 물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리지나 않았을가.

35초... 40초... 시간을 알리는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모질게 그의 고막을 때린다. 내가 왜 그 동무에게 그따위 말을 했을가. 그 동무를 바다에 빠뜨렸으면 좋겠다는 새망스러운 소리를 왜 했을가... 그래, 그 식칼때문이였지. 그 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땡꿍이, 땡꿍이 같은게... 그런 소리를 새빨지게 함부로 하다니... 난 어쩌면 좋아...

처녀는 뉘뛰는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만약 그를 대신하여 바다에 뛰어 들수만 있다면... 생사를 판가리하는 위험앞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그런 동무를 3년동안이나 마음속으로 저울질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면서 그

를 피해 다닌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었다. 평시엔 사내다운 기질을 찾아 볼수 없고 있는지 없는지 늘 조용히 지내던 그가 제일먼저 용감하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구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40초... 45초... 50초... 한초가 백년 같은 시간이, 일생의 고통을 한순간에 다 느껴 보는 그런 한초한 초가 쉬임없이 흐른다. 그러나 소용돌이치는 파도속에 들어 간 태성에게선 아무런 소식도 없다. 얼마나 숨 막힐가. 얼음같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몸이 얼마나 얼어 들까. 피줄이 졸아들고 온몸이 가드라 들어 손발이 제대로 움직여 질까. 아, 그 동무의 심장이 견디여 낼수 있을까. 아니, 견디여 낼거야. 견디여 낼거야... 홍명애의 온몸은 근심과 걱정으로 죄다 불 타서 없어 질것 같았다.

아니, 아니, 더는 못 견디겠어. 이제 조금만, 10초만 더 있다 바줄을 끌어 올릴테다. 누가 뭐라고하는데, 난, 난...

그 순간.

《예약이 끊기웠다!》

갑판장이 소리치며 바다에 뛰어 내렸다.

홍명애는 물결에 늪늪실실 떠내려 가는 부선예약을 덮쳐 잡는 갑판장을 눈결에 보며 결따라 남태성의 안전바줄을 끌어 당겼다. 어찌된 일인가. 처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움켜물고 있는힘껏 잡아당겼다. 그래도 꿈쩍 않더니 바줄에 꿈틀대는 기맥이 미처왔다. 금시 처녀의 눈이 빛났다. 살아 있다, 살아 있어. 그 동무가 무사하다. 지금은 아마 추진기에 잠긴 예약을 풀어 내고 있을것이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확 피여 올랐다.

그는 목 메어 《태성동무!-》 하고 부르짖었다.

《어서 올라 오세요-》

그 목소리를 물밑에서 어이 들으랴만 처녀는 찾고 또 찾으며 바줄을 끌어 당겼다. 바다밑에서도 애타는 그 심정을 알았던지 바줄이 또다시 꿈틀꿈틀 신호가 온다. 처녀는 바줄을 통해 태성의 맥박을 느꼈다. 그의 체온을 감촉하였다. 그의 숨결, 그의 목소리까지도 마음속으로 듣고 느끼었다.

넘려 마오. 거의 다 되었소... 난 팬참소...자, 이젠 다 되었소. 어서 바줄을 당기오...

홍명애는 눈물범벅이 되어 바줄을 당기었다. 선원들이 모여 와 처녀를 도왔다.

어이싸... 어이싸... 한발 또 한발... 드디어 남태성의 머리가 나타나고 그의 상체가 불쑥 솟아올랐다.

홍명애의 눈에는 그가 바다의 거인처럼 안겨 왔다. 한없이 정답게, 더없이 장하게 안겨 왔다.

《선장동지, 남태성동무가 올라- 왔어요.-》

흰 취사복차림의 처녀의 모습은 마치 폭풍을 이겨 낸 갈매기, 파도우를 날아 떼며 《호이-호이-》

기쁨을 터치는 흰 갈매기 같았다.

×

안개도 가서 지고 어느덧 해가 동쪽 반공중에 솟아 올랐다.

배는 잃었던 항로를 바로 잡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

홍명애가 혼잡탕이 된 취사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태성이 다가왔다. 그는 그전처럼 얼굴을 붉히며 한동안 머뭇머뭇하더니 칼을 쏙 내밀었다.

《명애동무, 이 칼을… 받소…》

돌아 설듯 하더니 그 자리에 무릎 멈춰 서서 다 음말을 이었다.

《이 식칼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때부터 써오신 칼이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일제놈들이 쇠붙이란 쇠붙이는 깡그리 굶어 가고 집집의 손가락마저 빼앗아 가던 패망말기에 우리 집에 남은것은 이 식칼뿐이었소. 그래서 아직은 철부지 어린이였던 우리 부모님들은 산관을 헤매며 바로 이칼로 풀뿌리를 캐고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살았소. 조국은 해방되고 생활은 나날이 행복해 졌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지난 날을 잊지 말자고 이 칼을 가보처럼 간수해 왔소… 나는 철이 들면서 이 칼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이 칼을 볼 때마다 고마운 우리 제도, 우리 공화국, 우리 장군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속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아참, 이거 내가 또 싱거운 소리를 하는게 아니요. 자, 어서 칼을 받소. 그래야 점심을 준비하지.》

남태성을 바라보는 처녀의 눈가엔 불시에 눈물이 맺혀 돌았다. 홍명애는 소중히 식칼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자신없이 기여 들어 가는 허아래소리로 중얼거렸다.

《동무는 바보예요. 바보… 왜 진작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허허… 그런데 울기는 왜 우는거요.》

《울지 않겠어요. 동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우는건 동무가 글썽 사내답게, 씩씩하게, 대담하게 배를 구원해 내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절로 나서… 하지만 이젠 울지 않겠어요.》

《허허.》

처녀는 또 눈물을 흘리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명애는 늘 선비처럼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태성이 어이하여 위급한 순간에 한몸을 내댈수 있었던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였다.

《태성동무, 좀 쉬세요. 바다바람이 차요. 선원실에 들어 가 누워 계세요. 그동안 전 동무가 어제밤 부탁했던 그 꽃게랑 가재미랑…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동무의 속생각을 모르고 그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꽃게랑 가재미랑 잘 손질해서 동무의 말대로 하겠어요.》

태성의 얼굴이 확 밝아 졌다.

《그러면 우리 함께 동무의 생일상을 차리자는거요?》

남태성은 바라고바라던 말을 듣고 기쁨김에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명애는 얼굴을 활짝 붉히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좋소! 좋아!-》

멀리 저 멀리 수평선 한끝까지 청춘의 열정은 한껏 설레이고 그우에 흰 갈매기들이 날아 엔다.

아, 바다, 바다… 알수 없는 바다! 조용한 날에는 잔잔히 뛰놀다가도 사나운 폭풍이 몰아 칠 때에는 그것을 맞받아 격랑을 일으키며 내닫는 바다!

처녀는 자기가 안긴 남태성의 넓은 가슴이 바다처럼 생각되었다. 깊고깊은 바다처럼, 사나운 폭풍이, 무서운 해일이 닥쳐 와도 변함 없는 깊이를 안고 있는 그 바다처럼! 바다처럼! 바다처럼!

흰 갈매기 한마리가 나래를 접고 배전에 내려 앉았다. 녹두알 같은 눈을 빛내이며 처녀의 속마음을 엿보는듯 고개를 가웃거리다.

홍명애는 방긋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던 갈매기는 갑자기 푸드득 배전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 올랐다. 날개를 너울거리며 그들의 머리위를 오래도록 감돈다.

아오- 아오- 갈매기 울음소리가 저 멀리 수평선가로 울려 퍼져 간다.

명애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잘 알지. 내 사랑 갈매기야…

갈매기 갈매기 흰 갈매기
너 어이 바다를 사랑하나
무엇에 반했거나
너 어이 바다 떠나 못 사나
말해 주려마 그 사연
아, 갈매기 갈매기 흰 갈매기!

시조

죽음과 바꾼 삶

-공화국영웅 하응철의 어머니가 부른 노래-

양치성

아들아, 나는 듣고 있다

세상에 한번 왔다가
이제는 영영 간다고
가도 땃땃이 소리치며 간다고
이 에미에게 알리는
아들아, 너의 목소리였더나

형제 같은 전우들을 구원하러
터지는 지뢰를 덮은 네 심장의 폭발소리
산뿌리 흔들고 하늘땅을 흔들었을
그 폭음소리 폭음소리...

그날 그때에는
그 소리
내 정말 왜 못 들었을까
총 메고 초소로 떠난 날부터
그 어느 한시도 널 잊은적 없어
네 맥박소리 네 숨결소리조차
곁에 있는듯 다 들으며 산 이 에미였다만...

그것은 이 탄광마을이 다 잠든
별빛 총총한 밤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나 밥 짓히고 빨래를 하고...
그토록 분망하던 어느 새벽이어서 그랬을까
그날엔 내 미처 못 들은 그 폭음소리
어쩐지 이제는 날마다 크게 울려 오는구나

그럴 때면
우리 탄광 취주악대 울리는 노래속에
집 떠나던 그날처럼 밝게 웃으며
내앞에 마주 서는 네 모습

네 등뒤로 어깨 비비며 내 품에 뛰여 드는
네가 구원한 전우들의
술한 얼굴들...

숙영의 모닥불가에서
야전밥통에 끓인 밥 함께 나누고
땀 젖은 잔등 기대고
풀섶에 함께 잠들던
너의 전우들 그모두를
나는 내 아들로 끌어 안는다

용타, 아들아
너에게 갈라 준 이 에미의 한줄기 피를
동지의 사랑에 다 바쳐
술한 아들들을 이 에미품에 안겨 주며
너는 나라의 영웅이 되어 내앞에 서 있으니

그 폭음소리는
네가 세상에 새로이 태어나는 소리
네 출생의 고고성은
한집의 울타리를 넘어 서지 못했던만
장군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며
네 심장이 터뜨린 그 소리는
온 나라 다 들은 새로운 고고성

아들아, 지금도 나는 듣고 있다
멀리서 가까이서 내 마음속에서
그냥그냥 울려 오는 그 폭음소리를
영원한 삶을 크게 소리치는
너의 땃땃한 웨침소리를!...

그 자리 비여 있어도

밤
깊은 밤
문득 잠에서 깨여 날 때면
버릇처럼 내 잠자리곁을 더듬어 본다
어릴적엔 너를 안아
젖을 물려 잠재우던곳
초소로 떠나기 전날밤에는
다시 아이가 된듯

네 절로 내려 와 작별의 잠자리 뒀던
그 아래목

비여 있구나 거기는
네가 남긴 체온인듯
구들만 따뜻이 내 손길 더웁힐뿐
내 살불이
더는 거기 없구나

찌르르...
어머니의 가슴에 흐르는 뜨거움은
불이나
아니면 불 같은 생각이나

억실한 네 눈동자
마지막 달고 간 그 모든것
목숨을 바쳐 네 사랑한
조국의 산과 들, 조국의 미래가
저 억만 별무리되어
이 잠자리에 가득히 내려 앉는다

이 땅의 다른 어머니들결에는
이렇게 아들들의 자리가 비워 지지 말라고
조국수호로 군공 떨친 전우들이
고향의 품에 웃으며 돌아들 가라고
너는 이 밤도 조국의 초소를 지켜
그저 어머니결을 잠시 떠나 있는게 아니나

아, 지금 내결에
네가 누웠던 자리는 비어 있어도
내 가슴속에는 총을 멘 네가 곳곳이 서 있거니
장한 아들을 둔 행복으로
내 마음속에는 네가 가득 차 있다

할 일이 많아

오늘은 《수집탄》을 하였다
인민반원들과 함께
갱구앞 차도길을 굽어
버럭더미를 헤쳐...
구보진군길에 나도 땀을 바치었다

래일은 또 무엇을 할가
네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이 마음엔
그저
일을 더할 생각뿐...

네가 학교로 오가던
탄광마을 언덕길엔 돌층계도 쌓고
수원지정리도 말끔히 해야 하지
거름을 모아 농장에 보내주고
파고철수매에도 앞장을 서야 하지...

보는것마다 할 일이고
할 일마다
내 손만 기다리는것 같은 마음
반장자리도 겹다 내놓았던 내가
스스로 지구반장일을 맡아 하는 이 힘은

정녕 어디서 생긴것인가

영웅의 어머니라고
어디엘 가도 앞자리에 내세워 주고
영웅네 집이라고
누구나 찾아 와 일손을 도와 주는
로동자구의 뜨거운 환대속에
내 다시 태어난듯

아들아, 내 10년은
더 짧어 진것 같구나
사람들의 다심한 관심속에서
네가 세운 위훈의 크기를 느끼며
네 금별의 빛발아래서
내 할 일을 찾으며...

아, 나는 너에게
하나의 피줄만을 갈라 주었지만
너는 나에게
영원히 짧어 사는
힘찬 생을 주고 갔구나!

죽음과 바꾼 삶은 장하다

그렇게 번쩍이도록 닦고닦았다는 그 총으로
원쑤의 양가슴을 꿰어 보지 못하고
너는 갔다
모래자루를 치며 벽돌장을 깨며
강철로 버려 왔다는 그 주먹으로
원쑤의 숨통을 박살내지 못하고 너는 눈 감았다

젖은 옷을 입어 말리는데 습관된
병사생활
언제나 신끈을 조여 맨채로

판가리싸움을 마중 가던 그 길
그 총 그 주먹이 때를 만났다면
더욱 큰 군공을 받들어 올리지 않았으랴

허나
죽음으로 안아 올린 위훈은
어느 때나 그 무게 가벼운것 아니거니
동지를 위해 목숨 바친 그 사랑은
원쑤를 전률케 한 증오로 해서도
그만큼 값 비싼것이였구나

바로 그렇다
 네가 치솟는 불길 가슴으로 덮은 곳이
 다름 아닌 판가리격전장이었다
 네가 한심장 바친 그 사랑이
 더없이 서슬 푸른 원쑤에 대한 증오였다

분명 놈들은 놀랐으리라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전사들이
 얼마나 고결한 인간인가를 보며
 그날 전우들에게 가닿지 않은 파편은
 무서운 철퇴가 되어
 놈들의 가슴가슴을 산산히 꿰뚫었으리라

나 죽어 너를 살리는 정신
 장군님 키워 주신
 조선인민군병사들의 도덕과 의리가

핵탄의 위력보다
 천만배 더 강한것임을 보여 준
 너는 승리자!

오,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
 장군님 뜻을 받드는 곳엔
 어디나 위훈이 태어나는 격전장임을
 동지의 사랑에 헌헌히 목숨 바친
 그 죽음으로 너는 보여 주었거니

살아 바치는 뜨거운 숨결만이
 조국 위한 청춘을 빛낸다더냐
 너는 의로운 죽음으로 삶을 가르친 영웅
 그렇게 사는 삶은 그토록 장한것이구나
 아, 빛나는것이구나!

보름달치녀

김재호

《우리 마을-우리 초소》 군인동무들
 이름도 잘 다는 능수들이요
 둥근 산을 보면 호박고지
 길게 뻗은 등성이는 칼릉선이라
 이름도 척척 잘 달아 주더니
 오늘은 우리 마을 분조장동무더러
 보름달치녀라고
 저저마다 부르오

인물이 환해서 보름달일가
 웃음이 밝아서 보름달일가
 얼굴 웃음 환한건 사실이어도
 농사법 밝아서 그런 이름 달았을거야

아니면
 우리 초소 나어린 전사동무
 입맛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닭곰을 싸안고 령 넘어 찾아 온
 잊지 못할 그 밤에

보름달 환히 머리위에 떠있어
 그때부터 보름달치녀가 되였는지

아니라고
 우리 분조장
 영예군인총각에게 시집 가는 날
 우리 초소 군인들
 정식으로 그 이름 달아 줬다오

저 하늘의 둥근 달은
 보름에만 밝다지만
 우리 분조장은
 초생, 그믐 가림 없는 보름달이요
 우리 초소 군인들 살뜰히 비쳐 주듯
 앞 못 보는 영예군인 한생 끝까지
 밝게밝게 비쳐 주는 보름달 됐소
 그래서 여기서는
 보름달치녀라면
 모르는이 없다오

약속

김력룡

약속이란 무엇인가...

약속으로 시작되어 약속으로 끝나는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닐가. 사람들 호상간의 약속, 사회와 집단 앞에서의 약속, 랑심과 의무와의 약속, 지어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이렇듯 인간의 한생을 짊 채우는 약속이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그래서 약속이야말로 강렬한 기쁨과 불만을 함께 안고 있는것이라.

약속이 실현되면 편하고 즐거워 지고 약속이 어긋나면 섭섭하고 허전하고...

하지만 약속이 어겨 진 일이 오히려 크나큰 환희로 된 때가 나에게는 있었다.

얼마전이었다.

어느 날 마음씨 고운 녀인인 군상업관리소 소장이 한창 차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를 찾아왔다.

왜서인지 우리 사업소에서는 상업관리소의 수송과제가 생기면 의례히 나를 보내곤 한다. 그래 상냥스런 소장과는 말할것 없고 종업원들과도 자연히 허물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 걸죽한 통담도 곧잘 주고 받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절 나는 상업관리소의 물동을 도맡아 실어다 주다 싶이 했다. 주로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상품들이었다. 종업원들이 거의 다 녀자들인지라 내가 차를 끌고 가기만 하면 그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동생이나 오빠를 대하듯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곤한다. 특히 해마다 김장철이 되어 소금을 실을 때면 나는 제법 《왕자》나 되는듯 떠받들리우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뿌리가 찢릿해 옴을 금치 못한다.

소금이 얼마나 귀하면 운전수인 나까지 이렇게 떠받들리우는가...

며칠전에도 상업관리소 소장이 나를 찾아 왔었다.

그는 곧 남포로 소금을 실러 가자고 하면서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는것이였다.

《차가 긴장하다는걸 사정사정해서 겨우 동무를 받았어요. 그러니 아무때나 떠날수 있게 준비를 잘해주세요... 운전수동무, 꼭 약속을 지켜야 해요.》

《예예, 녀려마시라요.》

《두고 보세요. 이번에 갔다 와선 한상 차리겠어요. 결혼식상 못지 않게. 호호호...》

나는 그와의 약속대로 차정비는 물론 새 공구가

지 몇개를 더 마련해 놓았었다.

때문에 나는 지금 그가 남포로 떠나기 위해 나를 찾아 오는줄로 알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이 흘러 나왔다.

《운전수동무, 이걸 어찌나, 약속을 어겨서...》

《?!》

《남포엘 가지 않기로 했으니 말예요.》

《아니, 그제 무슨 소리입니까. 며칠전엔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구 신신당부하더니?》

나의 어리둥절해 진 눈길이 소장의 얼굴에 날아가 박혔다.

《호호... 그랬지요. 하지만 운전수동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래지 않아 어대진바다가제염소에서 질 좋은 소금이 팡팡 쏟아 지지 않겠나요. 그러니 부득이... 참 미안해요. 호호호...》

이렇게 말하며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한창 시절의 처녀들처럼 몸까지 흔들며 웃는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저렇듯 기쁨과 만족에 함뻍 취해 밝게 웃는 녀인!

처음에는 꽤 《언짢》았으나 나의 속은 차츰 너누룩해 졌다. 오죽이나 바다소금이 귀했으면, 오죽이나 제고장 소금을 그리워 했으면...

(소장의 말이 옳지. 옳구말구. 오래지 않아 소금이 쏟아 지구말구...)

나의 생각은 어느새 잊지 못할 8월에도 활짝 나래를 폈다.

삼복철 무더위로 킁-킁- 숨길이 막혀 드는 그날!

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푸르른 어대진바다기슭의 제염소건설장을 몸소 찾아 주실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정말이지 그이께서 들리셔야 할곳이 그 얼마나 많으신가. 게다가 그이의 한초한초는 또 얼마나 바쁘신가.

간악한 제국주의무리들이 침략의 틈을 노리며 독기 서린 발톱을 쳐들고 팡분하는 때, 더없이 귀중한 조국을 수호하는 우리의 인민군전사들이 얼마나 그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텐가.

국방에도, 사회주의건설에도 최우선으로 필요되는 공업의 식량-쇠물을 팔팔 뽑아 내는 나라의 맡아들인 용해공들이 또 얼마나 오매불망 그이를 기다리고 있었을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북변에 자리 잡은 어대진바다가의 제염소건설장을 제일 먼저 찾아 주시었다! 짬뽕로 다져진 거치른 감탕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층층 경사 급한 다락밭도 개의치 않으시고 찾아 오신 장군님.

그이께서는 일망무제한 소금밭을 오래동안 둘러보시며 공사를 하루 빨리 끝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세세히 가르쳐 주시었다. 뿐만아니라 능률높은 현대적인 기계수단도 보내주시고 걸린 문제들도 님김없이 죄다 풀어 주시면서 오래지 않아 질 좋은 소금이 생산되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외지에 내보낸 친자식을 두고 애모쁜 마음을 더 기울이는 어머니가 되시여 수도와 멀리 떨어진 함경북도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 늘 다심하게 보살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함북도의 소금문제를 놓고 각별히 념려해 오시었다. 그이께서는 공기와 물과 쌀에 못지 않게 소금도 중요하다시며 함북도에서 자체로 소금을 해결할수 있는 길을 벌써 오래전에 현명하게 가르쳐 주시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이번에는 나라의 대소사를 다 미루시고 8월의 폭양도 아랑곳없이 제염소부터 찾아 주신 우리의 장군님.

수수억년 무심히 철썩이던 바다물에서 알알이 희디힌 보석을 찾아 내시여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안겨 주시려는 어버이장군님...

나의 눈앞에는 금시에 폭포로 쏟아 지는 백설갈

은 소금더미가 방불히 보이는듯 하다. 그 사연 깊은 천연보물을 손안에 정히 감싸쥐고 하염없이 눈물짓는 녀인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어려 오기도 한다. 그 속에는 기쁨과 만족에 함뻑 취해 밝게 웃는 상업관리소 소장의 모습도 보인다.

한껏 달아 오른 나의 귀전에는 돌연히 그가 몇번이고 되풀이한 인정 스민 살뜰한 말마디가 되살아난다.

《약속을 어겨 정말 안됐어요... 그대신에 더 큰 상을 꼭 차리겠어요. 우리 고장 소금으로 담근, 운전수동무가 좋아하는 물고기, 젓갈이랑 깍두기랑 잊지 않고 그쪽그쪽. 호호호...》

아니다. 친절한 인민의 복무자여, 미안해 마시라.

그 《어긴》 약속이 오히려 그지없이 평범한 이운전수의 가슴속에도 무상의 감격과 환희를 안겨주었거니 내 진정 원하노라, 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약속을 맺을것을.

우리 서로 어버이장군님의 해빛 같은 사랑이 어린 것처럼 귀한 소금이 한시바삐 매 가정들에 듬뿍 듬뿍 차례지도록 지원의 구슬땀을 더 많이 바쳐갈것을.

하여 완공의 그날 우리모두 가장 진귀하고 가장 풍성한 마음속 축원의 잔치상을 차려 놓고 이나라 북변땅에 쌓이고 쌓인 세기적숙망을 말끔히 풀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감사의 큰절을 올리리라는것을!

상식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그의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러저러한 유익한 변화들이 일어난다.

8시간내에; 혈액속의 일산화탄소함유량이 정상수준에까지 감소되고 혈액속의 산소함유량이 정상수준으로 늘어 난다.

24시간내에; 심장발작기회가 감소된다.

48시간내에; 말초신경이 다시 생장하기 시작하며 후각과 미각이 좋아진다.

72시간내에; 기관지경련이 일어 나지 않으며 호

흡이 비교적 시원하게 진행되고 폐활량이 증가된다.

1~9개월내에; 기침, 피로 등의 증상이 경감되고 폐장에 새로운 선모가 자라남으로써 폐장의 점액처리능력이 강화되고 폐장자체가 깨끗이 유지되고 감염기회가 감소되며 체력이 증진된다.

5년내에; 일반수준의 흡연자의 폐암사망률이 떨어 저 비흡연자의 사망률에 접근한다.

10년내에; 암초기단계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교체되며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신장암과 같은 많은 암의 발병률이 떨어 진다.

박지원과 그의 문학

현종호

박지원은 18세기 우리 나라의 명망 높은 실학사상가이며 봉건사회말기에 뚜렷한 경향성을 띠고 힘있게 대두된 사실주의문학을 확고하게 대표하는 작가, 문예비평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파는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실사구시>의 구호밑에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박연암과 정다산의 사회개혁리론과 문학작품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전에 나온것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것이며 세상에 자랑할만한것이다.》

박지원은 당대의 진보적사상인 실학에 기초하여 사상리론활동과 문학창작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온 실학파의 거장이였다.

박지원(1737~1805)은 자를 중미, 호를 연암이라 썼는데 서울의 한미한 량반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조부 박필균의 슬하에서 자랐다.

박연암이 학문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것은 16살때 량심적인 학자로 알려진 리보천의 딸과 결혼한 뒤부터였다. 그는 장인 리보천의 주선으로 당대의 진보적학자였던 처삼촌인 리량천의 문하에서 글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실학연구의 길에 들어 섰다.

박연암은 어려서부터 이웃에 드나드는 하인들과 나무꾼들로부터 옛이야기 듣기를 즐겨 하였고 음악과 서화에 대한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문학창작의 길에 나서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연암은 18살때 처녀작 《광문전》을 썼는데 그후 《민옹전》, 《김신선전》, 《우상전》, 《량반전》 등을 창작하였다.

박연암은 27살되던 해에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과 묘향산, 약산, 속리산, 가야산, 천마산 등 명산들을 두루 편답하면서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우리 겨레의 미풍양속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박연암은 이 과정에 량반사대부들이 맹목적으로 위우는 유교교리의 허황성을 느끼게 되면서 점차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절절한 애국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립장과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회개혁사상을 담은 수많은 저서들과 문학작품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박연암은 30살을 전후한 시기에 발표한 수많은 저서들과 문학작품들로 하여 당대 량반

사대부들속에서 일정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직접, 간접으로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연암은 드디어 량반통치배들과 사상적련계를 가지지 않을 단호한 결심을 다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실학연구와 문학창작에 전심하기 위하여 황해도 금천군에 거처를 옮기였다. 그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력대 이름 있는 농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농서 《과농소초》를 직접 저술발표하였다.

박연암은 1780년에 8촌형 박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어 청나라를 방문하는 외교사절의 수원으로 중국려행의 길에 올랐다. 그는 조국에 돌아 온 뒤 4년간 심혈을 기울여 장편기행문 《열하일기》를 집필하였다. 《열하일기》는 풍부한 내용, 투철한 애국사상, 진실하고 사리정연한 필치 등으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반향을 일으켰는데 당대 이름 있는 학자들 거의 모두가 이 책을 읽었다 한다.

박연암은 명문거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므로 비록 살림은 가난하여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일찍부터 벼슬길에 나설수도 있었으나 실학에 뜻을 두고 학문연구와 문학창작에 전심하던 나머지 50살이 되도록 과거에 한번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당시의 세도재상 홍국영이 죽은 뒤인 1786년에야 자기의 사회정치적구상을 실천해 볼 생각을 가지고 선공감 감역이라는 벼슬자리에 나섰으며 그다음 한성부 판관, 서울의 안의현감, 명천군수, 양양부사 등을 련이어 지내였다.

박연암은 이 시기에 일련의 정론들을 집필하였는데 거기에서 적서차별의 철폐, 사노신분의 해방, 화폐제도의 개혁, 빈민구제 등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정론들을 썼다.

그는 1799년에 농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일념을 안고 《한민명전의》(《토지소유제한론》)을 집필하였다.

박연암은 1800년에 정조가 죽고 나어난 순조가 즉위되면서 반동적량반계층들의 탄압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 지자 양양부사를 그만 두고 집에 돌아와 독서와 저술활동으로 여생을 보내다가 1805년 12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박연암은 시, 소설, 정론, 수필, 기타 각이한 형식의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남기였다.

×

박연암의 문학은 철두철미 실학사상에 기초한것으로서 정연하고 체계적인것이였다. 연암은 투철한 실학사상에 토대하여 주장이 뚜렷하고 실천적방도가 명확한 미학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선행한 문인들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단편적이며 인상적

인 요소들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문학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진보적인 미학견해를 내놓았다.

박연암은 무엇보다 먼저 량반사대부들속에서 우심하게 나타났던 모방주의, 형식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암은 시 《좌소산인에게 준다》에서 남의 나라 옛 시문의 고답적인 문투를 무비판적으로 본따는 행위를 견결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모방주의자들을 두고 제단에 구멍을 뚫고 살면서 뿜내는 쥐새끼에 비유하면서 신랄하게 조소하였다.

박연암은 다음으로 참된 시문은 반드시 애국감정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영취고 서문》을 비롯한 글들에서 시문의 우단점을 논하려면 우리 나라의 현실을 반영한것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박연암은 다음으로 시문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암은 아름다운것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로동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예덕선생전》에서 주인공 선굴자의 형상을 통하여 그러한 사상을 강하게 제창하였다.

연암은 문장에서 작가의 고유한 개성적인 문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였다.

박연암은 다음으로 시문에서 높은 예술성을 갖추는것이 중요하다는 사상도 제기하였다. 그는 글을 잘 짓는것을 싸움에서 전법을 잘 활용하는것에 비유하면서 《전투지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떼버릴 군사가 따로 없고 글 잘 짓는 사람에게는 쓰지 못할 글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연암의 미학견해는 이렇듯 애국적이며 《실사구시》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전개된 진보적인것이였다.

박연암의 문학은 우수한 소설작품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 있다. 그의 소설작품으로는 단편집 《방경각외전》에 9편, 장편기행문 《열하일기》에 2편, 모두 11편이 전해 지고 있다.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는 단편들은 주제사상이 뚜렷하고 형식이 개성적이다.

《광문전》은 연암이 18살때 쓴 단편소설로서 사상적경향에서나 예술성에서 특색이 있는 작품이다. 연암은 《방경각외전》의 서문에서 이 작품이 《명성을 도적질하며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을 비난한 소설이라고 밝히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광문의 형상을 통하여 서울 종로거리에서 쪽박을 들고 빌어 먹는 아이들의 깨끗하고 순결한 의리와 인정세계에 돈 있고 권세 있는자들의 위선성과 허황성을 대치시킴으로써 량반사대부들이 자랑스럽게 떠드는 도덕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반하여 압박받고 천대 받는 근로인민들의 정신도덕적세계는 아름답기 그지없다는 사상을 밝히었다.

《말거간전》과 《예덕선생전》도 같은 주제사상

을 반영하였는데 《광문전》보다 세련되어 있다.

《말거간전》은 송옥, 조탑타, 장덕홍 등 세 사람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그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를 통하여 상인들과 량반들의 부패타락한 리면을 폭로하였다.

《예덕선생전》에서는 주인공 선굴자의 입을 통하여 권세를 뿜내며 거들먹거리는 량반사대부들은 모두다 리속에 눈이 어두워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부지런히 일하는 엄행수와 같은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존엄 있는 선생이라고 평가하였다.

《민옹전》, 《김신선전》, 《우상전》 등 작품들은 지혜의 애국정신은 있어도 봉건적신분제도로 말미암아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채 세상을 등지고 허무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민옹전》에서 주인공 민옹, 《김신선전》에서 주인공 김흥기, 《우상전》에서 주인공 우상의 형상들을 통하여 18세기 봉건사회의 내부모순의 격화와 량반지배계급의 정신도덕적파탄상을 신랄하게 적발폭로하고 있다.

《량반전》은 사상적지향과 예술적수준으로 보아 연암의 소설문학전반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는 작품의 하나이다. 연암은 이 작품을 통하여 단편의 명수, 기지 있는 풍자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작가는 《량반전》에서 량반의 칭호와 권위의 매대라는 기이하고 해학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실감 있게 엮어 나가면서 사멸에 직면한 봉건사회 말기의 부패상을 인상깊게 보여 주었다.

작가는 주인공인 정선군의 한 량반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량반계급들의 사회적처지와 생활이 어떻게 쇠퇴일로로 걷고 있는가를 신랄하게 발가 놓았다. 봉건사회에서 량반들은 신분특권으로 하여 조상의 《덕》에 불로소득하며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량반들의 수가 늘어 남에 따라 그들의 생활형편이 점차 악화일로로 걷게 되었다. 《량반전》은 이러한 량반들의 몰락상태를 예리한 사실주의적인 필치로 감명깊게 폭로하였다. 연암은 선행한 단편소설들에서 정문적성격이 짙은 표현을 지나치게 써서 예술성에 손상을 주는 제한성을 발로시켰다면 이 작품에서는 묘사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여 그러한 폐단을 극복하였다.

박연암은 《량반전》을 통하여 봉건사회말기 량반계층의 몰락의 불가피성을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실감 있게 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열하일기》는 연암이 중국러행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가지고 창작한 작품으로서 려행기적성격을 띠고 있을뿐아니라 작가가 금천군에서 생활하던 시기의 사회정치적견해를 집대성하여 반영한 백과전서적인 작품이다. 그러므로 《열하일기》는 단

일한 여행기형식을 취하면서도 다양한 문학형식을 가지고 철학, 정치, 경제, 전문, 지리, 풍속, 제도, 역사, 고적 등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열하일기》에는 단편소설들인 《범의 꾸중》과 《허생전》이 실려 있다.

《범의 꾸중》은 《열하일기》의 제4권 《관내정사》 항목에 실려 있는데 량반사대부들의 위선에 찬 생활을 적나라하게 비난한 작품이다.

작품은 주인공 북박선생과 동리자를 량반사대부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설정해 놓고 그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 나가면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위선자로, 지조도 양심도 없는 정신도덕의 파산자로 낙인하였다.

북박선생은 공리공담을 늘어 놓으면서 권세에 아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위도식하는 량반들의 성격적특질을 형상하였다면 범은 압박 받고 착취 당하면서도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농민들을 형상하였다.

연암은 작품에서 풍자적전형화의 세련된 기교를 보여 주었다. 작가는 천자와 제후를 비롯한 량반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는 북박선생과 동리자의 추악한 내면생활을 펼쳐 보이면서 그들이야말로 위선에 찬 인간추물이라는것을 까밝히었다.

《허생전》은 《열하일기》의 《옥갑야화》의 항목에 실려 있다. 《허생전》은 연암의 실학사상이 직접 구현된 작품으로서 18세기 사실주의소설문학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작품의 주인공 허생은 실학사상을 체현한 당대의 선진적지식분자의 형상이다. 그는 봉건사회말기에 계급분화가 진행되고 계급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낡은 사회의 고루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새로운 《리상사회》를 지향한 인물로서 당대 시대를 진실하게 체현한 특색 있는 형상이다.

허생은 가난한 생활을 체험하면서 실학을 탐구하는 과정에 사회개혁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허생은 선비로서 봉건적신분제도의 장벽을 뛰어넘어 장사길에 나선다. 작가는 허생이 독점적인 상업활동으로 거대한 재부를 얻는 과정을 통하여 상품교류와 대외무역의 장성, 화폐유통과 축적 등이 전에 없이 활발해 진 새로운 시대를 민감하게 반영한 인물이다.

연암은 작품에서 허생과 《변산군도》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놓고 그것을 통하여 가혹한 노비제

도, 농노제도의 속박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빈번히 들고 일어 나는 농민봉기의 진상과 그 사회적의의를 새롭게 밝히었다.

연암은 작품에서 허생과 어영대장 리완과의 대화와 갈등장면을 통하여 선진사상과 보수사상사이의 모순과 대립의 일단을 보여 주었다.

《허생전》은 이렇듯 실학사상을 구현한 이채를 띠고 있는 우수한 작품이다.

박연암은 시인으로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가 28살에 지은 시 《총석정의 해돋이》는 당대 시문학의 높이를 대변하는 연암의 대표작이다.

장쾌하고 우아하며 황홀하고 그지없이 아름다운 총석정의 해돋이 모습을 섬세하고 사실적인 필치와 열정에 불 타는 환상력으로 궁지속에 형상한 이 시에는 시인의 뜨거운 애국정서가 활활 흘러넘치고 있다.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함없는 긍지, 열렬한 사랑의 정서는 시인에게 청춘의 열정과 기발한 슬기와 호걸풍의 상상력을 안겨주었다.

연암의 시작품들은 유산이 얼마 안남아 전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어느 한편도 《음풍영월》풍의 목가적인 감정을 노래한것이 없다. 《압록강을 건너서 룡만성을 바라보고》, 《해인사》를 비롯한 시작품들은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였으며 《농가집》을 비롯한 시작품들은 땀 흘리며 부지런하게 일하는 근로하는 농민들에 대한 찬양과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였다.

박연암은 당대의 선진사상인 실학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탐독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 과정에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한 진보적사상을 내놓은 명망 높은 학자였고 뛰어난 문장가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유교성리학의 관점과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하여 문제의 제기와 해명에서나 사회적현상을 보고 평가하는데서 봉건유교사상의 울타리를 대담하게 넘어 서지 못하였다.

박연암은 그러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리한 비판적안목을 가지고 무너져 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진보적학자였고 문장가였다. 그는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자본주의적인것이 바야흐로 태동하고 그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던 근대사회의 려명기가 열리던 시기에 생활하면서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자기 창작에 구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뚜렷한 흔적을 남긴 18세기의 진보적인 문예비평가였고 뛰어난 작가, 시인이었다.

《새 세기의 첫 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20세기 《조선문학》의 마지막 장이 정말 무겁습니다.

해방의 환희로 들끓던 주체35(1946)년 7월 25일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정중히 모시고 자기의 첫 장을 펼쳤던 《문화전선》으로부터 《조선문학》으로 개칭하여 발전해 온 그 갈피갈피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문학적재보가 아로새겨져 있습니까.

리기영, 리찬, 김사랑, 한설야...

첫 페이지에 올랐던 이름으로부터 천세봉, 석윤기, 백인준, 황건, 정문향, 김순석...

정녕 그 이름만도 무게 있는 대문호들이 운명을 함께 해온 《조선문학》,

오늘은 비록 우리 곁에 없어도 그들이 남긴 빛나는 작품들은 《조선문학》과 더불어 영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문학의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조선문학》의 장장 638호!

그 한장한장에 우리 작가들의 얼마나 피 타는 탐구와 열정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까.

곡절도 많고 시련도 많은 년대와 년대들에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해 온 수많은 작가들의 삶의 환희와 눈물이 스며여 있고 전설같은 사연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세기의 이 마지막 언덕에서 뒤돌아 보며 떳떳한 자기의 자욱을 보는 작가는 얼마나 행복한것입니까.

참기 어려운 운명의 희롱도 간고분투의 낮과 밤, 가슴 찢는 아픔은 또 얼마였습니까.

불어치는 폭풍은 그 얼마나 모질었고 각양각색으로 분칠한 잡바람은 또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희

롱했습니까.

허나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목숨 같은 믿음을 안고 붉은기 아래서 시작한 우리의 걸음은 다른 길을 몰랐으며 곳곳이 주체의 붓대를 총창처럼 비껴 들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로만 걸어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의 수천수만의 독자들의 마음도 합쳐 20세기 《조선문학》의 페이지들을 빛나게 장식해 준 우리의 모든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대도 담긴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시대의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문학만이 사람에게 대한 사상교양의 힘 있는 무기로, 생활인식의 믿음직한 수단으로, 문화정서적수양의 친근한 벗으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 세워 인민들의 기대에 만족을 줄것을 바라고 계시며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문학으로 당당히 올라 설 21세기의 대문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무궁번영할 통일강성대국에서 우리의 《조선문학》에는 또 얼마나 자랑찬 자기의 자욱을 새겨 갈것입니까.

새 세기의 첫 기슭에서 펼칠 첫호에는 또 어떤 작가들이 자기의 이름과 함께 한장한장 무겁게 번질수 있는 위대한 걸작들이 오르겠는지?

기다려 주십시오.

21세기 첫 호를 기다려 주십시오.